

임금의 사부곡은 비석이 되고

국보 제7호
봉선홍경사사적갈비
(奉先弘慶寺事蹟碣碑) ▶2면

현대불교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면
그는 벌써 어진 사람이며, 반대로 어질다고
여기면 그야말로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법구경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864호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음력 11월 6일 · 불기 2555년 · 주간)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11월 24일 해인총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원로의원 인환 정관 월탄 암도 스님,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원로의원 종하 근일 스님 등 스님 7명에게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다. 2004년과 2008년 대종사 법계 품서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이번 법계 품서식을 통해 수지된 대종사는 총 35명이다. 설정 스님(사진 좌)과 종하 스님(사진 가운데)이 이날 받은 대종사 가사를 정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종교평화선언 발표 무산

11월 29일 선언 발표식 앞두고, 초청장까지 발송했으나 종정 법전 스님 '면밀한 검토' 주문에 연기…수정 불가피

조계종 결사본부가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최종본 발표를 계획하고 발표식 초청장까지 발송했지만 종정 스님의 재검토 지시로 연기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계 품서식 참석을 위해 해인사를 방문한 11월 24일 종정 법전 스님에게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법전 스님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만 밝히고 재가를 내리지 않았다.

결사본부는 당초 24일 오전을 종교평화선언 최종안 수정을 위한 의견 수렴 기한으로 정했다. 자승 스님이 방문한 자리에서 법전 스님이 재가를 내리면 최종안을 확정하고, 29일 발표식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예상과 달리 법전 스님의 재가가 내려지지 않자 교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분분했다.

더구나 법전 스님은 하루 만인 25일 "더 널리 의견을 구하고 발표 시기도 검토하라"며 사실상 유보 결정을 내렸다. 스님은 팩스를 통해 종단에 의견을 전달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전 스님의 유보 결정에 따라 29일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발표식을 예정하고, 정치권 등 각 계에 초대장을 발송한 종단은 급히 발표식을 취소했다.

자성과 쇄신 결사추진본부는 25일 "종교평화선언 관련 종정 예하의 뜻을 받들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결사추진본부는 "종정예하께서 종교평화선언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주셨다. 종정예하께서는 종교평화 선언 취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다. 그러나 더 널리 의견을 구하고 발표 시기도 검토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다. 29일 예정된 발표식 행사는 부득이 연기한다"고 밝혔다. 추진본부는 또 구체적인 향후 계획은 내부 절차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조계종, 소통 대신 '호통'

소통 외치면서 정작 일방통행

소통과 화합을 표방하며 출범한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총무원장 자승)에 권위주의적 종무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조계종 포교원은 개정된 '신도단체등록및관리령'에 따른 신도단체 재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포교원은 신도연합단체와 직장직능단체 등 16개 단체들에게 2012년 1월 5일까지 신도단체재등록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비판기사 아닌 언론사에 대응
내부 문제 비판 자원봉사자에
자격 및 활동정지 5년 중징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도단체들과의 견해 차이로 논란을 빚고 있다. 포교원이 신도단체 등록시 단체 회칙 및 정관에 '대한불교 조계종' 명칭 사용과 포교원장의 당연직 총재권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총재는 해당 단체의 회장 · 감사의 임명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기 때문에 단체들은 포교원의 규제와 간섭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신도단체에 조계종이 아닌 타 종단 신도들도 활동 중이기 때문에 조계종 명칭 사용 의무화는 내부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각 단체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신도단체 한 관계자는 "불교를 하나로 생각하고 범종단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이 설립 취지인데 포교원의 방침은 당혹스럽다. 신도단체로 등록하고 나면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포교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신도단체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이 포교원의 입장이다. 포교원은 그동안 각 단체들이 주요 행사 때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과 교구본사에 제 각각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신도단체로서의 효과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왔으나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유탁 포교원 신도팀장은 "조계종 신도단체라는 명분이 명확해야 지원 근거도 명확해진다. 단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내쫓겠다는 것은 아니다. 포교원장스님의 당연직 총재는 사고단체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단은 또 종무행정에 대해 비판적 내용을 게재한 교계 언론에 대해 폭언을 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대응해 '소통과 화합'을 지향한다는 말을 무색케 했다.

불교포커스는 10월 30일 '불교, 정부의 수족이 될 건가?'의 기사에서 종단의 정부 예산 의존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불교포커스는 조계종 핵심사업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후 종단은 기사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는 등 반발했고, 해당 기사와 동일한 기간 내 게재할 것을 요구하며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불교포커스는 종단의 대응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올바른 언론관 회복을 촉구했다. 종단은 18일 기획실장 정만 스님 명의의 공문을 불교 포커스에 발송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처럼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종무 행정은 재가자를 출가자의 관계를 평등이 아닌 수직 관계로 이해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내부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자비의 전화 김선희 상담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선희 상담원은 자비의 전화가 내부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주장하며 인터넷 주권방송 등에 출연해 문제를 공론화 하고, 포교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종단은 10월 25일 종무행정 방해와 삼보 비방 등의 사유를 들어 김선희 상담원에게 5년 간의 정회원 자격정지 및 활동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선희 상담원의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단자정센터는 24일 '출가자와 재가자의 역할 정립 이대로 좋은가'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징계가 부당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출가자와 재가자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단자정센터는 "건전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자원봉사자를 중징계하는 것이 과연 불교적 해결책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중징계는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종단이 재가자의 역할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외국인들, 조계사보다 남산타워 선호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선호 체험에 템플스테이 없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가장 체험해 보고 싶은 콘텐츠에 불교문화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1월 3~20일 1849명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어느 명소와 어떤 체험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95명(16%)의 외국인들이 '남산 N서울타워에서 연인과 자물쇠를 걸고 키스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명동에서 한국 화장품 쇼핑 투어'가 13.4%(247명)로 2위를, '경복궁에서 수문장 교대식 보고 복식 체험하기'가 10.9%(201명)로 3위를 차지했다. 상위 20위 안에서 불교와 관련된 체험 및 명소는 선정되지 못했다.

다만 조계사와 인접한 '인사동에서 전통 물건 쇼핑하고 전통차 마시기'가 8위, 천년고찰인 강남 봉은사 근처의 '코엑스 전시와 아쿠아리움 둘러보기'는 2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사결과는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윤영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서울권 사찰들은 숙박시설까지 완벽히 갖춘 사찰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외국인들은 자연이 어우러진 지방 전통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팀장은 "현재 화계사 · 봉은사 등 서울권 중심사찰에 외국인 상시사찰 선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향후 2~3년 안에는 서울에도 템플스테이를 실시할 수 있는 사찰들이 많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대상

불출협, 올해의 불서 발표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11월 23일 '2011 올해의 불서 10' 및 불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다.

제8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은 〈대장경, 천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불광출판사 刊)이 차지했다. 〈비우고 채우는 즐거움, 절집 숲〉(운주사 刊), 〈일상에서의 작은 깨달음〉(나무생각 刊)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올해의 불서 10'에는 이를 포함해 〈내 인생의 절밥 한 그릇〉 등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 6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864호 CONTENTS

종단 2
진각종 11대 성초 총인 취임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 취임

사회 3
조계사서 SK행복나눔 김장 행사

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4

현장속으로 5
조계종 대종사 품서식



나눔 6
한마음선원수계법회
김홍국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동국 지성콘서트 박경철 13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재 교 부 공 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 일들이 부처님의 자온으로 원만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각 신문사를 통하여 수차례 재교부 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 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직 재교부를 받지 않은 종도들이 다수 있어 이에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재교부 공고를 하오니 기간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범 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신분증
2. 접수기간 : **2555(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2011년 12월 30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효)
3. 접 수 처 : 각 교구종무원
4. 문 의 처 : 02)735-0501, 0502

대 한 불 교 원 효 종 총 무 원 장 **향 운** 합 장

참회와 죽비 소리로 세상을 맑히자

진각종, 제11대 성초 총인 추대법회

"비로정상의 광명이 오봉을 비추어서 중생의 심전을 환하게 밝히니 진각종문이 만다라 법계를 열어 가리라."

진각종(통리원장 혜정)이 제11대 성초 총인 추대법회를 11월 24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마련하고, 진각종지의 실현을 위해 용맹정진 할 것을 서원했다.

성초 총인은 1971년 남부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제3~9·11대 종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1997년에는 제25대 통리원장에 취임했고, 2002년 종사를 품수했다. 2006년 제12대 종의회 의장으로 활동했고, 2007년에는 혜원심인당 주교를 지냈다. 또한 통리원장 재임시 진각복지재단을 설립해 진각종의 불교 사회복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진각종 종지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진각종 교육원장 경정 정사는 강도발원문을 통해 "추대법회는 그동안 종단과 사회의 소통에 큰 인연과 역량을 보이신 성초 총인 예하의 정진력을 더욱 수승하게 하려는 시대법문이 될 것이다. 그 공덕으로 종단이 화합승단 본연의 자리에서 시대와 사회를 정도로 인도하고 정화하는 종교적 본분을 다해가는 큰 계기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추대사에서 "사라져가는 밀교를 중흥시키기 위해 새로이 밀교를 창종하신 진각성존 회당종조의 법통을 11번째로 승계 상승하는 뜻 깊은 날이다. 성초 종사는 참회와 서원의 죽비소리로 진언행자의 수행과 대중교화를 이끈 큰 스승이다. 이런 위업은 우리시대 불자로서 자비와 희사의 실천적 삶을 이끄는 원력이 됐다"고 말했다.

강도발언과 추대사 후 성초 총인은 법어를 내려 중생과 나라, 인류의 안존(安存) 열락(悅樂)이 법계에 두루하도록 용맹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성초 총인은 "뭇 생명의 자성참회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심인정토는 사바예토를 청량하게 정화하니 말법시대에 진각정도 찬연히 밝아오누나"라고 말했다. 성초 총인은 또 "심인법통을 이어받아 사바세계의 등명으로 삼고자 한다. 참회의 약방문은 불법을 체로하여 세간을 정화한다. 심인의 진실방편은 심성을 깨쳐서 과학문명을 옳게 쓸 수 있게 한다. 진각의 정법설법은 진언의 총지문을 열어 중생 업을 다스리게 한다"며 이 법문으로 화합종단의 가풍을 새롭게 하자고 밝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초 총인의 추대법회에는 2000여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흔 前 총인과 일정 정사 등 진각종 원로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천태종 前 총무원장 정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대만 불광산사 의인 스님, 정의화 국회부의장, 강봉석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신계륜, 신정치 문화원 이사장, 커멀 프스트 커멜라 주한네팔대사 등이 참석했다.

추대 법회에서는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봉석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성초 정사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민족통일을 위해 힘써오셨다. 성초 총인의 지도 아래 그 가르침이 널리 확산돼 부족함을 수행으로 더하고 넘침을 자비희사(慈悲喜捨)로 나누는 진각종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11월 24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열린 제11대 총인 추대법회에서 성초 총인은 화합 종단의 새가풍을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 종회의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성초 총인은 진각복지재단을 설립해 한국불교가 일상 속에서 자비를 펼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 그 위업을 계승하고 다시금 새로운 서원으로 진각종을 이끌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서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신계륜 前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위를 바라보지 않고 작은 실천과 수행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는 종교인의 자세를 성초 총인님의 추대식에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민족과 인류를 향한 복과 지혜 가득한 가르침을 진각종에서 펼쳐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추대법회를 계기로 진각종이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나 역시 진각종의 가르침을 통해 배려와 맑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⑥**

임금의 사부곡은 비석이 되고

봉선홍경사사적갈비
(奉先弘慶寺事蹟碣碑)
국보 제7호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흥리 320번지
고려 현종



봉선홍경사는 고려 현종 12년(1021)에 창건됐다. 절 이름 앞의 '봉선(奉先)'은 절을 짓기 시작한 고려 안종(安宗)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붕어하자, 아들인 현종(顯宗)이 낙성한 후 선왕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고려 제8대 임금인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도봉사로 피난했다. 그곳에서 임금은 불심에 의지해 외세를 물리치고자 대장경 6000권을 새겼다. 그렇다. 올해가 대장경 천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씨앗을 심은 이가 고려 현종이다.

천년 전 임금의 사부곡도 들리지 않는 터인데, 절도 창건 관련 기록을 담아 1026년 세운 갈비(碣碑)만을 남겨둔 채 보이지 않는다. 인근에는 1번 국도가 지나는데다가 규모에 맞지 않은 옹색한 보호각에 갇힌 갈비를 보고 있노라면 피난 갔던 임금의 답답함이 전해온다.

'갈비'는 일반적인 석비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한다. 대개는 머릿돌이나 지붕돌을 따로 얹지 않고 비몸의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비는 거북받침돌과 머릿돌을 모두 갖추고 있어 석비의 형식과 다르지 않다.

거북 형태의 받침돌은 양식상의 변화로 머리가 용의 머리를 갖추고 있다. 머리 양쪽에 새겨진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날개가 생동감을 더한다. 비몸돌 앞면 윗쪽에는 '봉선홍경사갈기'라는 비명이 가로로 새겨져 있다. 머릿돌에는 구름에 휩싸인 용이 멋드러지게 새겨져 있다.

조동섭 기자

승가 본연의 화합 정신으로 변화를

전국비구니회장 이·취임식

"승가본연의 화합정신을 항상 잊지 않고, 비구니 위상 정립과 법룡사를 비구니 종합도량으로 쇄신하는데 주력하겠다."

전국비구니회 사상 최초로 경선을 통해 당선된 명우 스님이 제10대 전국비구니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21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대법당에서 제9·10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명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전국 비구니회의 주체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비구니 스님들이며, 법룡사 역시 전국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이자 활동공간이다"라며 "하심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을 항상 잊지 않고 여러분과 더불어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오른쪽)이 취임법회 후 대중들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전국비구니회 8·9대 회장 소임에서 물러나는 명성 스님은 "회장 경선에 투표한 1500여 비구니 스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며 비구니 승가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비록 이 자리는 떠나지만 한국불교의 새 역사를 쓰는 일에 남은 생을 다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이임사를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에서 "명우 스님은 종단 최초의 상임포교사로 활동하면서 석남사를 포교중심도량으로 일구기도 한 선교를 겸비한 스님"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출범 50주년을 향한 전국비구니회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개혁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동국대 새 이사 일면·삼보·성타 스님

상임이사 성관 스님 교체로 학원운영 기조 변화 예상

조계종립 동국대 신임이사에 일면·삼보·성타 스님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정련)는 11월 24일 제267회 이사회를 열고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 후임에 삼보 스님을, 성관 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 후임으로 일면 스님(前 군종특별교구장)을, 성타 스님(불국사 주지) 후임에 성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삼보 스님과 도완 스님(법흥사 주지), 일면 스님과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 성타 스님과 종성 스님을 동국대 이사 후보로 복수 추천했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성호 스님, 9820만원 추징 확정

재심호계원 23일 판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 시비로 멸빈 처분을 받은 성호 스님(前 금당사 주지)에게 공권정지 5년과 변상금 9820만원 추징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11월 23일 제70차 심판부를 열고 성호 스님에 대한 재산비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21일부터 총무원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호 스님은 "호계원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사회법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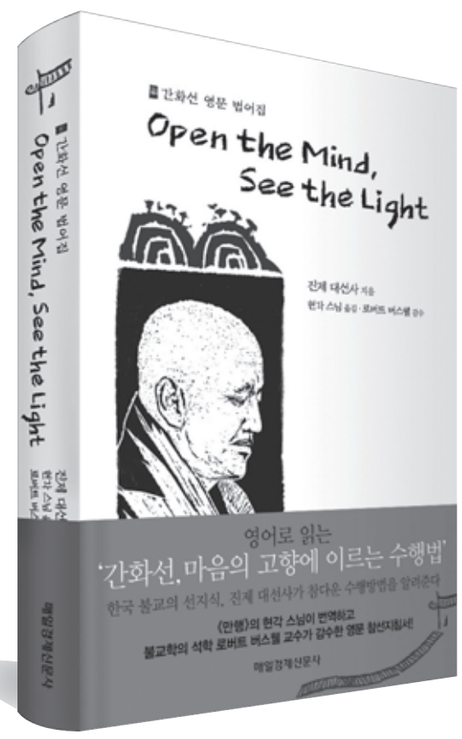
박구원 만평



Tel: 02)2000-2636 Fax: 02)2000-2609 www.mkbook.co.kr 매경출판

세계화 시대, 국내 최초로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간화선 영문지침서!

Open the Mind, See the Light



이제, 세계의 지성인들이 참선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는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감수하고 극찬한 참선법문집!

동양정신문화의 골수인 간화선, 뉴욕의 상징인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말하다.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법어 전문 수록.

"이 책에 실린 선사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 응용에 있어서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의 방법에 관한 선사님의 생각과 통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루이스 랭카스터** UCLA 명예교수

진제 대선사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법맥인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제 79대 법손으로 現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진제 대선사 지음 | 현각 스님 옮김 | 로버트 버스웰 감수 | 신국판 변형 양장 268면 | 값 20,000원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펼쳐진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DVD 출시(btn)

"오늘 밤 선사님과의 대화는 세계의 놀라운 다양성과 국경을 넘어 다리를 잇는 인류 공동의 휴머니티를 우리에게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이번 역사적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게 하신 진제 선사님의 방문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BTN 특집
진제 대선사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2011. 9. 15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
· DVD 2개 세트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해운정사(051-746-2256)

“사랑 김치 드시고 행복하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 자승)은 SK텔레콤(대표 하성민)과 함께하는 ‘2011 SK텔레콤 행복나눔 김장행사’를 11월 22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유정성 목사, 대한성공회 서울 교구장 김근상 주교 등 3개 종단 대표와 SK텔레콤 하성민 대표이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배태진 목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이경림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직접 김치를 버무렸다. 이날 담근 김치 110톤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 소외가정 등에 전달됐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佛都 부산서 훼불 사건 연쇄 발생 ‘충격’

개운사 등 반송동 일대에서
붉은 페인트로 불상 등 훼손

부산 반송동 일대에서 사찰 내 불상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반송 2동 개운사 주지 혜암 스님은 21일 새벽 4시경 경내 아미타불과 사천왕상 등 각 종 불상이 붉은 색 페인트로 훼손된 것을 발견했다. 잠겨 있던 대웅전의 불상을 제외하고는 30여 군대의 불상과 사찰 내부 시설들이 훼손돼 있었다. 스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혜암 스님은 “붉은색 페인트로 S자를 그렸다. 훼불 사건이 이 일대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새벽 같은 지역에 위치한 지림사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이 침입해 불상을 훼손하고 도주했다. 더구나 괴한은 지림사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당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림사는 새벽에 훼불 사태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하고, 사찰 인근에 설치된 CCTV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16일과 17일에도 반송동 인근 적조암과 원오사에서 훼불 사건이 발생해 계속된 사태에 불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24일 ‘부산 4개 사찰 훼불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웃종교인의 훼불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 이상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상호 존중하는 종교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 발표를 앞두고 있는 등 불교는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태는 이웃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종교간 화합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또 “이번 사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만행이다. 한국불교를 희롱한 것이며 2000만 불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MB정부의 종교화합이 말장난에 그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남의 종교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웃종교가 가져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괴한에 의해 훼손된 개운사 불상

특별기고

평화는 힘 있을 때 가능하다

얼마 전부터 소위 ‘21세기 아소까 선언’을 둘러싼 논쟁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격한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아직 불교가 생동하고 있고, 불교도들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구를 위한 선언일까?” “누구에게 하는 선언일까?” 필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선언은 ‘열린 진리’ ‘열린 종교’를 강조하고 있다. “내 종교만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종교도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동반자이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는가. 아니, 우리 불교가 언제 남의 종교를 부정하고, 불교만이 길이요 진리요 구원이라고 주장해 왔던가? 언제 우리 불교도가 교회를 부정하고 성당을 훼손하는 침략적 행위를 자행해 왔던가?

지금 우리 불교는 기진맥진해 있다. 종단 내부의 탐욕스런 권력구조와 이교도들의 전면적인 도전 앞에서 힘을 잃고 이류·삼류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다. 스님들도 기력을 잃고 재가대중들도 도처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종교는 다 진리다” “싸우지 말자, 비난하지 말자”고 하니, 기가 막히는 것이다. 싸울 힘도 대항할 능력도 없는 초라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주장하니까, 힘이 빠지고 화가 나는 것이다. ‘아소까 선언‘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도 많은 불교도들이 화를 내는 것은 바로 이런 심리적 상황 때문일 것이다. ‘무장해제’라는 일부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달리 생각하면, 언제 우리가 무장한 적이 있었던가?

이왕 이런 선언을 내려 한다면,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공동발의로 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서 그들을 향하여 선언했어야 할 것이다. ‘아소까 선언’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 아닐까?

선언에서는 아소까 대왕이 모든 종교를 옹호하고 평등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래서 ‘아소까 선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빠져 있다. 그것은 아소까 대왕이 불교의 담마로써 인도 대륙을 정신적으로 통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위와 돌기둥에 새겨진 아소까 칙령은 ‘불교’라는 전제 없이 보편적 의미의 담마(法, 善法)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담마는 실제로는 불교이다. 불교의 담마(佛法)이다. 여기에는 〈숫따니파타〉 〈앙굿따라니까야〉 등 초기경전들이 인용되고 있다.

아소까 대왕은 불교로 개종하고 열렬히 신봉하면서, 불교 담마를 인도대륙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수많은 사리탑과 바위·돌기둥을 세워 불교 정신을 전파하고, 멀리 중동지역까지 전법사를 파송해 불교세계를 확장시켜 갔다. 그러면서 불교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종교 평화를 실현해냈다. 평화는 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역사적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종교평화는 힘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불교가 힘을 갖고 있어야 이 땅의 종교평화는 비로소 가능하다.

‘아소까 선언’을 아무리 외쳐 봐도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저들이 경청하겠는가? 그런 까닭에 ‘아소까 선언’이 진실로 평화선언이 되려면, 먼저 우리 불교계의 힘부터 길러야 한다, 선의의 경쟁을 벌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중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현장에서, 힘없는 자들이 ‘우리 평화합시다’하고 나선다면, 그것은 백기(白旗)를 드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자유로운 경쟁, 선의(善意)를 다하는 치열한 경쟁, 이 경쟁을 통하여 힘을 기르고 세력을 키우는 것, 그것은 만고불변의 ‘생존의 법칙’일 것이다. 그것은 평화 이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중들이여, 전법하러 떠나가라”고 분부하시고, 팔순 노령으로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피땀 흘리며 변방으로 나아가 법을 전파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만해 스님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승리한다” 이렇게 절규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밤을 지세며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김재영(청보리회 법사)

중앙신도회, 북측과 문화재 환수 ‘협력’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북한을 방문해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중앙신도회는 11월 22일 개성을 방문해 조선불교도연맹을 만나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 슈코칸에 있는 고려 5층 석탑과 중국 뤼순박물관에 있는 고려 범종 환수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중앙신도회에서는 이상근 사무총장과 강래구 대외협력위원장,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이 참석했다. 조불련에서는 리류룡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성 방문은 지난해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사회문화교류 차원의 첫 방북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박기범 기자**



특별기고

변화 위한 열린자세 지향해야

조계종 종헌에는 '석존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추종하고 있으며 정법을 통해서 실천할 것임을 선언' 하고 있다. 종지는 종단에서 추구하는 석존의 가르침이고, 종풍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실천방법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천방법을 선택해 왔다.

조계종은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승불교, 동아시아 불교적 특성을 띄고 있다. 그리고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염불, 기도, 절, 주력 등 수행법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종지종풍 구현 방법을 놓고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견해와 전통을 고수하려는 견해들이 곳곳에서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여 종단의 수행과 신행방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종지종풍 구현 곳곳 충돌
생활 속 실천 방안 필요

조계종단의 종지종풍을 사회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이면서 전통적인 방법은 법회와 설법이다. 법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설법을 통해서 신 · 구 · 의 삼업행의 변화를 주지시키고, 신행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교의 전통적 법회에 위기가 온 것이다. 동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포교적 성과와 연계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종지종풍을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포교방법을 개발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현재 당면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를 넘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고도정보사회로 전환되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정보기기의 개발과 사용으로 의사소통의 방식과 내용 면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매체의 활용과 동시에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포교 방법과 내용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종단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정보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포교인력의 양성이다. 포교는 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신도의 포교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조직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도 교육과 신행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종단이 추구하는 이념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교조적 태도로 접근한다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불교의 사회적 지지기반 형성을 위해서는 각 사찰에서 지역복지 증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사찰마다 봉사단체와 후원단체를 만들고 신도들이 참여한다면 낙후된 불교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복지포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구호 활동에 동참하는 것은 국제포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세계화된 불교 리더십 개발에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 종단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문화와 수행이다. 문화적 체험은 사람의 생각과 태도,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템플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이와 같은 체험효과 때문이다. 다만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는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다. 오온과 육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문화포교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의 가장 큰 장점은 서구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행전통이 있다는 점이다. 다만 간화선 중심의 수행체계는 초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수행포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접근을 가능케 하려면 명상이라는 가치중립적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간화선의 원리를 바탕으로 행복명상, 치유명상, 자비명상, 생활명상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수행포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조계종의 정체성과 전통은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시대에 적합하게 적응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열린 태도와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종도들의 헌신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이 불교의 사회적 가치와 포교효과를 증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응철(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한해동안 개최한 대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로 나선 발제자들도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간화선이 조계종의 전부는 아니다

학담 스님 11월 대토론회서
간화선 지상주의 정면 비판

"조계종 정체성이 간화선인가? 종도들이 간화선을 강박관념과 같이 되뇌이는 것은 종단의 실천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조계종 종지의 현대적 구현을 위해서는 조계종이 대표 수행법으로 내세우고 있는 '간화선' 의 굴레를 넘어 다양한 수행법을 반영한 방법론이 종도들에게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올 한해 동안 개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의 마지막 토론회로 마련된 '조계종지의 현대적 구현' 에서 발제자로 나선 대승사 주지 학담 스님은 210페이지에 달하는 발제문을 통해 간화선 중심의 조계종 풍토를 비판했다.

학담 스님은 11월 23일 주제발표 '조계종의 연기론적 해체와 건설' 을 통해 " '간화선' 명명 하에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론이 정말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묻고 "현 시대에 맞는 대승선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조계종의 포괄적 전승체계가 중국 중심적 종파주의, 법통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간화의 실천정신으로 투철하게 사는 자라면 간화선을 교조적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며 현재의 선이 종파선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학담 스님은 "부처님 당시 간화선이라는 전승 조계종 안의 수많은 전승 요인을 하나로 절대화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실천과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의 이런 주장은 현재 조계종이 중국의 간화선 중 남종선 중심의 법통을 고수해 간화선 외에도 종도들이 염불과 다라니, 간경 등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치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현시대 맞는 대승선 필요
부처님 당시 간화선 있었나
교죠주의가 불교 저해
승풍 개선 위한 목소리 들어야

학담 스님은 "우리 스스로 조계종 종지 종통에 관한 융회적 포괄적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미래사회 문명사의 조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며 종단의 승풍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도 제시했다.

스님은 ▷원융 선풍 정립과 회통적 이해 ▷한국불교만의 종파 전승 이해 ▷경전에 근거한 말과 설법 ▷소수 승려 도제독점 방지 위해 도제 인원 제한 ▷법(法)제자 입실 건당 제도 확립 ▷한국불교 율법 재조명 ▷선교율 대종장과 불사문중 대종사 선출 ▷삼보 귀의 삼처 회향 승풍 진작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학담 스님과 종광 스님(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 화랑 스님(동국대 교수), 설우 스님(진불선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플로어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정만 스님,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교육부장 법인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과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원융불교 하려면 조계종 이름부터 바꿔야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 종광 스님(사진)은 11월 대토론회에서 조계종이 종단을 넘어 원융불교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광 스님은 먼저 "조계혜능 선사의 법을 이었다는 현 종명이 과연 전체 불교의 모든 면을 아우를 수 있는가?"라며 "1962년도 제정된 조계종 종명이 오늘날 불교의 다양한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종명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 때부터 '너는 조계종이다', '너는 태고종이다', 혹은 '너는 아니다' 라는 것이 있었겠는가. 부파불교

종파성 강조는 불교 좁게 만들어
다른 수행법 포괄하는 새 불교로

당시 권력과 야합해 각 부파들의 종파성을 강화시킨데서 불교의 폐단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각 종파들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면 흥하고 박해를 받으면 쇠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날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파불교의 반성에서 오늘날 종지 구현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지나친 정통성 강조가 불교의 참면목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조계종이 전승의 역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승 대부분이 허구나 악의적 위조 · 날조가 있는 전승을 위한 전승도 비일비재했다"며 "사자상승이나 법통으로 불교가 오늘까지 이어 내려온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것 또한 선종에서 말하는 법통설로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선종에서 말하는 법통설이 하택신회에 의해 만들어진 조사의 법통설에서 후대에 만들어 졌으며 이런 정통성에 얽매여 다른 종파, 다른 수행법들을 외면하는 것은 불교 중흥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종파명, 종지에 얽매이기보다 이 시대 참불교 정신을 펼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한글법요와 전통작법으로 올리는 특별 합동 천도재 안내

12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단순히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수준의 세계와 시간의 흐름을 합한 것입니다. 즉 세(世)는 시간의 흐름을, 계(界)는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생이 스스로의 명상수행에 의해 존재의 수준(grade)을 높여(up)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열린선원에서는 부처님 깨달음 얻으심 2600주년 성도절을 맞이하여 약2개월 동안 지장기도로 정진하며, 성도절 전야에는 밤샘참선 정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들은 삶의 질곡 속에 지쳐 명상수행 할 용기와 결심을 갖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천도재는 부처님 또는 보살님 그리고 선신들과 스님들과 재를 지내는 후손들의 노력으로도 수행에 의한 수준높임(up grade)이 가능하여 그 결과 고통이 없는 극락(極樂)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린다, 추천한다는 뜻의 천(薦)과 제도한다는 의미의 도(度)를 함께 붙여 천도(薦度),3업을 맑힌다하여 재(齋)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선원에서는 삶에 지친 현대인을 위하여 특별 합동 천도재(薦度齋)를 봉행하여 동참재자들의 조상님과 자매질손, 배우자, 태중영가를 천도하고 수행의 의지를 북돋우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천도재는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과 함께 전통작법과 회심곡을 시연하므로 매우 뜻 깊고 풍성한 천도재가 될 것입니다.

동 참 비
자율보시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1, 역촌중앙시장 2층(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근처)

저자거리 열린선원 원장 무상법현 합장

문의 및 접수 : 02)386-4755
opentemple@hanmail.net



사진 뒷열 왼쪽부터 새로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근일 · 설정 · 월탄 · 인환 · 정관 · 암도 · 종하 스님,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앞열 왼쪽 여섯번째), 조계종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앞열 왼쪽 다섯번째),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앞열 오른쪽 다섯번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앞열 오른쪽 여섯번째)를 비롯한 조계종 원로 스님들

모든 중생을 교화해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3년만의 조계종 대종사 법계 품서식 거행…법보종찰 해인사서 일곱 스님 품수

40년 넘게 수행에 매진하며 덕망을 쌓아온 조계종 원로스님에게 품서되는 조계종 최고 법계(法階)인 '대종사'(大宗師). 수행력과 덕망의 상징인 대종사를 품서하는 대종사 품서식이 3년 만에 열렸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11월 24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 · 정관 · 월탄 · 암도 · 종하 · 근일 등 7명에게 대종사 법계를 품서했다.

2004년과 2008년 대종사 법계 품서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이번 법계 품서식을 통해 대종사는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대종사 법계 품서식은 명종을 시작으로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조계종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의 고불문, 품서자 헌화, 품서자 대표 인환 스님의 서원문 낭독, 법계증 및 가사 수여, 청법게, 법어, 품서자 대표 정관 스님의 발원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불자 봉정, 사홍서원, 폐회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한겨울로 접어드는 추위 속에서도 500여 사부대중은 이날 조용히 법계 품서식을 지켜보며 종단 승풍 진작을 발원했다. 품서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스님,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 원로의원 진제 · 도문 · 원명 · 명선 · 월서 · 혜승 · 현해 · 월파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지원 스님 등이 참석해 신임 대종사 스님들을 축하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이날 대종사 품서 스님들에게 직접 법계증과 대종사 휘장이 부착된 25조 가사를 내리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법어를 통해 "근념정진(勤念精進)으로 터득한 불조대기(佛祖大機)로 모든 군생에 이택(利澤)을 입히고 사해를 빛나게 하여 불조의 정인(正因)과 강령(綱領)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도 이름뿐이라고 했는데 대종사(大宗師)란 지위에 얽매여서 되겠는가"라고 물으며 "자기 본분을 밝히는 본분철추(本分鐵錐)로 현관을 열게 되면 불조와 더불어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되니 그 자비심을 마음대로 활용하라"고 말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고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대종사 비구들이 오랜 세월 선근인연으로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번뇌를 여의고 지금 이 법석에서 큰 서원을 발하옵고 역대전등의 정통법인을 받으려 한다"며 "불법의 진실한 뜻 깊이 수지해 광도중생의 대원과 번뇌불생의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 발원 하옵니다"고 발원했다.

대종사 법계 품수자 대표로 나선 원로의원 인환 스님은 서원문 낭독에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고 크게 외친 뒤 "신명이 다하도록 불조의 혜명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품수자 스님들은 새로이 품수받은 대종사 가사를 정대하며 다시 한번 중생 제도를 서원했다.

품수자 대표로 나선 정관 스님은 부처님을 향해 "이 자리에 함께 한 대중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정진할 것을 발원한다"며 "불법을 증장하고 종단은 나날이 발전하며 법의 수레바퀴 쉼 없이 굴러 온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게 해달라"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자(拂子)'를 봉정하며 대종사 품수를 축하했다. 불자는 불교에서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 · 번뇌를 떨어내는데 사용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불구(佛具) 중 하나로 대종사의 상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정관 스님의 서원문 낭독

종정 법전 스님의 법어

대종사 가사 정대

대종사 법계증 및 25조 가사 품수

현봉 근일(玄峰 勤日) 스님

1961년 은해사에서 도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7년 해인사에서 성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역임
재심호계위원 역임
부석사 · 삼보사 조실
제9 10 11 12대 중앙종회의원 역임
능인학원 이사, 이사장 역임
(현)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 원로회의 의원

송원 설정(松原 雪靖) 스님

1955년 수덕사에서 혜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1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역임
서울 화계사 회주 역임
조계종 개혁회의 법제위원장 역임
세계종교협회 공동대표 역임
제11대 중앙종회의장 역임
(현) 법계위원
(현) 덕숭총림 방장

미룡 월탄(彌龍 月誕) 스님

1955년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0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역임
중앙종회 의장, 수석부의장 역임
총무원 총무부장 역임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역임
불교신문사 사장 역임
초심호계위원장 역임
(현) 원로회의 의원

호암 인환(顥菴 印幻) 스님

1953년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6년 해인사에서 혜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일본 고마자와대 대학원, 동경대 대학원 교수 역임
(역) 동국대 불교대학장
(현) 일본불교학회 · 인도불교학회 회원, 조계종 법계위원
(현) 원로회의 의원

불국 정관(佛国 正觀) 스님

1954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7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역임
학교법인 금정학원 이사장 역임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역임
(현) 영주암 회주
(현)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 이사
(현) 원로회의 의원

여산 암도(如山 岩度) 스님

1955년 백양사에서 덕림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4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역임
총무원 부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역임
경찰대학, 동국대 선학과 강사 역임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역임
(현) 마하무량사 주지
(현) 원로회의 의원

진산 종하(晋山 鍾夏) 스님

1959년 해인사에서 고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68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봉암사, 선본사 주지서리 역임
능인포교당, 봉원사, 조제암, 관음사 주지 역임
불교방송 이사장 역임
(현) 원로회의 의원

LEADER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땀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10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일 주 문



도문 스님 육군훈련소 수계 법회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11월 19일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소천 정연태)에서 수계법문을 했다.



통도사 수능생 템플스테이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3~4일 수능생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055)384-8380



낙산사 지장전 낙성 법회 봉행

양양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은 6년간의 복원불사에 이어 11월 19일 지장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학업정진 2차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2012년 2월 29일까지 '자녀를 위한 행복한 동행, 학업성취 2차기도'를 개최한다.



국방부 군종병과장 취임

군승 제18기 김응 법사는 12월 1일 대전 육군본부 무궁화회관에서 제34대 국방부 군종병과장으로 취임한다.



김정태 국립중앙박물관회 12대 회장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11월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립중앙박물관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 3년.

〈부음〉 '직지 대모' 박병선 박사 타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 이를 알린 '직지 대모' 박병선 박사가 향년 8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박 박사는 지난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할 당시 〈직지심체요절〉의 존재를 처음 발견했으며 1979년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확인해 도서를 반환받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조계종은 박 박사의 타계에 대해 "모든 국민들과 깊은 슬픔을 함께 한다. 생전 하신 일들은 영원히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애도문을 발표했다.

고인의 빈소는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마련됐으며 11월 25일 장례식이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보훈처는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서울 현충원에 안장했다.

노덕현 기자

군승 사기진작이 군포교 배가

제43회 군승의날 여는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



"젊은 불교, 남성 불교의 미래는 군포교 성패에 달려있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불자들의 도움과 군포교 일선에서 뛰는 군승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절실합니다."

11월 30일 제43주년 군승의 날을 맞은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군종교구 양대 과제로 10만 장병 정예불자화와 함께 군불자교육 체계화의 비전을 제시했다.

2012년 육군훈련소 신축법당 완공을 앞두고 열릴 예정인 군승의날은 군포교 역량을 결집의 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자광 스님은 군승의날을 앞두고 "2012년 군법회 체계화를 추진해 젊은 불자들의 눈에 맞춰 법회용어를 현대적으로 바꾸고 통일된 설법교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군훈련소 신축법당 완공과 함께 외형과 내형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스님은 "군포교는 고령화, 여성화 되고 있는 불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연간 10만명 이상을 수계해 배출할 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이 제대 후 신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육군훈련소 신축법당 불사에 대해서는 "현재 70% 진행된 단계로 완공되면 젊은 불자들이 불교를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현재 종단의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도움을 줘 순탄히 진행 중이다"고 기대를 표했다.

스님은 군승의날 그동안 최일선에서 뛰어 온 군승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것을 밝혔다.

스님은 "군승들은 과거도 지금도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포교 일선에서 이웃종교와 치열히 경쟁하며 활동하고 있다. 종단을 비롯한 불자 여러분들이 군승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교 현장과 교구행정의 원할한 종책 집행을 위해 2011년 군승의 종회의원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스님은 "군포교 현장에서 스님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는데 군복을 입었다 하여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대 군종교구장인 자광 스님은 30년 넘게 군포교 일선에서 활동해왔다. 1957년 화엄사에서 출가 1959년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6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스님은 1968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종비생 1기 졸업 후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하며 군포교와 인연을 맺었다. 1980년 군승단장으로 있으며 기독교 위주로 편성되던 국방부 예산을 바로잡고 1993년 국방부 군종실장으로 군승법사 정원을 100명 규모로 증원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행복한 결혼, 나눔과 함께하면 행복이 두 배

엘 스튜디오 정민주 대표 아름다운동행과 협약
신혼부부 한 쌍당 5000원 적립해 이웃 돕기로



"인생의 시작인데, 처음 시작할 때 나눔의 기쁨을 신랑신부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엘 스튜디오 정민주 대표(사진)가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을 통한 사랑 나눔에 나섰다. 정 대표는 1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방문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을 친견하고 협약식을 체결했다.

정민주 대표는 앞으로 엘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신혼부부들 한 쌍당 5000원씩의 기금을 적립해 동행측에 전달한다. 신혼부부들의 동의를 얻어 그들 명의로 엘 스튜디오가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름다운동행은 기금을 적립한 신혼부부들에게 축하카드를 발송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신혼부부들은 이 과정에서 아름다운동행을 알게 되고,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동행측은 연간 1000~1500명의 신혼부부가 엘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하고 있어 500~750만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대표가 적립한 기금은 저소득 청소년들의 문화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민주 대표는 "이런 취지를 신혼부부들에게 알렸는데 호응이 좋았다. 신랑신부가 더 행복해지고, 착해지는 것 같아서 흐뭇했다. 그들에게 나눔의 기쁨을 알려주고, 기부의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던 정민주 대표는 'KBS 현장르뽀 동행'을 시청하던 중 아름다운동행을 알게 됐다. 아름다운동행은 이 방송 출연자들에게 매회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이 불교계 공익법인이라는 점도 정민주 대표가 기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평소 깊은 신심을 갖고 절에 다니던 부모님의 모습에 정 대표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남편인 최종근 엘 스튜디오 회장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 최 회장은 정 대표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한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하자, 좋은 생각이라며 적극 찬성했다.

정 대표의 나눔 실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년과 재작년 베트남 커플들에게 드레스와 턱시도 18벌을 지원하는 등 그들의 결혼식을 후원했다.

또한 열악한 물 사정으로 식수 공급이 어려운 가정에 물 항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참여했다. 직업과 재능을 경제 활동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민주 대표는 웨딩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나눔 실천을 통해 지금껏 받았던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요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번 나눔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만큼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진흥원, 군종교구에 1억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군포교 기금 1억원을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에 전달했다.

11월 24일 마포 다보빌딩에서 있은 전달식에서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진흥원은 1970년대부터 군승 이동용 오토바이, 법당 건립비용, 포교서적, 신행물품 등을 군종교구에 지원해왔다. 진흥원이 있어 군불교의 오늘이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대진 스님 출판기념법회 봉행

참나선원 선원장 대진 스님의 포교 발자취와 인연들의 감흥을 선시와 산문으로 정리한 수필집 〈하늘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출판기념법회가 11월 19일 서울 연화사(주지 묘장)에서 봉행됐다.

기념법회에는 연화사 주지 묘장 스님,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 법천사 주지 동주 스님을 비롯해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대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의 인연에 감사하며 더욱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산사와 도심포교당의 소통을"

노원불교사암연합회장 대은 스님

노원불교사암연합회가 새 회장 취임을 계기로 산사와 도심포교당의 조화를 이룬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조동종 총무원장 대은 스님(상계동 도선사 주지 · 사진)은 11월 23일 제14대 노원불교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대은 스님은 "사암연합회 소속 사찰들의 소통에 힘쓰겠다. 먼저 노원구내 도심포교당과 북한산 지역의 산사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은 스님은 이어 "종단 운영의 묘를 사암연합회 운영에 발휘하겠다"며 "불교 사회복지 활동, 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해 노원지역 불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전 노원불교사암연합회장 호연 스님을 비롯해 노원구 지역 사찰 스님, 조동종 소속 스님 30여 명을 비롯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 70여 대중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2학년도 신·편(학점은행제)입생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어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 되어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하여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신입학, 수료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각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불교무용(작법)	바라춤/나비춤	수	오후 1~7	30
불교의식(실기)	시련/대령/관욕 상단/영단	월	오후 1~7	30
불교의식(이론)	불교의식	화	오후 1~4	재학생 졸업생

학 점 은 행 제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영산재의례절차I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7	30
범패실습I	각배과정	목	오후 1~7	30
영산재의례절차II	영산과정	금	오후 1~7	30
작법실습	작법과정	수	오후 1~7	30
영산재의불교 예술적특징	불교음악&무용	화	오후 1~4	30

편 입 학				
모집학과	교수요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7	약간명

■응시자격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교역자 및 일반인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 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분, 반명함판 사진 3매
◈편 입 학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전형일정** : 2012년 1월 16일 ~ 2월 24일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 본 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접수

■**합격자발표** :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특 전**
1. 재학생 중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종단이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합동득도 수계산림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2.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 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학중 출가자는 제외)
4.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5.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옥 천 범 음 대 학
2011년 동계방학 특강안내

과목	생전예수재	법 고
교수	마일운 스님 (영산재보존회 회장)	이기봉 스님 (옥천범음대 학장)
기간	12월 19일~ 2012년 1월 17일(5주) (매주 월요일 , 수요일)	12월 20일~ 2012년 1월 18일(5주) (매주 화요일)
시간	오후 3시~5시 (2시간)	오후 1시~5시 (4시간)

※ 과목별 수업요일과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특강 수강신청서 1부 (행정실)

접수문의 : 02) 392-3234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학장 이 기 봉 합장

스마트기기에서 만나는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계 최초, 템플스테이 앱북 출시

불교계 최초로 템플스테이 앱북(Appbook)이 개발됐다. 앱북은 북(book)의 형태를 갖추고 스마트기기에서 구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 이하 사업단)은 11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블릿 PC 사용자들이 점차 늘어 기존 인쇄 홍보물의 한계성을 느끼게 됐다"며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1700년 한국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앱북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앱북은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용으로 각각 영문·한글 버전이 출시돼, 애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앱북 제작을 담당한 여길태 디자인 멋짓 대표는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문화 불교를 이해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이라며 "불교의 정신과 한국문화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여러 목차를 한 번에 살필 수 있고, 일반책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앱북의 형태로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 앱북의 가장 큰 특징은 산사의 멋을 느끼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프로그램별로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사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 법고와 범종 같은 사찰 사물들 소리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 앱북은 내년도 외국인 상시사찰 선정사업에서 재지정되는 사찰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제작된다.

이미 2월에 모바일 영문웹사이트 오픈을 비롯해 아이폰 템플스테이 어플을 출시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바일 콘텐츠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지현 스님은 "정부의 템플스테이 예산 축소로 인해 템플스테이 사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바일 콘텐츠사업 활성화를 통해 한국불교와 한국전통을 알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불교계 최초로 출시한 템플스테이 앱북의 모습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대불련, 첫 장학기금 5억원 전달 받아



대불련총동문회(회장 윤제철)가 故 김익권 장군(1922~2006)의 미망인 한정희 여사로부터 장학기금 5억원을 전달 받았다.

대불련총동문회는 11월 19일 서울 방배동 '열린법당'에서 장학기금 기증식과 고불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대불련총동문회가 설립한 (사)대불을 통해 젊은 불자 육성기금으로 활용된다. 기금의 명칭은 故 김익권 장군의 호를 붙여 시곡(柿谷) 장학기금으로 불리며, 기증자의 뜻에 따라 신심이 투철하고 불교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학생, 고등학생 불자들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한정희 여사는 개신교 신자였으나, 김 장군과 혼인 후 개종해 불자가 됐다. 대불련 관계자는 "한 여사는 학생시절 받았던 고마움을 회향하기 위해 학생 불자를 위한 장학지원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학기금 기증식에 앞선 정기법회에서는 익산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이 '중도 사상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법문했다. 또, 기증식 후에는 대불련 학생들에게 장학금 2700만원이 전달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단군신화의 마늘은 본래 달래였다"

주영하 교수, 대한불교진흥원 화요강좌서 강연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의 치즈처럼 김치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김치의 역사를 알아야만 합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이 매달 한차례 진행하는 화요열린강좌가 11월 22일 마포 BBS다보빌딩에서 열렸다. 이번 강좌는 '자연이 우리 몸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린 마지막 강연으로,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사진)가 '음식으로 보는 인문학'에 대해 강연했다.

주영하 교수는 강연에서 "오늘날 김치를 떠올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배추김치'를 생각한다. 사실 배추의 종류는 다양하고, 김치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근대에 접어들면서 김치가 표준화 됐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서양의 철학이 유입되고, 근대화 산업에 접어들면서 음식문화는 표준화·대량화·위생화·화학화 되기 시작했다"며 "특히 한식세계화가 시작되면서 김치는 점차 표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교수는 "김치가 한가지로 표준화되면 나머지 종류의 김치들은 사라지게 된다"며 표준화 현상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어 주영하 교수는 "사라진 음식들은 인문학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영하 교수는 "식품은 개념적으로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며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마늘을 예로 들었다. 주 교수에 따르면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마늘은 본래 마늘 산자로 달래를 뜻한다.

주 교수는 "당시 곰과 호랑이가 먹었던 것이 지금의 마늘이었다면 우리의 식재료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은정 기자

제16회 명원차문화대상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이 제16회 국제 명원차문화대상 시상식 및 차 문화제를 11월 25일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향자


김경오


강법선

이번 명원차문화대상 수상자는 공로상에 김경오 극동지역여성항공연맹 총재, 학술상에 강법선 월간 〈다도〉대표, 교육상에 이향자 명원문화재단 대구 4지부장이 선정돼 상금 및 상패를 수여했다.

국제명원차문화대상은 한국 차 선구자인 故 명원 김미희 선생이 세운 차 문화 복원과 위업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국내외 차 문화·산업·교육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여된다.

명원문화재단 측은 김경오 총재는 한국 최초 여성 비행사로 한국의 항공발전과 저변 확대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김미희 선생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 공군 발전 및 여성항공협회, 국내외 항공계 발전에 큰 업적을 이뤄왔다고 밝혔다.

강법선 대표는 월간 〈다도〉 및 〈난과생활〉 발행인으로, 대장경 속의 차 문화, 다마고도(茶馬古道)와 티베트의 차 문화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논문을 통해 차 문화 학술발전에 큰 기여해 온 점을 높이 샀으며, 이향자 지부장은 명원지부를 개설해 다도인구의 저변 확대와 명원 김미희 선생의 차정신을 보급하는데 앞장서 온 공을 높이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핵심은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다"며 "문화는 각 민족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500만 차 인구를 가진 자랑스러운 문화민족으로서 차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차 문화의 문화적 위치를 가일층 선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를 통해 "故 명원 김미희 선생은 일찍이 '다도는 선승들이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불가에서는 선이 끝나고 수마를 쫓기 위해 애음도하고, 선다일체의 음다가 속행됐다' 고 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앞으로 우리의 차문화가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다도의 종가 명원문화재단이 주축이 돼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한마음선원, 5000여 신도 동시 수계법회

전국서 이른 아침부터 참석
5계 이행 가슴 깊이 서원해

"부처님 뜻에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서원합니다."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이 2011년 수계법회를 안양 본원에서 11월 20일 봉행했다. 수계법회에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영유아부터 가족들의 부축이 필요한 고령의 보살 등 50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선원을 방문해 수계법회 시간을 기다렸다.

수계자들은 삼보를 청하는 청송을 통해 불보살님들의 자비광명으로 수계를 증명할 것을 청하고 대행 스님을 증사로, 주지 혜원 스님을 계사로 모셨다. 신도들은 또 삼귀의를 행하고 오계를 받들어 본래 자성불을 발현할 것을 다짐했다.

의례 후에는 대행 스님의 법문을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계를 받고 이를 실천하면서 가피를 받는 것은 영혼을 건져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지극히 정성을 다해야 하고, 한번 받았다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수계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계율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이 길잡이, 보디가드를 해주면서 방향을 잡아준다. 의식만 있는 사람은 마음의 길잡이, 주장자가 없는 것이다. 한마음으로 둥글게, 둘로 보지 말고 살아야 한다. 옛날 얘기도, 미래 얘기도 듣지 말고 현재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얼음판 위에서 산다는 것을 느끼라. 그러면 5계 받은 것이 대성공으로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수계를 받는 한마음선원 신도들의 모습

법문 후에는 주지 혜원 스님이 5계를 낭송하며 지킬 것을 물었고, 신도들은 지키겠다고 대답하며 마음속으로 5계를 되새겼다. 이후 신도들은 순서대로 질서 있게 차례차례 스님들로부터 수계를 받았다.

하동균 불자는 "올해로 4번째 수계를 받았다. 수계를 받으면서 5계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된다.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지고 감회도 새로운 것 같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제12회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전달식

김흥국장학재단(회장 김흥국)이 12월 3일 서울 이태원동 마오에서 제12회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전달식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이상은 학생(번동초교·8)외 9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또 원로불자가수인 남강수 씨에게는 감사패와 100만원 상당이 상품이 전달된다.

김흥국장학재단은 2000년 2월 26일 설립돼, 매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김흥국 씨는 "이미 100명의 학생들에게 작지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후원 덕에 12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갖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02)745-0306

이은정 기자

봉

사단법인 한국불교환인종 창종 대법회

행

- 초대 종정 석정안 대종사 대관식 및 초대 총무원장 지우 종사 취임식 -

귀의삼보하옵고
만추지절에 불자님의 가내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깃들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사)한국불교 환인종 창종 대법회 및 초대 종정 석정안 대종사 대관식과 함께 초대 총무원장 지우 종사 취임식을 봉행 하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부디 동참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불자님의 가내에 항상 건승과 행운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5(2011)년 11월

사단법인 한국불교 환인종 창종 대법회 봉행위원회
위원장 지훈 원로의장
부위원장 화륜 종회의장 외 종도 일동

- 다 음 -

◎ 제 목 : (사)대한불교 환인종 창종 대법회 및
초대 종정 석정안 대종사 대관식(즉위식)
초대 총무원장 지우 종사 취임식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12월 11일
일요일 오후 1시

◎ 장 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8-144번지

◎ 문화회관 전화 : (053) 663-3081

후 원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불교TV
일붕신문사, 현대불교

(사)한국불교환인종 총무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1071번지 무량사 전화 : (053) 255-5570

불교대중화 · 세계화에 힘썼던 구산 스님

보조사상 硏, 학술대회서 조명



구산수연(九山 垂蓮; 1910~1983) 스님(사진)은 1970년대 미주를 순방하며 해외 포교당을 건립하고 송광사에 최초로 국제선원을 개원하는 등 해외 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또한 스님은 수행자이면서 500자 혈서로 정화운동을 이끌어온 개혁가이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1월 19일 서울 법련사에서 근현대 선지식 구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제22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법산 스님이 기조강연을 통해 구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고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과)가 '구산 선사의 상당법어집 〈구산선문〉분석 시론'을, 김방룡 교수(충남대 철학과)가 '구산 수련의 선 사상'을, 한동민 학예팀장(수원박물관)이 '1950년대 구산 수련의 종단 정화운동'을, 문경숙 박사(전북대 철학과)가 '구산 수련의 불교대중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표 했다.

법산 스님은 "스님께서 남긴 7바라밀의 생활불교실천운동을 되살리기 위해 송광사는 전국 불일회를 재흥시켜야 하며 '불일회보'를 복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산 스님은 "종단 역시 구산 스님의 정화정신을 자성과 쇄신결사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순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불교대중화에 힘쓴 구산 스님의 업적을 조명했다.

구산 스님은 800여 년 전 보조 지눌이 돈오점수 · 정혜쌍수를 이념으로 전개한 정혜결사운동을 계승해 '제2 정혜결사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스님은 1969년 신행 · 후원단체인 불일회(佛日會)를 결성했으며 송광사 분원인 법련사를 개원했다.

문 박사는 "지눌의 정혜정신을 계승하는데 평생을 바친 구산 스님의 유훈은 1987년 보조사상연구원의 발족으로 이어지게 했다"며 "보조사상연구원은 불교학과 및 인접학문의 국내외 전문학자와 신진학자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한편 토론의 장을 펼쳐 불교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산 스님은 1969년부터 대중포교의 원력으로 일반인을 중심으로 대중 수련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문 박사는 "최근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있기 까지 일찍이 구산 스님이 장려한 송광사 수련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구산 스님은 칠바라밀(바라밀행을 매일 실천하는 법)을 주창하기도 했다.

문경순 박사는 "구산 스님의 자애로운 풍모는 수많은 참선수행자들을 배출하게 했다. 또한 내실을 기하는 수행과 포교의 기반을 구축해간 것 모두 구산 스님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박사는 구산 스님의 국제적인 안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산 스님은 한국 최초의 국제선원인 불일국제선원을 개원해 외국인을 승려로 받아들였으며 여기서 배출된 로버트 버스웰은 세계적인 학자로 한국선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했다"고 말했다.

한동민 학예팀장은 구산 스님의 혈서투쟁을 조명했다. 한 학예팀장은 "구산 스님은 1955년 500자 혈서로 정화불사의 당위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 정화의 결의를 굳게 다졌다"며 "구산 스님은 교단정화가 무엇인지 온 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수좌의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둔황과 인도 · 네팔 사본 한자리서 살핀다

30일 오후 3시, 금강대 불교문화硏 제19차 콜로키움에서

국내에서는 드물게 둔황과 인도 · 네팔 문헌 사본을 통한 학술행사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천학)는 11월 30일 오후 3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둔황(敦煌)사본과 인도 · 네팔 사본'를 주제로 제19차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인문한국(H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이케다 마사노리(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fellowship연구원)이 '둔황(敦煌)출토 섭론종(攝論宗) 문헌 연구' ▷이영진(금강대 HK연구교수)가 '하리바드라의 부자연스러운 해석(forced interpretation)'를 주제로 발표한다.

(041)731-3614 **조동섭 기자**

죽음이 두렵다면 어찌 살지를 고민하라



11월 19일 밝은사람들연구소 학술연찬회에서 발제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안성두 교수(서울대 철학과), 황금연 외래교수(동국대 선학과), 박찬국 교수(서울대 철학과),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대)

밝은사람들硏 '죽음'주제로 제10회 학술연찬회 열어
초기불교 · 선불교 · 서양철학 · 현대의학 분야별 정리

죽음은 인생의 끝일까, 또 다른 시작점일까.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해 한 삶이 정리되고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윤회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현대의학에서는 죽음을 '단순한 개체성의 상실'이라고 표현한다. 또 서양철학에서는 죽음은 유한하지만 그 안에 무한의 정신이 존재한다고 본다.

초기불교와 인도 · 티베트 불교, 선불교, 서양철학과 현대의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삶과 연관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를 주제로 제10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좌장인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의 진행으로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안성두 교수(서울대 철학과), 황금연 외래교수(동국대 선학과), 박찬국 교수(서울대 철학과), 우희종 교수(서울대 수의대)가 발제를 맡았다.

정준영 교수는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를 주제로 초기불교의 생사관을 살폈다.

정 교수는 초기경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죽음의 두 가지 개념인 마라나(marana)와 쭈띠(cuti)로 죽음을 설명했다.

정준영 교수는 "마라나는 오온의 생리적 기능이 멎는 죽음을 뜻하고, 쭈띠는 죽음을 통해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의 윤회를 의미한다"며 "일반 범부는 죽는 순간 죽음의 의식이 바로 재생연결식으로 이어짐으로써 의식의 흐름은 지속돼 생사가 반복되는 윤회의 삶을 산다"고 말했다.

초기불교에는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이 제시돼 있다. 이를 소개한 정 교수는 "초기경전은 칠각지(七覺支), 염처수행 등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행법이 질병으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괴로움의 무게를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수행자가 지혜와 실천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볼 수 있을 때 출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윤회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불교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라는 수행 안에서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도 제시한다"며 죽음을 관찰하는 '사수념(死隨念)'과 죽은 몸을 관찰하는 '부정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성두 교수는 '죽음 앞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기'를 주제로 인도 · 티베트 불교의 생사관을 조명했다.

안 교수는 물질적 세계는 "끊임없는 식의 흐름 속에서 구성되고 수용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며 초기불교와 아비달마 논서를 중심으로 대승불교의 생사관을 논했다.

안성두 교수는 "초기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해 부정관과 사념(死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아비달마 논서의 경우 재생과정에서 결생의 순간까지 설명하며 식이 물질을 자신의 업(業)에 따라 구조화한다는 흥미로운 불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대승 보살사상이 생사와 열반 그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둘을 원만하게 조화시켜 '무주처열반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교수는 티베트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예비적 수행단계와 본격적 수행으로서 죽음에 대한 관상법을 현교와 밀교 두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죽음의 관상법(觀想法)으로 '무상요가탄트라'라는 핵심 수행법을 소개했다.

황금연 외래교수는 '생사가 일여하니, 죽음이란 낡은 옷 벗는 것일 뿐'을 주제로 선불교의 생사관을 살폈다.

황 교수는 "인생 8고 중 하나인 죽음이 나머지 7개의 고를 한꺼번에 모두 다 종식시킨다"고 언급하며 중국 선사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고찰했다.

황금연 외래교수는 "중국 선사들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즉 생사가 없으므로 삶을 좇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생사에 초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황 외래교수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사들이 행한 수행과 이를 통해

불교에서의 죽음은 두려움 아니다
삶 · 죽음이 둘 아님 알면 매사 담담
서양철학에서도 죽음에의 자세 중시
삶의 마무리 고민이 죽음 문제 해결

생사일여의 경지에 이른 선사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보여준 다양한 입적의 모습들을 선불교의 역사를 따라가며 소개했다.

황 외래교수에 따르면 선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입적 양상은 좌탈입망(坐脫立亡)과 육신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경우, 사체가 썩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황 외래교수는 "선가야말로 연기(緣起)의 이치에 가장 충실히 부합해 살다간 이들이 아닐까 한다. 선가의 삶과 죽음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만사에 담담한 살림살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국 교수는 '극한의 한계상황으로서의 죽음'을 주제로 현대 서양철학의 생사관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와 니체,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서양철학에서 죽음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간은 언젠가 죽어야 하는 '필연성과 유한성'의 존재면서도 '가능성과 무한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두 대립과 모순을 종합해야만 한다"며 "또한 죽음 자체나 사후에 관한 존재론적 논의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한계로서의 죽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박찬국 교수는 극단의 유한성에 매몰되는 속물적 태도나 결정론 내지 운명론적, 허무주의적, 이원론적 태도도 아닌 제3의 길, '진정한 종합'의 길을 통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 길만이 유한성과 무한성을 아우르는 중도의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희종 교수는 '현대의학은 죽음을 판결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의학 생사관에 대해 논의했다.

우 교수는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죽음을 '개체성의 상실'로 정의하며, 개체가 지닌 고유성의 종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우 교수는 "생명현상의 개체고유성은 구성적 실체가 없이 '관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며 "죽음과 더불어 개체는 사라져도 '나를 이루었고 또 나를 통해 펼쳐진 업은 또 다른 관계의 바다에서 이합집산, 생로병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과학이나 의학에서의 죽음의 정의에는 동의하지만, 현대과학 · 의학이 죽음에 대해 갖는 막강한 권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우 교수는 "각 생명체의 삶과 고유성이 죽음으로 사라질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의 문제이기에 결국 '죽음은 삶의 문제'이며, 따라서 죽음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1년 11월 중
◆ 개강일시 :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통찰하지 못하면 선 아닌 명상일 뿐

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서 현각 스님 퇴임 기념 기조발제 및 고불식

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대장경과 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선학회(회장 송묵)는 11월 19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대장경과 선'을 주제로 前 학회장 현각 스님의 퇴임 고불식을 겸한 2011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현각 스님(동국대 · 사진)이 기조발제 '선과 경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신규탁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 '중국 선종 역사 속에 드러난 화두의 생성, 상의, 참구에 관한 검토'를, 김호귀 동국대 BK연구교수가 '선록을 통한 본래성불 사상의 전승'을, 최동순 동국대 연구교수가 '역경사 월운 스님과 그 제자들의 구술에 나타난 선장의 번역과 의의' 등을 발표했다.

현각 스님은 기조발제에서 "언설로 마음을 이해하는 자는 언설을 초월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언설을 이해하는 자는 언설은 물론 마음까지도 초월한다"는 말로 선[마음]과 언설[경전]의 관계성을 설명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설법은 마음과 경전의 가장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원각경〉 〈수능엄경〉 등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비유가 등장한다. 이는 선은 체험의 실상이고 체험의 가르침이며 그 전승이기 때문에 선자(禪者)의 심경은 본래 상식을 떠나 있음을 가리킨 것을 설명한다.

현각 스님은 "경전과 선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과 언어는 같은 듯 다른 듯 하나인 듯 둘인 듯 하며, 상즉의 관계인 동시에 상입의 관계라는 설명이다.

스님은 "선의 종지인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언설을 통해서는 선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선은 언설을 통하지 않고는 접근할 수도 없다"며 "언설로 선에 접근하려면 체험과 자각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생명이 있는 언어는 그 자체가 선이고, 언어를 지닌 선은 살아있다"며 "통찰의 내용이 없는 것은 선이 아닌 명상, 정신집중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앉은 자리에서 지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앉아있는 상태만으로는 '오뚜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선종이 불립문자 교외별전을 표방하면서도 선종만큼 전적이 많은 종파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언설이 곧 사상이며, 사상의 표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선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 현각 스님은 "깨침이란 정 · 반 · 합이라는 논귀적 귀결이 아니라 각자가 실제 수행을 통한 체험적인 각성이다. 따라서 깨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한계는 깨침의 전 단계로서 깨침을 촉발시키게 하는 기연이고, 다른 하나는 깨침을 통해 드러난 각성의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깨침은 어느 특수한 자에게만 한정된 특권이 아닌 누구나 깨쳐야 하고, 깨칠 수 있다는 보통명사이다"라며 "언어를 바탕으로 한 선만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신규탁 교수는 주제발표 '중국 선종 역사 속에 드러난 화두의 생성, 상의, 참구에 관한 검토'를 통해 "당나라 시대의 선사들은 상대와의 이야기[화두]를 통해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깨고 '자기 자신의 본래면목'을 직접 체험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성스런 진리조차도 없으니 집착하지 말라'는 선사의 가르침[화두]을 갖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방법[別語]'도 개발하고, 상대가 대답을 못하면 '대신 대답해 주는[代語]' 방법도 만들어 냈다.

신 교수는 "북송대에 이르러서는 '선배들이 남긴 이야기' [화두]를 소재로 문학적 강의를 통해 수행자에게 본래 면목을 체험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송대의 선승들은 당나라 때부터 갈고 닦고 축적해 온 시문학의 솜씨를 발휘했고 선은 문학과 어우러지게 됐다[訟古文學].

이를 신규탁 교수는 "진솔한 체험보다는 남의 멋진 말이나 흉내 내게 되면서 체험은 뒷전이고 압운이나 따지고 율격이나 맞추는 꾼들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화두가 의심을 일으키는데 도리어 방해가 되자 등장한 것은 무(無)자 화두였다.

신 교수는 "이야기[화두]를 만들기→ 강의하기→의심하기로 변화하며 선승들이 목표로 했던 것은 견성이었다"라고 말했다.

김호귀 교수는 주제발표 '선록을 통한 본래성불 사상의 전승'에서 "본래성불 사상은 선경에서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이 보리달마를 통해 새롭게 전래되면서 초기선종의 조사들에게 확고하게 구축되고 전승된 것은 중국 선종의 조사선이 출현한 바탕이었다"라고 말했다.



본래성불 사상은 선맥을 따라 혜가의 선심(禪心), 승찬의 신심(信心), 도신의 수일불이(守一不移), 홍인의 수본진심(守本眞心) 등으로 전승됐다.

김 교수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시불(即心是佛)' '대기대용(大機大用)'을 통해 본래성불 사상은 선경과 선어록을 벗어나 일상 생활에 정면으로 등장했고, 중생교화의 모습으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김호귀 교수는 이를 "본래성불의 개념이 철저한 현실의 문제가 되며 수행과 깨침의 보편화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개신교의 '도마복음', '법왕경'과 닮았다

이자평 씨,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주장

종교간 화해와 상생이 강조되는 가운데, 기독교의 〈도마복음〉이 불교의 〈법왕경〉과 유사하다는 발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자평(동국대 박사과정 · 사진) 씨는 11월 19일 동국대 학명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2011 추계학술대회에서 '법왕경과 도마복음으로 본 불교와 기독교의 위경'을 주제발표 했다.

〈법왕경〉은 해탈도로 반야바라밀 수행을 강조하는 경전이다. '일심(一心)' 등을 통해 독특한 교학 체계를 이뤄 여래장사상의 중국적 변형이라 평가되며 위경으로 알려져 있다. 〈도마복음〉은 기독교의 비정통인 영지(靈知)를 강조한 복음서 가운데 하나이다. '도마'는 예수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람어로 '쌍둥이'를 뜻한다.

이자평 씨는 "'쌍둥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 구현하는 참 빛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법왕경〉의 불성(佛性)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도마복음〉은 깨달음(gnosis, 靈知)을 강조한다. 이는 반야에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자평 씨는 불교의 계와 정토는 개신교의 율법과 천국으로 대비하며 "〈법왕경〉과 〈도마복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통이라는 벽을 뛰어 넘어 종교에 다양성을 부여하고 종교 자체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글로만 전하던 오대산 신앙결사 확인돼

국립중원문화재硏, 강릉 굴산사지 조사 과정서 명문 기와 출토



강릉 굴산사지 전경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강릉 굴산사지의 사역과 오대산 신앙결사가 확인됐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범)는 11월 17일 강릉 구정면 굴산사지 발굴현장에서 굴산사지 제2차 시굴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회의와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2010년부터 진행된 시굴조사 결과 북쪽 경계로 보이는 석축시설과 동쪽 건물지 외곽 담장지, 서쪽의 학산, 남쪽의 회랑식 건물지의 끝단이 사역(寺域)의 범위로 추정 · 발표됐다. 면적으로는 3만1500㎡이다. 사역 내부에서는 정교하게 치석된 대형의 방형초석 건물지, 연지(蓮池)로 추정되는 집수시설, 담장지, 원형석군(圓形石群) 등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오대산 금강사'(五臺山 金剛社)가 새겨진 기와가 함께 출토됐다. '오대산 금강사'는 〈삼국유사〉 권 제3 탑상 제4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조에 따르면, 국가의 안녕을 위해 오대산의 동서남북 및 중앙에 위치한 5개소의 사찰에서 각각 결성되었다는 신앙결사(信仰結社) 가운데 하나이다.

그동안 오대산 '남대(南臺, 남쪽을 지칭)'의 '금강사'라는 신앙결사는 사료로만 전해졌을 뿐 정확한 위치와 장소(사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김성범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은 "이번 굴산사지에서 금강사 결사가 이루어진 것을 고고학적 유물로서는 최초로 확인함으로써 향후 불교사상사와 고고미술사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굴산사는 신라 하대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사굴산문(闍堀山門)의 본산이었던 굴산사는 강릉단오제(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주신인 범일국사(梵日國師)가 신라 문성왕 13년(851)에 창건한 영동지역 선종(禪宗)의 중심 사찰이다. 그 주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당간지주(보물 제86호, 높이 5.4m)와 승탑(보물 제85호) 및 석불좌상(문화재자료 제38호) 등의 관련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사부대중이 이해한 만큼 승가노후복지 규모·혜택 커져

한국불교선리硏, '승가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 개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 · 선학원 이사장)은 11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승가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12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선학원 전국분원장회의 입재식에 이어 개최된 학술회의에는 법진 스님의 기조연설 '승가노후복지의 현황과 과제'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연구원장 법진 스님은 기조연설에서 "불교계의 스님들은 독신 출가수행자라는 특성상 노년에 대한 염려와 위험이 타 종교 성직자에 비해 그 노출 수위가 높음에도 승려노후복지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스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 주거보장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단 차원의 보편화, 체계화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분원장스님들이 노후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는 주제발표 '한국노인복지정책의 구조와 개선방향'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갖는 현황과 특성, 문제점,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정책구도는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 아니라 '선 사회보장 후 가정보호'의 개념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윤승용 소장은 '종교별 성직자 노후복지 비교'를 통해 "불교계의 보편적 복지체계가 보다 확산되려면 종단적 차원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숙 동국대 前 겸임교수는 주제발표 '불교종단 교역자의 복지제도 및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조계종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천태종 · 진각종에 비해 선별주의적 경향이 강했다"고 지적했다. 종단 사찰이나 종무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을 우선적인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이 前 겸임교수는 "이번에 조계종이 제정한 승려복지법은 무소득자 · 무소임자를 우선해 재적 승려 전체를 포괄하려는 보편주의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용권 서호노인복지관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승가노후복지 운영의 사례검토'에서 "사방승물(四方僧物)을 통한 승가공동체 본연의 모습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장은 "승가의 상호부조는 일정한 공양물을 함께 나누는 발우공양의 사례에서 보듯 그 실천이 수행의 방편이기보단 수행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엠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高音質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일반형)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사주프로그램CD

명 리 보 감

命 理 寶 鑑



최고의 역학프로그램

사주명리, 작명, 궁합, 택일
주역 · 육효, 자미두수, 양택풍수
기문둔갑, 육임, 구성학, 현공풍수
가족명부, 출산택일, 토정비결

www.goodcycle.com

NAVER 통합검색 명리보감 검색 을 검색하세요.

명 리 보 감 역 학 연 구 소

☎ 031)493-3581

2012 여수 WFB 대회 성공 기원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조직위
명예대회장 자승 스님, 성공 다짐

한국에서 열리는 전 세계 불교인들의 만남인 제26차 WFB한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가 11월 23일 여수 디오션 리조트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오른쪽)은 제26차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회 조직위원회 명예대회장을 맡았으며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대회장, 호남 제6교구본사(송광사 화엄사 백양사 대흥사 금산사 선운사) 주지가 공동대표,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사진 왼쪽)이 상임공동 대표를 맡았다. 집행위원장에는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 사무총장에는 염정호 광주국제영화제 상임이사를 각각 위촉했다.

1990년 서울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한국대회 출범식에는 자승 스님, 원로의원 명선 스님, 영조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을 비롯한 500여명의 대중들이 참가했다.

출범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영조 스님의 고불문 경과보고 대회기 전달 위촉장 수여 자승 스님 치사 김의정 신도회장 인사말 펠롭 세계불교도대회 사무총장의 축사 성공기원 떡 케익 나눔식 순으로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치사에서 "2012 WFB한국대회는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해법을 찾는 진지한 논의가 될 것이며, 불교가 사회와 인류에게 생태환경사상을 실천하면서 공동운명체로서 동업중생이라는 동시적 존재성을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불교도우의회 판 와나케티 회장도 펠롭 세계불교도대회 사무총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환경문제와 지구촌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의 해양, 기후, 식량생산 등의 지속성을 위해 개최되는 엑스포와 세계불교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 6월 여수 엑스포기간에 함께 개최되는 제26차 WFB세계불교도대회와 제17차 WFBY세계불교도청년대회, 제9차 WBU세계불교대학회의는 전세계 1000여명의 불교지도자와 10만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6월 11~ 16일 '21세기의 불교생태환경사상과 수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오심 스님의 달빛 고운 절에서

왜 침묵이 필요한가?

어느 유명한 분이 내게 물었습니다. "입이 왜 필요한가?"라고 묻기에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머뭇거리던 나는 "먹는 일도 입이 해야 할 것이고 말[言]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분은 껄껄 웃으시며 "맞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슨 답을 원했느냐"고 되물었더니 그 분은 나지막이 웃으며, "입은 많은 일을 하고 그 속에 혀도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침묵(沈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입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고 공감되는 말씀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병을 얻게 됐는데, 오로지 암사자의 젖만이 왕의 병을 낫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구해오겠노라며 새끼사자 한 마리를 구해 갖고는 사자굴로 가 새끼사자를 암사자에게 줬습니다. 열흘 쯤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꽤나 친숙해졌고, 드디어 그 암사자의 젖을 조금 짜낼 수 있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꿈 속에서 자신의 신체 각 부위들이 서로 자기의 공로로 인해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먼저 발이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없었다면 사자굴까지 갈 수 있었겠니?"

눈이 주장했습니다.

"만일 눈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겠니?"

서로 자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노라며 떠들어대고 있을 때, 느닷없이 혀가 한 마디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 쓸모가 없었을 거야."

혀의 말을 듣고 다른 신체 부위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혀야말로 아무 공로도 세우지 못하면서 큰소리만 친다고 우습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사나이는 잠에서 깨어나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왕 앞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의 젖이옵니다."

혀가 엉뚱하게 말하는 바람에 사나이는 매를 흠씬 맞은 뒤에야 궁궐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혀를 비웃던 신체의 각 부위들은 혀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두뇌 · 심장 등은 물론 눈, 코, 팔다리 등등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치의 혀가 나타내는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간과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말 한 마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부처님 향한 마음으로 공양

대해노인복지센터 자비나눔 만발



해마다 연말이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광주에 있는 불교계 복지단체가 특별한 나눔 행사를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 아름다운세상 대해노인복지센터(대표 무진)는 11월 12일 광주 남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동구와 남구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초청해 '제3회 자비나눔 만발공양'을 가졌다. 또한 1년간 봉사활동을 펼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지역내 독거노인, 경로당 어르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듯 만발공양을 올렸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발전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조유연, 강수연, 이선화씨가 국회의원상을 수상했고, 윤기주, 박진효, 김성안 씨는 구청장상을 수상했다. 김경숙, 김호자, 윤금동 씨는 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스님상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감사패는 광제한의원 방기봉 원장, 이숙경 가정의학과 이숙경 원장에게 수여됐다. 지역 내 5명의 초등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전달됐다.

무진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가깝고 정다운 이웃처럼 자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르신 사회참여 우리가 계속 앞장을"

고창군 노인복지회관
복운일자리사업 해단식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법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이 올 한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자축하는 '2011년 복운일자리사업 해단식'을 복지관 강당에서 가졌다.

고창군 노인복지회관은 3월~11월에 걸쳐 진행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했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고창 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익형 · 복지형 · 교육형 · 인력파견형 사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보고와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 및 지난 활동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앞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방향 및 전망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관음성지 향일암 연내 복원 마무리

해돋이 · 해맞이 축제 정상 개최

2009년 12월 원인모를 화재로 대웅전 등이 모두 소실된 향일암이 12월 중 복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해돋이와 해맞이 축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2009년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 종각, 종무소 등의 복원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향일암 주지 원문 스님은 "12월말까지 소실된 전각 등을 복원해 예정대로 일출제와 철야기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번 복원불사는 관음성지를 다시 복원하는 의미와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1월 1일 예정된 일출제는 여수지역 중요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타종식, 108참회기도, 일출관람이 진행된다. 전남도 문화재자료 40호인 향일암 복원공사에는 국비 1억원 도비 5억6500만원 시비 3억8500만원 사찰부담 1억5000만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됐다. 또한 이번 공사에는 여수엑스포 관련 템플스테이 숙소로 사용될 요사채가 같이 마련된다.

양행선 광주전남 지사장

부산불교지도자포럼 5주년 창립제

부산불교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구성된 부산불교지도자포럼이 창립 5주년을 맞았다.

부산불교지도자포럼(회장 허인구)은 11월 22일 코모도호텔에서 1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허인구 회장은 "불교계 환경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12월 3일, 백련결사의 현대적 의의 조명

강진 백련사, 제1회 학술세미나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는 '원묘국사 요세와 백련결사운동'이라는 주제로 제1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를 12월 3일 강진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백련결사 학술세미나는 고려시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 개혁을 위한 불교운동이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동국대 김상현 교수의 사회로 최동순 동국대 교수가 '원묘국사 요세의 생애와 수행'을 주제로,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백련결사의 성립과 계승',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고려 중후기 천태종의 전개양상과 백련결사'에 대해 각각 발표에 나선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곡당 일타 대종사 12주기 추모 다례재

동곡당 일타 대종사 12주기 추모 다례재가 조계종 제 10교구 본사 은해사 조사전에서 11월17일 봉행됐다.

다례재는 조계종 원로의원 법흥 스님과 문도대표 혜인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인 스님은 "큰스님이 생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비와 모든 모습들을 본받고 살았으면 한다"면서 일타 스님을 추모했다.

일타 스님은 14세에 출가해 해인총림 율주와 조계종 전계대화상,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1999년 세수 71세, 법랍 58세로 열반했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분 한 신 고 안 내

◐ **신고기간 : 2011년 11월 21일부터 12월 25까지**

◐ **신고장소 :** (사)민족불교조계종총무원(문화관광부허가 2008-35호)
주소 : 전북 익산시 금마면 고도 9길 85(동고도리 474-1)

◐ **구비서류 :** 분한신고서 1부 (본종양식 총무원비치)
1.분한신고서 및 승려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앞뒤, 서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사암등록증사본, 주지임명장사본, 사진3장, 이력서, 각각 1부

◐ **신규 입종자 신고요령 :** 타 종단승려는 승려증사본 및 도첩, 주민등록 등 초본, 사진 5장

◐ **유의사항 :** 1. 본종 종도 중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종도는 탈종으로 간주함.
2. 신고기간후 본종 구총무원장발행 제증명서는 일체무효임.
3. 전항의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의 처벌을 받음.
4. 기타 상세한 문의는 총무원에 문의 바랍니다.
※ 분한 신고 후 임원 종정, 총무원, 각부 원 임원선출이 있으니 전종도는 한분도 빠짐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신규 입종자 특혜**
1. 사암등록증, 신분증, 도첩, 발행
2. 국세청고유번호발급신청(대행 해줌)
※ 년말정산소득 기부금영수증 자체발행 번호임.

2011 . 11. 25.

(사법)민족불교 조계종 총무원

구종비상대책회장 법헌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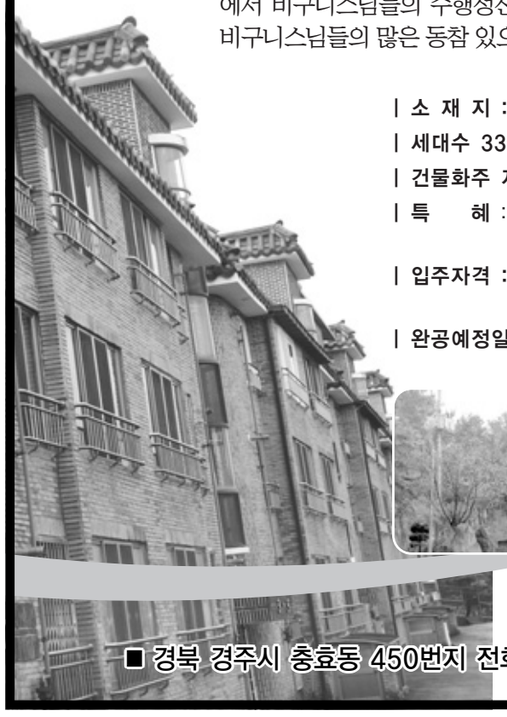
총무원 접수처 전화 063)834-3044, 017-328-3009

경주 금선사 여래선원 달마동 특별 분양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니다.

경주 조계종 금선사는 비구니스님의 수행정진 공간으로 금선선원(30세대), 여래선원 문수동(24세대), 보현동(22세대)을 완공 입주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회향하는 마음으로 2012년 3월 완공예정을 앞두고 달마동 (33세대)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주 도심산중으로 전국 교통망이 편리하고 주변엔 홍송이 둘러싸여 있어 산세가 수려한 경관에서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정진 공간으로는 최적지로 여겨지고 있어, 이곳에서 평생 함께하실 비구니스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4(임야번지 산 193-1)
| 세대수 33세대 : 평형(10,12,13,21,23평)
| 건물화주 지불방법(평형에 따라 다름) : 총액,계약금,중도금,잔금 원
| 특 혜 : 계약금과 동시에 11월 30일까지 완불자에게는 잠자는방 1개를 편백나무(소나무)와 함께 할 수있는 공간을 선물하겠습니다.
| 입주자격 : 조계종 비구니스님으로써 승가에 결격사유가 없이 심신이 건강한 승려, (승려증 복사, 주민등록등본 1통)는 제출 바랍니다.
| 완공예정일 : 2012년 3월

대한불교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주 지 **휴정** 합장

■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전화 : 054)772-7171 ■ 휴대폰 : 010-3538-3879

절 계단 하나하나에도 불교적 상징이 가득 담겨

계단(1) 좋은 사례

계단은 레벨이 다른 두 공간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다. 계단의 유형은 건물의 기단에 부속되는 것과 건물과는 상관없이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사찰의 경우에는 경사지를 평지로 조성해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옥외공간에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다른 건축공간에 비해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옥외공간에 계단을 만들 때 계단은 석단과 동시에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석단의 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와 축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물기단에 부속된 계단

건물의 기단에 부속된 계단은 기단 형식에 따라 그 형태와 재료 조성방식이 달라진다. 토축기단이나 자연석 기단에 붙이는 계단은 자연석으로 만들고, 장대석 기단과 가구식 기단에 붙이는 계단은 장대석으로 만들게 된다.

사찰의 건물기단에 부속된 계단은 대체적으로 장대석 계단이 많다. 장대석 계단을 만들 때에는 디딤돌을 아랫단부터 차례차례 올려놓는데, 윗단은 아랫단 뒷뿌리에 살짝 걸치도록 놓는다. 장대석 계단은 디딤돌양 마구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와 소맷돌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소맷돌은 통돌로 만들기도 하고 가구식으로 만들기도 한다. 가구식일 경우에는 밑에 지대석을 받친 다음 기둥을 세우고 계단의 경사에 따라 와장대(臥長臺)를 놓고 나서 그 사이에 면석을 끼운다. 계단의 높이가 높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와장대 위에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은 보통 하엽형의 동자를 세우고 그 위에 원형이나 팔각으로 다듬은 난간대를 올려서 마무리한다. 난간의 끝에는 법수석 또는 문로주를 세워서 난간대를 고정하게 되며, 법수석에는 상징적인 동물을 올려놓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찰의 건물기단에 부속된 계단은 소맷돌이 특별한 미적 요소로 취급되어 사찰마다 독특한 디자인을 보인다. 소맷돌 자체를 사자나 용의 형태로 조각해 상징성을 극대화하기도 하고 면석에 연꽃이나 구름문양을 새겨 넣어 불교적 상징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사찰에서도 주불전 기단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른 건물 기단에 설치하는 계단보다 높이도 높고 폭도 넓으며, 장식성도 뛰어나다. 이것은 건물의 계층적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계단으로는 불국사 대웅전 계단, 통도사 대웅전 계단, 송광사 관음전과 일주문 계단, 선암사 일주문 계단, 법주사 대웅전 계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계단은 소맷돌 디자인이 아름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며, 불교적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불국사 · 통도사 · 송광사 계단
아름답고 재밌어 많은 사랑 받아

불국사 대웅전 계단의 소맷돌은 와장대와 면석 그리고 지대석이 통돌로 만들어진 것으로 면석의 테두리에 띠를 넣으면서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기교를 부려 동세를 부여했다. 동시에 띠부분을 약간 높게 조각해 입체감을 살리고 있다. 통도사 대웅전 계단은 활짝 핀 연꽃문양을 새겨 넣었고, 법주사 대웅보전 계단 역시 꽃문양을 넣어 상징성을 부여했다. 송광사 관음전 · 일주문 계단과 선암사 일주문 계단은 소맷돌 자체를 서수모양으로 조각해 특이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한편, 법주사 대웅보전 계단은 소맷돌 윗부분에 원숭이 상을 조각해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져 부가된 것으로 보인다.

옥외공간의 연결을 위해 설치된 계단

옥외공간에 설치된 계단은 건물의 기단에 부속된 계단보다 높이가 높고 폭이 넓고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단의 재료는 자연석, 장대석 등 다양한데, 석단과의 조화를 위해서 계단과 석단의 재료를 동일하게 사용하게 된다. 계단을 놓는 방법은 석단을 파고 들어가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와 석단 전면부에 계단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석단 측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계단의 노출정도가 심하게 나타나 중요한 경관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다.

옥외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소맷돌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석단 전면부에 붙여서 설치한 계단의 경우에는 계단 측면에서 뒷채움방식과 디딤돌을 쌓아올린 형태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한편, 옥외계단의 경우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난간의 형태나 설치방법이 계단의 디자인을 달리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한국의 전통사찰에는 높이가 다른 두 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많은 계단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불국사의 청운 · 백운교와 연화 · 칠보교는 특별하게 디자인된 계단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운 · 백운교와 연화 · 칠보교의 경우는 계단에 '교'라는 이름을 붙여 다리의 개념을 부여했다. 이것은 속의 공간으로부터 성(聖)의 공간인 화엄세계와 극락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청운교와 백운교 사이, 연화교와 칠보교 사이에는 홍예를 두어 다리의 이미지를 디자인적으로 해결한 것을 보면 신라시대의 장인들이 가졌던 디자인과 시공수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다보탑에도 석단에 조성한 계단과 같이 법수석을 두어 반복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화교 디딤돌에 연꽃잎을 새겨놓은 것도 흥미롭다.

화엄사의 경우에는 길게 다듬은 장대석을 사용해 계단을 축조했는데, 지대석을 몇단 놓은 후 와장대를 설치하고 면석을 쌓아올렸다. 면석에 사용한 돌은 석단에 사용한 돌처럼 장대석을 크게 다듬은 것으로 석단과의 조화가 일품이며, 웅장한 이미지를 준다. 화엄사와 같이 높이가 높은 계단의 양측 마구리를 면석으로 마무리한 예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계단은 디자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봉선사와 같이 조선시대 왕실에서 조영한 사찰의 경우에는 석단과 마찬가지로 계단 역시 장대석을 잘 다듬어 디딤돌을 만들고 마구리에 소맷돌을 설치하여 완결된 형식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 산지사찰에 조성된 계단은 수덕사 대웅전 전면 석단에 붙여 만든 계단과 같이 양측 마구리를 면석으로 마감하지 않고 장대석을 층층이 쌓아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자연석으로 계단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석을 다듬어 축조하기도 했지만 돌을 생긴 모양 그대로 쌓아올려 계단을 만들기도 하였다.

산간벽지에서 사세가 넉넉지 못한 경우에는 석단 하나, 계단 하나를 만드는데도 힘이 벅찼을 것이니 이러한 때에는 봉영사나 백련사 계단처럼 주변의 돌을 모아 다듬지 않고 정성스럽게 쌓아올려 계단을 만들었던 것이다.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자연석 계단이 오히려 산지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경관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계단에서 한국성을 발견하기도 한다.


불국사 연화 · 칠보교


불국사 청운 · 백운교


봉선사 석단에 연결된 계단


법주사 대웅보전 계단


불국사 대웅전 계단


선암사 일주문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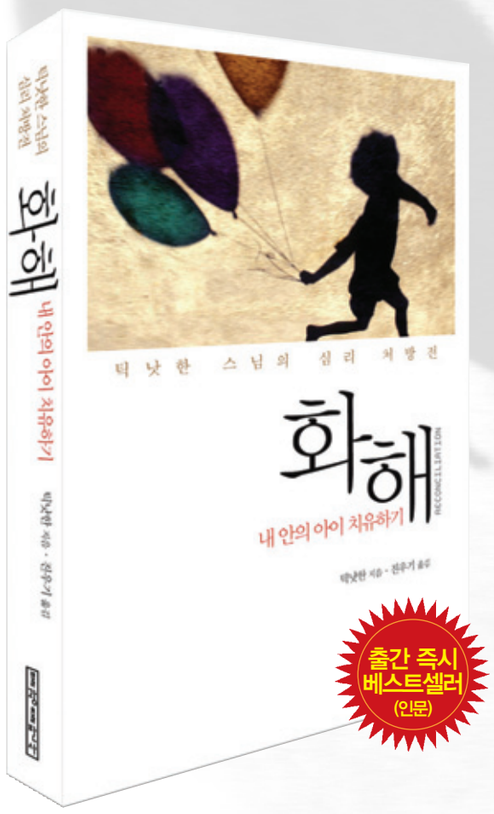

송광사 관음전 계단


내소사 자연석 계단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화〉 이후 9년, 틱낫한 마음 치유 이야기의 결정판!



틱낫한 스님의 심리 처방전
화해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너무 오랫동안 나를 내버려둔 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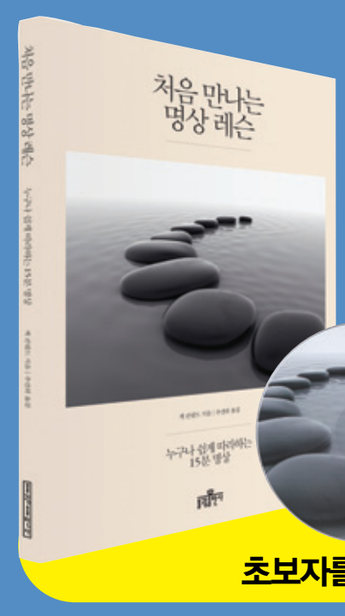
내면 아이를 찾아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길잡이
꼭꼭 숨겨 두었던 마음속 짐을 잠시 내려놓고
천천히 머물다 쉬어 갈 수 있는 책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인문)

틱낫한 지음 | 진우기 옮김 | 240면 | 13,000원

불광출판사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 www.facebook.com / bulkwang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15분 명상
처음 만나는 명상 레슨



명상!
하고 싶지만
왠지 어려운가요?

잭 콘필드 지음 | 추선희 옮김
156면 | 12,000원
부록 : 명상유도 CD

초보자를 위한 본격 명상 입문서

스티브 잡스의 통찰력과 창의력
마이클 조던의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
기획력과 업무력 향상
평온한 마음과 면역력 증강
– 당신도 얻을 수 있다

거사들이 모여만든 결사 도량 삼성암


삼성암에 전해오는 관음신앙은 조선 계급 사회에서 평민이나 하층민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불교 근본의 역할의 발로였다.

조선후기 거사불교와 삼성암(三聖庵)

불교를 배우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출가와 재가의 차이였다. 수행자의 길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상대적으로 재가불자라 해도 끊임없이 정진한다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붓다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자의 차이는 누가 더 전념할 수 있는 여건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이 대승불교가 일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의 고정화된 이념의 반전이다. 이렇게 시작한 대승불교는 출가와 재가 모두 붓다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 신선한 모습이 이웃 나라에 전해져 크게 확장됐다. 이런 대승불교는 출가와 재가가 모두 융성할 때 불교의 영향력이 컸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불교를 탄압하고 교단이 쇠락해지면 어떻게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자생력을 갖는다. 지도자가 없어도 그들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기도하며 신앙한다. 중국의 경우 청나라 이후 교단이 미흡해지면서 나타난 것이 거사불교이다. 이것은 수행자의 지도 없이 남자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 활동이다. 중국이나 한국에 불교가 전래되고 번성할 때도 남자 신도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거사불교라 하지 않는다. 불교가 탄압받거나 교단이 쇠락해져 신앙 지도가 어려워질 때 생겨난 신앙 활동을 거사불교라 한다.

한국에서 거사불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조선후기이다. 이때에 이르게 되면 교단 차원의 불교활동은 미약했다. 그 이유는 불교가 사회적인 위치를 상실하고 산중시대(山中時代)라는 한계적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876년 개항을 전후한 시기 불교는 종단의 합법성을 박탈당해 종명마저 없어진 채로 산중에 은거하면서 선교를 겸수하면서 지냈던 무종산승시대(無宗山僧時代)였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 속에서 종단을 중심으로 신앙 활동을 전개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사들의 개별적 신앙 활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 거사불교의 모습을 전하는 것은 여럿이


삼성암이 자리한 삼각산 일대

다. 그 가운데 특별한 것은 거사들 스스로 결사를 맺고 진행한 것이다. 그것이 고종 9년(1872)에 한성에 사는 거사들이 관세음보살의 신묘력을 감응하고자 결성한 묘련사(妙蓮社)이다.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결사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결사 대부분의 맹주는 당대 이름 있는 고승들이었다. 그런데 묘련사 결사는 사상적인 배경으로 채택한 관음신앙으로 특이하지만 결사의 주체와 맹주가 거사인 것도 특별하다.

묘련사가 시작된 것은 고종 9년(1872) 11월이었다. 그 후 고종 12년(1875) 여름까지 4년에 걸쳐 삼각산 주변의 암자와 거사의 집 등 일곱 곳을 옮겨 다니며 모두 11번의 법연을 가졌다. 일곱 곳 가운데 지금까지 사격이 전해지고 있는 곳이 지금의 삼성암이다. 이곳은 1872년 봄 창건됐고, 창건주 역시 거사였으니 결사의 모임 장소로는 적격이었을 것이다.

이런 목적으로 모인 묘련사 거사들은 법연 때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전념하고 상서로운 감응을 기대했다. 마침내 그들의 서원대로 관세음보살의 감응이 시현했고, 법주인 보월거사가 이를 설했다. 뒤에 이것을 정리한 것이 '관세음보살묘응시현제중감로(觀世音菩薩妙應示現濟衆甘露)'이다. 보통 '제중감로'라 불리는 이 책은 고해자우품(苦海慈雨品)에서 전불가설품(轉不可說品)에 이르기까지 10품 4권인데 1·2권은 보광·인담 거사가, 3·4권은 해월·현허 거사가 기록했다.

한성 묘련사, 결사 사찰로 유일하게 남아
산중불교에서 거사불교로 변모했던 곳으로
도가적 특색도 반영했던 관음신앙 중심 사찰
절망의 극한 상황서 불교계 방향 제시해 줘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음신앙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것은 법문이 설해지는 법주와 대중과의 관계 등에서 신비적 요소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관음신앙을 현세적 신앙이라고 한다. 제중감로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경향보다는 내세의 미타정토를 희구하는 신앙관과 선정(禪淨) 결합의 경향, 도가적인 성향도 포함돼 있는 것이 특색이다.

제중감로의 도가적 특색은 발간의 서문에서 크게 드러난다. 결사가 끝난 뒤 3년이 지난 1877년 유통하려고 내용을 교각(校刻)했다. 이때 부우제군(孚佑帝君) 여순양(呂純陽)이 무상단에 하강해 서문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서문을 쓴 여순양은 당말의 인물로 처음에는 연명술 등 선도를 배웠다. 그 뒤 호북성 황룡산에서 황룡회기(黃龍誨機)를 만나 법요를 묻고 답하면서 그의 제자가 된 여동빈(呂洞賓)을 말한다. 그런데 황룡회기가 황룡산에서 교화하던 때는 당나라 천우(天祐; 904~907) 연간이다. 이대로라면 여순양은 거의 1000년이 넘는 시대를 초월해 하강한 다음 서문을 지은 것이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설화적 내용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앙적 경이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며, 그것은 묘련사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모두 고종 15년(1878) 인가 거사가 쓴 제중감로의 연기문에 전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조선후기의 거사불교운동이 시대적 여건에 의해 일반적인 관음신앙을 표방하기보다는 신비적인 도가적 취향과 내세적인 신앙관 그리고 선정 결합과 같은 혼합적 성향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다소 신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묘련사와 같은 결사를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이다. 먼저 이런 거사불교를 통해 조선후기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불교가 지향해야 할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묘련사가 결성된 1872년은 조선후기에 해당된다. 이 시대의 사회상은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절망의 극한상황이다. 정치의 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도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백성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웠다. 이 같은 세계는 고통의 세계이다. 실제로 그와 유사한 모습이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다. 이러한 때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고 일심으로 칭명한다면 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관하시어 모두를 해탈케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관세음보살이 서원에 의해 생해 서원에 의해 살고 항상 서원을 실천해 가는 보살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고난의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본원으로 하고 중생의 고뇌를 없애 안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음신앙의 특징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담고 있는 묘련사 결사는 개항을 전후한 시기 종단의 활동이 미비한 상황에서 불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관을 유지하고 아울러 중생들의 구제를 도모해 불교를 지속시킨 힘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 지니고 있던 거사들의 신앙관이 표현된 점에서 당시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묘련사 결사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종단 주도의 신앙형태가 아니고 사찰단위의 순수한 신앙운동에 속한다. 신앙결사가 국가의 의해 주도되면 결사의 본래 의미가 상실되고 국가를 위한 하나의 조직체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인 서원의 완성이 아닌 왕실을 위한 기복연명과 제재초복(除災招福)에 많은 비중을 두는 기복단체(祈福團體)의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묘련사의 경우는 그 소속인원의 부류나 신앙적 경향에서 국가적인 차원이 되지 못한다. 민간적인 차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시 대중불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불교가 발전하려면 교단이 국가적인 정책과 일치돼 사회를 주도해 가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을 때 묵묵히 자신들의 신앙을 돈독히 하는 대중적 신앙은 그 부족함을 메우는 방편이 되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묘련사 결사가 현실의 고통을 없애고 보다 나은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내세적 구원사상을 배경으로 한 것은 바로 그 시대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함께 그 시대의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조선사회와 같이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평민이나 하층계급이 구제된다는 사상은 그들로 해금 내세는 물론 현세에서도 마치 계급이 소멸된 듯 한 법열 속에 지낼 수 있는 기쁨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일반대중들이 신앙에 의지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불교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010-8678-3725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 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창사 18주년 기념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미얀마
(대한항공 직항) 1월 15일 출발, 1월 19일 출발.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99만원 추가경비 없음
◇ 미얀마 성지순례 출발확정 : 1월 26일, 2월 7일, 2월 24일
◇ 미얀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1,840,000원
특급호텔 : 양곤–세도나, 바간–뜨레져, 만달레이–세도나, 헤호–뜨레져
전일정 : 특급호텔 및 아름다운 리조트, 가이드+기사팁 포함, 마차투어, 유류세(260,000원)불포함
미얀마 성지순례 3월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1,650,000원 (유류세 별도)
◇ 골프투어 5일 (요금문의)

인 도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9일 2,540,000원
◇ 완벽 8대성지 아그라 타지마할 10일 2,590,000원
전일정 : 5성급호텔, 일급호텔, 한식요리사, 고급버스, 가이드+기사팁 포함 등등, 추가경비 없음.

스리랑카 특급일정
전통불교성지순례 6일 담블라 | 시기리야 | 아누라다푸라 | 캔디 | 풀룬나루와 | 콜롬보

■ 『떳다!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왓" 1,049,000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 02)365-7747

“장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단점부터 없애라”

동국대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서 시골의사 박경철 강의

11월 22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 프라이드 동국 지성콘서트에는 박경철 시골의사가 ‘청춘의 삶과 도전’이란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날 강연장에는 박 씨의 강의를 듣기 위해 500여 명 이상의 학생들로 행사장이 북새통을 이뤘다. 박경철 씨는 강연에서 청춘이라는 가장 뜨거운 시기를 어떻게 학생들이 가치있게 보내야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정리=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청춘, 뜨거운 이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청춘을 뜨겁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로 전학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공무원 이었고, 저는 아주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촌에서 대구로 전학을 가니 처음에는 위축되고 긴장을 많이 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당시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불러다 “전에 활발했던 거 같은데 왜 지금 학교에서는 기가 죽어있느냐”며, ‘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 중에 〈그리스 로마신화〉라는 책을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지금까지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서는 상상하고 싶은 것, 꿈꾸고 싶은 것과 만나게 해줍니다. 특별한 재주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제가 지금처럼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독서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들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을 공부하고 외웁니다. 하지만 많은 지식들은 하드웨어에 기록된 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드웨어에 쌓인 지식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지식을 삶에 반영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리 가르치거나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하면 되지만, 지혜는 내부와 연결돼 내 삶 속에서 치열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을 쌓는 것에만 집중해 왔지, 지혜를 쌓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와 소통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어디서 무얼 하고 놀까’ 하고 편하게 생각합니다. 눈빛만 봐도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친구는 내 인생에서 위로자 일수는 있지만 동반자 일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는 친구가 눈빛만 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아닌, 긴장이 되거나 비극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생각의 찌꺼기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노력의 과정 속에서 나의 지혜로움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길, 또는 정해진 동네에 가면 우리는 아무런 영감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낯선 곳에서는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모아진 생각의 찌꺼기들이 축적되면 지혜가 됩니다.

익숙하지 않는 것과의 조우, 낯선 것에 호의를 가지면 그것이 곧 내 것이 됩니다. 내가 편안한 것, 익숙한 것에 호의를 가지면 결코 내 것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혜를 만들고자 전 세계의 낯선 곳을 일부러 여행을 다니거나, 나와 적개심을 가진 이들과 매일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텍스트를 통해 지혜를 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의 감정에서 텍스트를 접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너머에 있는 텍스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한권의 책을 읽더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책이 주는 메시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낯선 것과 조우해야
지식이 아닌, 자혜 쌓기에 집중해야
텍스트 너머의 세계관을 발견해라
나는 반짝이는 구슬임을 명심해야

또 텍스트는 나의 세계관과 나의 경험정도에 따라서도 자신에게 달리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기억하고 있는 소설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 작가인 이 사람은 자신의 책에서 “인생은 감옥 속에 살아가는 것은 무기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생의 감옥이라는 말은 내가 닫힌 세계에 갇혀 살면 감옥 속에 사는 것과 같다는 엄청난 통찰력을 내포합니다. 이처럼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혜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서를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공자는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생각만 있고 배우지 않아도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는 가장 명료한 교육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춘의 시기에 도전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를 보이고, 낯선 것과 조우해야 합니다.

세상과 공감하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공감이라는 화두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는 공감이라는 관념적이고 식상한 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40대 초반의 위암환자가 왔습니다. 당시 그 분은 암이 장기에 전부 전이돼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환자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실에서 엄마를 돌보던 아이들과 컵라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저도 어린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당시 제 경험을 아이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무섭거나 앞날이 걱정되고 슬프기보다는 임종을 앞두고 말도 못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무척 친하게 지냈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동안 저는 아버지 옆을 지키며 저도 이제 클 만큼 컸으니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시라고 계속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비춰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둘만 남게 되는데, 네 입장에 보면 이 일은 무척 견디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네 입장 말고 엄마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주저앉으면 엄마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봐라”로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입니다. 저희 병원에 신부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신부님에게 흔히 말하는 후광이 비쳤습니다. 그 학생이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고유의 빛깔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빛깔은 마치 반죽과 같아서 좋은 태도 · 습관 · 생각 · 언행들이 한데 엉켜 그 사람의 빛깔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빛깔이 좋고, 나쁜 습관을 많이 한 사람은 나쁜 빛깔이 나옵니다. 이것이 타인에게는 그 사람의 첫인상으로 기억됩니다.

첫인상은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고 처음 보는 빛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슬과 같습니다. 좋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의주 같은 구슬인데, 나쁜 습관들과 태도가 먼지처럼 묻어 그 빛을 잃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라고 하면 단점은 잘 적지만 장점은 잘 적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장점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새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점을 줄이면 온전히 장점만 남게 됩니다. 장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더러워진 구슬을 임시방편으로 가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점을 만들기보다 단점을 버리는 일이 훨씬 인생에서 효율적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단점을 개선하지 않고 장점만 증진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단점을 줄이면 내가 가진 고운 빛깔이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신부님은 단점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신부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컵라면을 먹으면서 제가 해줬던 이야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철없는 의사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밥을 먹으면서 잠깐 해줬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지침이 됐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무심코 했던 나쁜 말에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고통과 지옥을 사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그의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하고 말입니다. 과거에는 병원에서 매일 밤을 새며 근무하던 때가 제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달리 생각합니다. 48세의 아저씨가 소녀시대보다 더 환대받으며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지금이 제 인생에 가장 축복받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습니다. 책도 쓰고 100회가 넘는 강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한 시기가 언제냐고 누가 또 묻는다면, ‘지금’이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미래에는 두근거리는 떨림과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반짝이는 구슬이고, 줄기세포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반가움으로 두 팔 벌려 안아야 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 친구들의 마음도 함께 이해해가며 산다면,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경영

무릎찜질,허리찜질,족욕,좌욕,반신욕,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핫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 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되기때문에몸속 (체온)상승되며 신체의상태가좋아진다.
체온이 1도 상승되면 각자체질에 따라 면역력이8~10강해지는 휘나핫 온열경영은 3~4년 전하루 200~250명 무료 체험을통하여 많은체험사례가 있으나 표현할 수 없습니다.
휘나핫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획득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체및 그 제조방법)특수제작한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와는 비교가 않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특별할인된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것입니다. (2020년까지)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중소기업청 청업진흥원 '청의적 기업가상'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당뇨,신장질환,동맥경화,고혈압,심장병,부인병,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초 주산지를 찾아 헤매던 사람이 지하 250 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숱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회초리 든 옹골찬 위인이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도

싸리나무 이야기 (1)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등의 단어가 낯설지 않다. 세상이 변하고 가치관도 변했다. 중년층에겐 유년시절 체벌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이가 많다. 그 시절의 체벌은 가히 폭행이었다. '사랑의 매'라는 고상한 말은 사전 속에서 잠자는 귀중품이었다. 학교마다 '미친 개' '멧돼지' '악어' '독사'가 즐비한 동물농장이었다. 집에는 술 취한 아비들이 살림살이와 어미와 자식을 한풀이의 대상으로 여기며 폭력을 휘둘렀다. 학교와 가정에서 벌어진 체벌과 폭행은 아스라한 역사이기도 하고 드물게는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싸리나무는 과거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나무였다. 싸리나무는 생활용품으로 변신해서 가까이 있었다. 한 폭의 민속화를 장식하는 초가집과 사립문은 찡하게 정겹다. 사립문은 싸리로 엮어 만든 문이다. 나지막하게, 경계하지 않게 만든 대문이다. 거부가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된다. 무엇이든 담아 두고 말리는 소쿠리와 채반의 재료도 싸리다. 농사지을 때 필요한 삼태기, 술을 거를 때 쓰는 용수, 아이들이 오줌 싸면 소금을 얻으러 깔 때 쓰는 키(본래 용도는 곡식과 돌을 고를 때 쓴다), 병아리가 매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지은 병아리 둥우리, 고기 잡는 발의 재료도 싸리다. 무엇보다 용도가 많았던 싸리 빗자루. 전방에서 군대생활을 한 사람들은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의 싸리 빗자루를 엮었을 게다. 싸리는 거창한 목수가 필요로 하는 나무가 아니라 아무나 엮어 생활용구로 쓸 수 있는 가늘고 탄력 있는 나뭇가지다.

가혹하지 않으면서 탄력이 필요한 게 회초리다. 싸리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아가며 자란 아이들은 안다. 회초리의 위엄과 효과를.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과 부모는 회초리를 만들어오라고 한다. 아이들은 사립문을 나서서 자신이 지은 잘못과 맞을 회초리의 굵기를 재어가며 싸리 가지를 꺾는다. 물론 되도록 가늘고 짧은 걸로 꺾어온다. 그러나 훈육의 효과는 이미 거기서 성공했고, 끝났다.

숙종 때 암행어사로 많은 일화를 남긴 어사 박문수(1691~1756)도 싸리 회초리와 인연이 깊다. 어사의 임무를 띠고 길이 있고 동네가 있는 곳은 모두 찾아다니며 민생을 살폈다. 암행어사는 요즘으로 치면 감사원 감사위원 혹은 청와대 사정담당관 쯤 될 것이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들어섰는데 아무리 걸어도 첩첩 산중이 앞을 가로막고 인가가 나오지 않았다. 조바심이 난 박 어사는 걸음을 재촉하였으나 갈수록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드디어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두워지며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선가 짐승 우는 소리마저 들려왔다. 이러다가는 짐승 밥이 되어 귀신도 모르게 죽는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났다. 그때였다. 저 멀리 산모퉁이에 불빛이 보였다. 박 어사는 무척 기뻤다. 불빛이 있는 곳엔 인가가 있을 것이다. 불이 반짝이는 곳을 향해서 헐떡거리며 뛰어갔다.

당도해 보니 과연 조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박 어사는 사립문을 밀고 들어가 기척을 내며 방안을 향해, 산중에서 길 잃은 나그네인데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방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이 집에는 남편이 출타중이어서 자기 혼자 있기 때문에 외간 남자를 재워줄 수 없으니 딴 곳으로 가보라는 것이다.

어사는, 이 외진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같으니 제발 아무데서라도 재워 달라고 사정했다. 한참 망설이던 여인은, 그러면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리고 부엌에 가서 저녁밥을 차려왔다. 시장했던 참이라 어사는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상을 물리자 여인은, 자기 집에는 방이 한 칸뿐이어서 도저히 재워 줄 수 없지만 사정이 딱해서 재워 주는 것이니 어사는 윗목에서 자고 자신은 아랫목에서 자겠다고 했다. 선비의 도리를 명심하고 절대로 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싸리나무는 과거 우리 생활과 밀접
초가집 밖 사립문은 싸리나무로 엮어
탄력 있어 회초리 용도로도 제격
어사 박문수도 여인에게 회초리 맞아

그렇게 말하는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에 비할까,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아리땁고 예쁜 여자가 없을 정도로 곱고 어여쁜 미인이었다. 말을 마치자 여인은 치마로 방 한가운데를 휘장처럼 걸어 경계를 삼고 밤이 늦었으니 주무시라고 했다.

박 어사는 너무나 예쁜 여인의 자태에 반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집을 떠난 지도 벌써 수십 개월이 넘었다.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한 지도 오래됐다. 이렇게 젊고 어여쁜 여인과 아무도 없는 외진 산골에서 단둘이 한방에서 자게 되니 어사의 마음 속에서 욕정이 끓어올랐다. 그래서 잠결에 돌아눕는 척하면서 다리를 여인의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랬더니 여인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살짝 내려놓았다. 한참 후에 잠꼬대를 하는 척하며 다시 다리를 얹었다.

그랬더니 여인은 '먼 길을 오느라 무척 고단한 모양인지 잠버릇이 나쁘군' 하면서 다시 어사의 다리를 가만히 내려놓았다. 자는 척하고 수작을 부리던 어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음음…" 하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면서 팔을 펴서 여인을 껴안았다. 그러자 여인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엄한 어조로 호령했다.

"여보시요 선비님! 일어나 앉으시오. 사정이 딱해서 재워 주면 얌전하게 자고 갈 것이지, 선비의 체통과 삼강오륜을 져버리고 유부녀를 농락하려들다니!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니 냉큼 밖에 나가 싸리 회초리를 해오시오!"

정신이 번쩍 든 어사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여인의 위엄이 너무 도도해서 시키는 대로 밖에 나가 울타리의 싸리나무 가지를 뽑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여인은 어사에게 종아리를 걷으라고 명했다. 어사는 그 위엄에 눌려 종아리를 걷고 여인 앞에 섰다. 여인은 어사의 종아리를 세차게 쳤다. 어사의 종아리에서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다. 한참 만에 매를 거둔 여인은 농문을 열고 명주를 한 필 꺼내서 그것을 찢어 피가 흐르는 어사의 다리를 감아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피는 부모에게 받은 귀한 것이니 한 방울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됩니다. 피 묻은 이 명주는 버리지 말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앞으로도 또 이와 같은 사악한 사념에 사로잡힐 때 자기를 바로 잡는 신표로 삼으시오."

다음날 새벽, 박 어사는 여인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도망치다시피 그 집을 빠져 나왔다. 때론, 이름깨나 알려진 어른에게도 회초리가 필요하다.



회초리를 들 옹골찬 위인도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도.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한정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올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대불교
현 불 샵 02)2004-8215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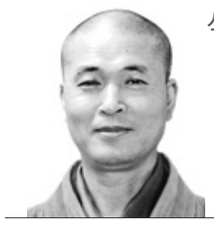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수행자라면 정치에 관여 말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의 행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손을 펼치지 발을 펼치지 않아."

問 如何是沙門行 師云 展手不展脚

여기서 발은 대인관계, 정치적인 일, 큰 일 등을 말하고, 손은 걸식하는 것, 사람을 교화하는 일, 밭에서 일하는 것, 손으로 물건을 다듬는 장인의 일 등을 상징한 것으로 보인다.

수행자라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각종 권모술수와 이합집산이 난무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곳이 어찌 수행자가 있을 곳이겠는가. 발을 넓히는 것은 수행자의 갈 길이 아니다. 큰 코끼리는 왕사나 국사의 자리를 권해도 기어이 나아가지 않는다. 작은 여우는 먹을 것에 도대체 눈을 떼지 않는 법이다.

참다운 수행자라면 늘 자기를 살피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아울러 장인과 같은 오묘한 지혜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이것을 조주 선사는 손을 펼치지 발을 펼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우두법융(牛頭法融)이 4조 도신(道信)을 상견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땔나무도 물도 충분했어."
학승이 말했다.
"상견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땔나무도 물도 충분했어."

問 牛頭未見四祖時如何 師云 飽柴飽水 云見後如何 飽柴飽水

우두법융 스님이 출가하여 49세가 되자, 건강 우둔산 유서사(幽棲寺) 북쪽 바위 아래에 선실(禪室)을 짓고 살았다. 이때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보고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을 올렸다.

하루는 4조 도신(道信) 스님이 와서 법 일러줌을 받고 심요(心要)를 깨달았으며, 이로부터 사방에 도속(道俗)들이 몰려와 교화를 받게 되니, 문인이 100인이 넘었다. 그런데 도신 스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난 후부터는 이상하게 새들이 꽃을 물고 오지 않았다.

도신을 만나지 않을 때는 열심히 수행할 때이다. 이것을 본 제석천왕과 하늘의 선녀들은 앞을 다투어 공양하고 꽃을 뿌렸으므로 당연히 땔나무와 물이 충분했었다. 그러나 도를 이룬 후에 새들이 꽃을 물고 오지 않았다는 것은 재화(財貨)가 끊어졌다는 말이다. 도를 이룬 후 오히려 가난해진 것이다. 왜인가?

조주 선사는 이 물음에 대하여, 깨닫기 전이나 후나 땔나무도 물도 충분했다고 대답했다. 만일 내게 이 조주의 뜻을 묻는다면, "조주 선사는 어제의 일은 몰라도 내일 일은 확실히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의 자신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아침 죽은 먹었나?"
학승이 말했다.
"먹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발우를 닦아놓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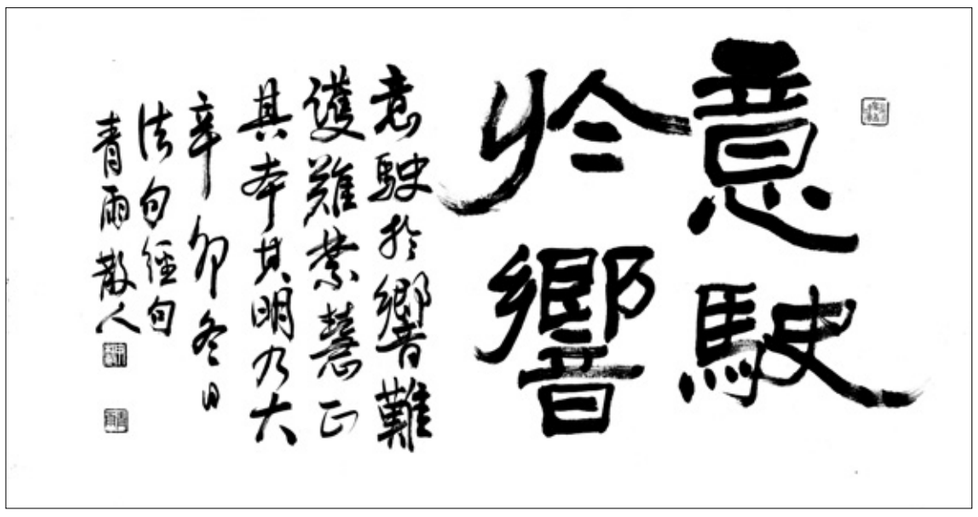
問 如何是學人自己 師云 喫粥了也未 云 喫粥也 師云 洗鉢盂去

몸[身]은 나가 아니다. 몸을 끌고 다니는 주인이 나이다. 몸의 주인을 부처라고 부르고, 혹은 우주의 주인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자신을 알 것인가? 독자들은 지금 곧바로 오른 손을 천천히 들어서 자기 귀를 만져보라. 그때 깨달으라. 이 귀를 만지는 자(者)! 그가 바로 참나요, 주인이요, 부처이다. 손을 들어 일하고 발을 들어 걸어갈 때 깨달으라. 이렇게 손과 발을 움직이는 자, "이 자가 주인이구나"하고. 보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라. "아! 이 자로구나." 하고.

무불선원 선원장

윤상민의 **서화산책** 법구경 구

마음은 소리보다 빠르나니



意駛於響 難護難禁 慧正基本 其明乃大(의사어향 난호난금 혜정기본 기명내대)

마음은 메아리보다 빨리 울려 퍼지니 지키기 어렵고 다스리기 어렵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근본을 바르게 하니 그의 현명함이 더욱 깊어진다.
- 〈법구경〉 심의품 1장

駛: 달릴 사
響: 울릴 향
難: 어려울 난
護: 도울 호
禁: 금할 금
慧: 슬기로울 혜

청구산인 법우동명 신묘기본 호난금혜 의사내정 의어일대



서예가 · 동아미술상 수상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금강경

부처가 1250 제자에게 설한 법문

〈금강경〉은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대비구와 함께 머물면서 설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한 내용은 '어떻게 발심해야 하는가', '어떻게 청정심을 유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번뇌심을 다스려야 하는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런 까닭에 수행과 깨침을 지향하는 선종에서는 일찍부터 중요시되었다. 선종의 역사에서 보이는 그 간접적인 발단은 보리달마에게서 비롯한다.

달마는 스승 반야다라로부터 〈반야경〉을 통하여 수행하고 깨쳤으며 〈반야경〉 사상에 근거하여 정법안장을 계승하였다. 이로써 달마로부터 시작되는 선종은 자연스럽게 〈반야경〉에 근거한 수행과 그 깨침으로 나아갔다. 그 직접적인 발단으로는 〈금강경〉에 담겨있는 내용에서 비롯된다.

〈금강경〉은 먼저 발심의 문제가 잘 드러나 있다. 그 발심은 곧 반야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하는 보살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로 본래성불에 근거하여 발전된 조사선인

수행 · 깨침을 지향한 선종에서 중요시해
일체 중생의 분별 집착 없애기 위한 가르침
무념 · 무상 · 무주는 묘유의 긍정을 뜻해
〈금강경〉의 無는 모든 것에 가치 부여한 것

만큼 개개인의 자성을 청정심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그 청정심의 유지는 어떤 마음으로 발심을 성취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요익중생계로 드러나 있다. 셋째로 수행은 발심한 이후에 어떻게 수행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한다. 이것은 일체선법을 닦는 것으로 섭선법계로 드러나 있다. 넷째로 번뇌심을 다스린다는 것은 수행을 통하여 아집과 법집의 번뇌장과 소지장을 어떻게 없애야 하는가를 말한다. 이것은 일체의 악을 단절하는 것으로 섭율의계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그 실천으로 보살도의 4종심을 제시한다.

첫째는 광대심(廣大心)이다. 광대심은 가없는 시방과 세계와 중생을 모두 건지려는 마음이다. 때문에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존재하는 일체중생의 부류인 난생 · 태생 · 습생 · 화생 · 유색 · 무색 · 유상 · 무상 · 비유상 · 비무상 등' 이라 말한다. 둘째는 제일심(第一心)이다. 일체중생을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려는 마음이다. 때문에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도록 그들을 멸도하리라' 고 말한다. 셋째는 상심(常心)이다. 중생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다. 때문에 '이와 같이 무량하고 무수하며 무변한 중생을 멸도하지만 실로 멸도된 중생은 없다' 고 말한다. 넷째는 부전도심(不顚倒心)이다. 올바른 지혜를 통하여 선교방편을 구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보살에게 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4종심을 실천하는데 다음과 같이 진심을 발휘하여 무주심으로 임할 것을 강조한다.

그 설법대상은 곧 수행의 주체로서 모든 대승인과 최상승인,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중생이다. 이들을 상대로 하여 설하는 내용은 제일의실단을 설하여 모든 보살로 하여금 염불삼매를 증진시키고, 중도를 드러내고 양극단에 치우친 견해를 없애며, 중생의 분별과 집착을 없애려는 것이다. 그것이 곧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로 설정되어 있다. 무주는 무소주로서 집착하는 바가 없는 것이다.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한 가지에 얽매여 번뇌가 되고 업이 되어 삼계에 윤회하게 된다. 따라서 무주로 근본을 삼으라고 가르친다. 무상은 모든 차별상이 없는 것이다. 중생의 경우 일체제법에서 분별상을 취하여 거기에서 취사분별의 망상심을 일으키는데 분별심은 보살의 근본번뇌이다. 따라서 갖가지 망상분별을 내어 삼계윤회의 근원을 일으킨다. 때문에 일체를 공하게 보는 무상을 가지고 본체를 삼으라고 가르친다. 무념은 일체만경에서 망념을 내지 않는 것이다.

〈단경〉에서는 특히 무념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한다. 요컨대 〈일체만경〉에서 분별상을 여의고 마음에 집착이 없는 것을 무념으로 간주한다. 이에 혜능은 무념을 종지로 삼으라고 가르치고, 황벽은 무심(無心)하라고 가르치며, 임제는 무사(無事)하라고 가르친다. 이 셋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런 까닭에 무념은 곧 정념으로서 분별이 없이 항상 자유롭게 작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단경〉에서는 이것을 진여와 동일시하였다.

이와 같이 무주 · 무상 · 무념의 셋은 결국 무라는 한 글자로 귀일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무가 아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곳에서 묘유의 긍정이 인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진실한 무상은 유상이고, 진실한 무념은 유념이며, 진실한 무주는 유주이다. 그리하여 무상은 모든 상을 섭수하지 않음이 없고, 무념은 모든 법을 계합하지 않음이 없으며, 무주는 자신이 모든 곳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이로써 반야는 단순한 부정론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하고 진실한 자심이 무애자재하게 드러나서 무연대비심으로 일체를 인연한다. 이곳에 비로소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으며, 제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강경〉의 무라는 한 글자는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무는 응무소주의 부정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이생기심이라는 긍정이 있고, 제상비상의 부정이 있는 곳에 도리어 즉견여래의 긍정이 있다. 그래서 진실한 세계는 비세계이고, 진실한 중생은 비중생이며, 진실한 대법은 비대법이고 비비법이다.



김호귀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한국근본불교조계종

공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김철회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종 합 반 : 10인 이내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강 의 : 종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원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직접지도〉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단지 내 역할이라 생각하고 행하니 이뤄져 있었다

김천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김천 불령산에 자리한 청암사는 신라 헌안왕 때(859년)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원래 청암사는 조선말 회암정혜(晦庵定慧; 1685~1741) 스님 이후 권상로 고봉 우룡 고산 덕민 스님 등 대 강백(講伯)들이 1970년대까지 강석을 펴온 비구 사찰이었다. 1987년, 현 주지이자 강사인 상덕 스님과 강주 지형 스님이 16명의 학인스님들과 발을 들인 후 청암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졌다.

비구니스님들이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청암사는 300년 역사를 지닌 전통불교강원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쇠락한 고찰에 지나지 않았다. 상덕 스님은 이곳을 학인스님들과 함께 원력 하나로 일궈 120명이 넘는 비구니스님들이 수학하는 비구니강원으로 탈바꿈 시켰다.

최근 청암사는 승가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전자수업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캠퍼스로 또 한번 변화했다. 이곳 학인 스님들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를 이용해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고, 교수들과 의견을 교류하는 양방향 전자수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암사스님들은 심신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인 우슈도 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비구니 우슈 무예팀을 갖추고 우슈지도자를 배출해 온 청암사는 6월 열린 전국우슈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청암사 중흥에 힘써 온 청암사 주지 상덕 스님은 조계종 제15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이기도 하다. 스님은 지난 7월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수를 비구스님의 비율에 맞춰 늘려달라는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수 개선방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하는 등 비구니스님들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서고 있다.

평생 학승의 길을 걸어온 상덕 스님이 다방면으로 활동해 온 원력은 어디에 있을까. 늦가을 만해NGO 우리함께 빌딩 젠더연구소에서 옥복연 젠더연구소장과 상덕 스님이 만나 대담을 나눴다.

정리=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상덕 스님은 학승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 1965년 서산 개심사로 출가, 동학사 강원과 서울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서울 경국사 법보강원 시절에 수학한 가산 지관 스님으로부터 지형 스님에 이어 비구니 스님으로는 두 번째 전강 제자가 됐다. 현재 청암사 주지 스님이며 중앙종회의원인데, 오랫동안 학승으로 살아온 원동력은 무엇인가?

어렸을 때는 그냥 시골학교에서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마음이 인연이 돼서 내가 처음 입산해서 어른 스님들로부터 배운 승가의 모습을 초심수행자들에게 전승하고 싶었고 단지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강사를 굉장히 오래했는데 어떻게 공부했는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특별하게 전강식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前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전강식 같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다.

청암사학장 지형 스님은 동국대를 다니면서 (재강을 했는데 나에게 권유하여 함께 재강을 하였다.) 청룡암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 경국사 법보강원에서 졸업했다.

–청암사는 소나무숲이 수려한 자연친화적인 사찰로 유명하다. 처음에는 낡고 쇠락한 고찰이었다고 들었다. 불기운이 사라진지 오래된 아궁이, 기울대로 기울어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건물들, 덩치만 컸지 곳곳이 비가 새는 상태였던 청암사에 짐을 풀고, 비구니 강원의 문을 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예전에 화운사 강원에서 강의하던 시절 우연히 한 학인스님에게로 '어불령산(於佛靈山) 청암사'라고 쓰여진 편지가 왔는데 이상하게 편지 봉투의 글귀를 보고 가슴이 막 떨렸다.

그러다 일 때문에 청암사를 찾게 됐는데 김천에서 가는 길이 마치 무릉도원 같아 보였다.

1987년, 지형 스님과 16명의 학인 스님들이 함께 공부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 강원을 열고 싶어 하던 차 직지사 조실 영허녹원 스님이 청암사를 경학도량으로 개설하게 하셨다. 우리 눈에는 청암사는 말 그대로 화장세계였다.

낡고 쇠락한 사찰을 비구니 강원으로…
최근 아이패드 도입한 스마트캠퍼스 구축
세계 유일의 비구니 우슈 무예팀 갖추고
비구니스님 권익 신장에도 앞장서고 있어

처음 청암사에 갔을 때는 엄청 쇠락한 고찰이었다. 비가 오면 곳곳에서 빗물이 샜다. 빗물을 받을 그릇이 부족할 정도였다. 지붕을 뚫고 크게 자란 오동나무가 있을 정도로 오래되고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었다. 300년 전통의 불교강원이었다는 영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썰렁했다. 그래서 당시 청암사 학인스님들은 공부만 할 수 없었다. 도량을 정비하기 위해 고된 노동과 정진을 함께 해야 했다. 당시 청암사를 본 사람들은 모두 1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만큼 상황이 열악했다.

하지만 지금의 청암사를 방문한 이들은 썰렁했던 당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16명의 학인으로 시작된 청암사 강원이 이제는 많은 학인들이 운집한 비구니 강원이 됐다. 얼마 전 한 비구 스님이 "2010년은 폐강원 리스트에 올랐던 청암사가 2011년에는 비구 스님들도 벤치마킹해야 될 좋은 강원이 됐다"고 말했다.

–청암사 승가대학과 율원이 전자수업 시스템을 도입, 승가 기본교육기관 최초로 스마트 캠퍼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학장스님을 비롯한 사중 대중들이 올 초부터 아이패드를 구입해 활용법을 숙지했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강원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새 강원에는 젊은 학인스님들이 줄어드는 추세다. 또 조계종 교육원에서 강원의 기본 교과목을 개편하면서 많은 교과목이 증가하게 되자 우리 입장에서는 개편된 교과목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청암사 강원이 문을 닫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걱정이 컸다. 그러던 중 청암사 불자인 이백규 전 남대 전자상거래학과 겸임교수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학습을 제안했다. 이 교수의 제안으로 청암사 승가대학은 8월 25일 개강 이후 스마트 캠퍼스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캠퍼스 구축뿐만 아니라 참살이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개발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우슈와 걷기명상, 유미정사사찰음식 조리법 등에 대한 해설과 동영상이 포함돼 일반인들에게 청암사를 소개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이 넘은 시점에서 스마트 캠퍼스를 통한 교육은 대중포교와 연결된다. 포교를 위한 원력이 있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마트앱까지 만들 수 있었다.

한국불교는 하루라도 빨리 소셜미디어의 웹서비스를 통해 모든 젊은이들과 접촉 빈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불교문화 이미지를 고양하고 신뢰를 얻어 탄탄한 불자층을 형성해야 한다.

각 사찰마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는 홈페이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가능한 빨리 모바일 웹 홈페이지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지난 종회에 이런 내용을 건의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종단이 직접 나서서 시스템을 구축·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012년 2월 청암사승가대학·율원에서는 비구니경학도량 최초로 강원과 율원재학 중 21명이 사회복지 전문학사자격을 취득한다. 2010년 3월에 구미1대학 특수보육계열 아동복지과에 입학한 스님들은 2년 동안의 사회복지 전문과정을 마침으로써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실기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1366(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에서 여성가족부 인증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자격도 취득하고,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할 예정이다.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대승보살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학장 지형 스님의 원력과 결단의 성과이다.

–청암사가 우슈(태극권) 특화 사찰로 거듭나기까지 학장 겸 율원장인 지형 스님과 주지인 상덕 스님의 우슈에 대한 열정도 한몫했다고 들었다. 우슈를 만난 계기는?

청암사는 1997년부터 태극권 수양을 시작해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인스님들을 대상으로 4년 과정의 우슈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며 우슈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형 스님과 40년간 인연을 맺어온 이동호 전국우슈연합회장의 역할이 컸다.



상덕 스님은 … 1951년 서울 출생. 1968년 성근 스님을 은사로 개심사에서 출가했다. 1973년 동학사 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부터 청암사승가대학 강사를 현재까지 맡고 있다. 스님은 1991년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교육원 제1기 습의사였으며 1998년 조계종 행자교육원 제14~29기 갈마위원을 역임했다. 현 청암사 승가대학 강사, 청암사 율원 교수사, 청암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제15대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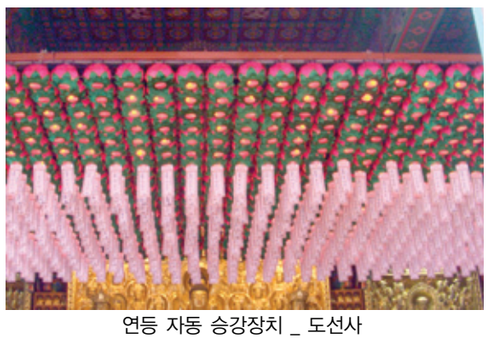
찬덕불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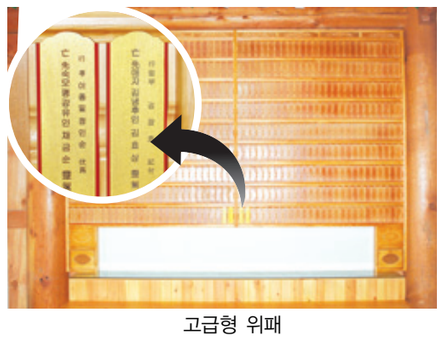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등


팔각접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종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小 大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이 회장은 청암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4시간씩 우슈를 지도하고 있다. 태극권은 8식 16식 24식 32식으로 나뉘는 무술이다. 1~4학년까지 각각 1단씩 단계가 올라가 4단에 이른다. 청암사에서는 1년에 한차례 승단심사를 하고 있고, 매년 전국우슈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태극권의 외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연하고 완만하며 동작들이 아름답고 기품이 있다. 동작과 호흡을 일치시켜 입정상태에 이르면 삼매에 들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하며 순리에 따르는 긍정적인 생활태도를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며 자아를 찾는 매력도 있다.

(청암사 승가대학 · 율원 우슈팀은 2010년과 지난 6월 제2회 전국우슈대회에서 종합3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어떤 비구 스님이 교육현장에서 "여성은 다음 생에 남성으로 태어나야 성불할 수 있다"거나 삼종지도, 팔경법을 강조하는 법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전에는 부정적인 여성관과 긍정적인 여성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경전을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성의 몸으로 성불한다, 못한다의 법문은 의미가 없다. 성불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반 재가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전거(典據)가 있다. 부처님은 당시 인도 사성계급제도가 있는 폐쇄적인 상황에서 비구니승가를 탄생시켜 성평등을 실천한 최고의 성인이라고 생각한다.

팔경법(비구니가 지켜야할 8가지 공경법)을 '비구를 우위로 봐야한다' 고 해석하면 잘못이다. 여성 특유의 아상(我相)을 소멸하게 하는 비구니에게만 해당되는 수행법이지 그것이 '비구 스님들은 우위에 있고 비구니는 밑에 있다' 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팔경법은 승가안의 공경법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예법이 있듯이 부처님 법을 공경하기 위해 질서를 만든 예법이라 생각한다. 팔경법을 비구 승가의 우위를 점하는 법으로 해석한다면 부처님을 성차별한 분으로 격하시킬 소지를 초래한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부처님 의도대로 해석해야 하는데 서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비구니스님들에게 깊이 있는 율장 공부가 요구된다.

팔경법이 성차별적이라는 그릇된 견해는 부처님을 성차별한 인물로 격하시키는 것
비구니 스님들 깊이 있는 율장 공부 절실
종회, 비구니 의석수 늘리고 선거권 줘야

–1954년 정화불사이후 1962년 통합종단이 들어서면서 오히려 비구니의 권리가 제약됐다. 1994년 개혁종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종단 내 비구니 스님의 역할제한은 곧바로 재가여성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다. 종단내 비구니 스님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는 원인을 무엇이라 보는가?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준비부족에 있다고 본다. 계율은 존중되면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승가의 청규를 만들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예전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신분화 했던 것이 현대의 역할까지 지배하려는 경향도 원인인 것 같다. 비구니 승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만불교가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은 교육과 신도조직의 힘도 있지만 비구니승가의 역할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불교중흥 대토론회의 주제가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다'였다. 출 · 재가자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승가와 재가는 둘이 아니고 사찰 운영에 있어서 재가신도들과 소통 교감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많은 스님들도 알고 있다. 조계종단은 비구니와 우바이를 종무원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교단을 운영 · 발전시키는 데에는 출 · 재가의 관계 구분 없이 평행하게 가야 한다고 본다. 재가불자의 전문직 재가불자의 인맥 구축을 통해서 단단한 불자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 법의 전통으로는 승가를 존중해야 한다. (불법이 오래 세상에 지속되기 위해서). 또 합법적인 기구를 통해 재가와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스님과 비구니 종회의원 스님들이 "비구니 종회의원의 수를 최소 1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해 달라.

(종회의원 비구니스님들은 의석수 개선방안으로 ▷비구니를 포함한 직능대표 30명 의석수를 비구 15명, 비구니 15명으로 재조정 ▷종회의원 선거에서 비구니의 선거권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개정 ▷최소 승납 10년 이상의 비구니에게 선거권 등 참종권 부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비구 승가만의 교단운영은 한계라고 생각한다. 종회의원 탁연 스님이 〈불교성평등을 위한 '종교와 젠더연구소'〉의 제안으로 의석수 개선방안 부여 등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비구니종회의원스님 일동의 동의를 거쳐 종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제출하기 전에 몇몇 비구 스님들에게 안건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구했더니 "비구니 스님이 무슨 활동을 하냐. 창피한 줄을 알라"고 하더라. 기존의 의석수 내에서 종법을 잘 알고 공부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은 안하고 의석수만 늘리면 뭐하냐는 지적이다. 그 말도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비구니 스님 참종권 부여는 반드시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년 3월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그때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로 법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준비할 것 들이 많다.

–불자여성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달라.

승가는 수행과 전법을 전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和' (온화하다, 서로 뜻이 맞아 사이좋은 상태가 되다)를 좋아한다. '和' 의 소양을 많이 갖고 있는 우바이는 불교의 바른 신행의 정체성과 책임감을 갖고, 승가를 보호감시 해야 한다. 동시에, 불교의 자비를 가정 친척 친지 이웃 사회에 실천해 불국토를 장엄하는데 역할하기를 바란다.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퇴임 고불식



동국대 선학과 교수

간밤에 철지난 은죽(銀竹)이 내리는지 후두둑 거리는 소리가 요란스럽다. 한국선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있는 날이었다. 학회에서 필자의 정년퇴임 고불식이 있었다.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러 정년이 됐는지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인 것을 어찌하랴.

답례로 '선과 경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기 마련이다. 시작의 귀착점이 끝이라면 끝 또한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끝이 없는 시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남산 기슭을 오르내린지 어언 40년 세월이 흘렀다. 삶의 대부분을 모교에 바친 셈이다. 무슨 고지를 먹은 소작농도 아니련만 학교란 도량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은 자신을 완전 연소시키고자 하는 일에 취함이 아니었을까 회고해 본다.

교수의 일이란 두 가지로 대별될 것 같다. 그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구에 매진하는 일일 것이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일에 선행되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다. 도를 이루면 그 경지를 게송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판무식은 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말더듬이가 아무리 자기 속내를 그러내려고 해도 상대에게는 기별이 와 닿지 않는 일이듯이 문자를 모르면 어찌 도의 경지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학교를 오게 된 동기였다.

앎과 지식, 이 말은 유사한 듯하지만 판이하게 다르다. 앎이란 두 눈을 뜨고 자신이 직접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체험이 된다. 이 체험은 어디서 빌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이란 눈 뜨고 본 사람의 정보를 주워듣는 것이다.

선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 있다. 이 체험은 언어로 표현된다. 언어를 통한 선은 철학이고 관념이며 한낱 유희에 불과하다. 언어를 통해 선을 터득하려는 것은 종이 위에 그려진 지도를 보고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선과 언어는 만나야 한다. 각각으로 존재해서는 선이 진정한 선이 될 수가 없다. 생명이 있는 언어는 그 자체가 곧 선이다. 더 이상 선과 별개가 아니다. 언어를 지닌 선은 살아 있다. 선은 언어를 통해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며, 꽃이 되고 물이 되며,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된다. 선은 이것저것을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글방에서 학동들에게 글을 읽히는데 한 아이는 글을 열심히 읽지 않고 있었다. 훈장은 화가 치밀어 어찌 그리 글 읽기를 소홀히 하는지 꾸짖었다. 그러자 학동은 훈장에게 정중히 묻는 것이다.

"하늘을 보면 푸른데[視天蒼蒼], 하늘 천자는 왜 푸르지 않습니까[天字不碧]."

교단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문에 접근하는 학생을 보고자 했다. 그 결과가 여의치 않은 점은 전적으로 동기 유발을 하지 못한 내 탓으로 돌린다.

선에서는 직관의 세계를 개발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한다. 이 직관(intuition)은 인간 내면세계에 존재해 있던 무엇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것을 지혜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지혜는 외부에서 빌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빌려왔다면 지식일 뿐이지 참 지혜는 아니다.

경허의 제자 가운데 혜월 선사가 있다. 선사는 기지가 넘치는 지혜를 발산했다. 부산 선암사에 큰 방 가득히 전국의 강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는 일자무식이니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시다"라고 하며 죽비를 방바닥에 굴리고 나서 "이게 무슨 자(字)요?"라고 물으니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하고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 선사는 "임금 왕자(王)가 아니요, 흙토 위에 죽비가 놓였으니 말이요"라고 말하고 호탕하게 웃었다고 한다. 이같이 직관의 세계는 사족이 붙을 수 없고 사량분별이 따르지 않는다.

정상에서의 해돋이는 찬란하지만
내리막길은 편안하고 눈익은 길

반면에 투이션(tuition)은 직관과 판이하게 다르다. 투이션은 밖에서 오는 가르침이다. 소위 티칭이라고 한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외부로 부터의 가르침을 말한다. 스승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서 익혀 나간다. 어찌 보면 따라 한다는 것이 무미건조 한 듯하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회상해 보면 어린 시절 구구단을 열심히 따라 외우고 익혔기에 실생활에 활용해 엄청난 편리함을 느끼게 된다.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직관의 세계에 고개를 내밀고 기웃거리는 일이란 준비운동 없이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단순한 의욕에 지나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곁눈질 하지 않고 외길을 걸어온 자신을 생각하면 그저 고마울 뿐이다. 그리고 쉼 없이 원고지를 메워 왔던 결실이 해가 바뀌면 전집으로 출간되어 세상에 선보일 터이니 작은 설레임도 따른다.

오르는 산행길은 가파르기도 하고 숨도 가쁘다. 정상에서의 해돋이도 찬란하지만, 내리막길은 편안하고 눈 익은 길이며 석양의 일몰도 아름답다. 내 사상과 진리의 요람, 동국대여 영원하라.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묵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뱀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사찰스님 20%할인)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최동순의 한국구술인물사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2)

어려서부터 불의에 맞서

기록문화의 발달에 따라 받아쓰기, 녹음에 이어 영상을 활용하는 시대이다. 어렵지 않게 동영상 카메라에 구술로 기록하는 역사를 담는다. 6·25 전쟁 후 어린 진관의 출가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당시 진관의 눈에 비친 사찰문화를 말한다. 서당 다니던 어린이 진관의 갈팡질팡 출가 과정과 그의 저항적 성격을 들어본다.

"〈맹자〉를 보면서는 정치를 바르게 해야 되고 백성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다. 아 요걸 그 선생한테 고 때 마침 그 인제 4·19 혁명이 막 그때는 몰랐었잖아요. 고 서당만 다니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선생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고 이승만이에 대해서 반대를 허는 고런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애요. 그러나 고민 허면서 훈장으로 하~ 고민하고 요런 것이 모습이 한 쪽 조그마한 방에서 문 열면서 고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물을 이렇게 한 청수 떠놓고 그 조상에게 그 절을 하는 것을 또 보고 그런 게 인제 밑에 아이들한테는 고 모습을 안 보여주지만 엿듣고 보면 항상 그 인제 국가 국가가 잘 되어야 이렇게 되는 요런 것을 보면서 아 내가 할 일은 나도 인제 저 훈장선생이 그 뭐 민족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걸 계속했는데…."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의 모범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를 말해준다. 중학교를 포기하고 서당에 다니던 진관은 선생님의 국가관을 목격하게 된다. 4·19 혁명은 1960년이므로 이때 진관은 서당에 다녔던 것이다. 서당 선생님은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를 성토했고,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점을 학동들에게 설명했다. 청수를 떠 놓고 조상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훈장님 말씀을 무조건 따르고자 했고, 그 가르침에 따라 미래를 설계했노라고 구술한다.

"차라리 서당에 가 있는 게 〈맹자〉 앞으로 막 사서삼경 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요렇게 해주는 바람에 거기서 학원 아니라 서당에서 아 또 평생 살 일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 선생이 또 불교를 알아야 된다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날로 내가 그 흥복사라는 데를 들어갔지."

서당 선생님이 말한 대로 진관 소년은 절을 찾아가게 된다. 12살 소년은 훈장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출가의 길을 선택한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필요 없었다. 불교를 알아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전부였다.

"마을 뒷산에 흥복사에 가보니까 그 훈장선생이 가르쳐줬던 거랑 완전히 틀리더라고 보니까. 절집에 들어가니까 그 때는 인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책을 읽지 말아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인제 소유해서는 안 되고 마 이런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제 그 흥복사에 에~ 인제 정오 스님이 인제 계셨는데 아주 인제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 요거를 가르쳐줬는데 거기에 바로 미륵 미륵부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미륵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그 정오 스님이 해줬지 인제."

진관 스님은 구술하면서 당시의 집안 사정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불교를 알아야 한다'는 서당 선생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많은 식구들의 입 하나를 덜어야 한다는 진관의 심경이 추측된다. 자신은 물론 부모인들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겠는가. 삭발염의에 수도정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를 리 있겠는가. 진관 소년은 흥복사 주지를 만난다.

"〈맹자〉를 읽고 〈명심보감〉을 보고 또 인제 이 쪽 그 정치 뭐 이런 게 좀 아는 소리를 아마 내가 했던 거 같애 내가. 그러니까 아는 소리를 하니까 정오 스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잘 생기고 아주 자비스럽고 고기가 자비스런 모습이 넘치는 스님이야. 아주 편안하고 인제 이렇게 하는 스님인데, '나는

불교 알아야 한데서 출가 결심
뒷산 사찰에 갔다 갑사로 곧장 출가

내 그릇이 지금 안 된다.' 그 스님이 그래. '내가 너를 받을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어쪽지를 줄 테니 이것 가지고 계룡산에 계룡산에 있는 저 그 암자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라.' 그러기에 그 때는 걸어서 찾아서 가는데 가다가 그 김제 어느 딱하니까 길을 어른한테 물었잖아요 어디로 가야될지.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팔불출처럼 손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딱하니까 아이 저리 침이 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 간 곳이 또 금산사예요. 네."

6·25전쟁 후 베이비붐이 일었고 세상에는 진관의 후배들이 많이 태어났다. 진관의 친동생들도 여럿이다. 사찰이 아동들을 수용하던 시절이었다. 당시의 복지시설이었던 셈이다. 많은 숫자의 아동들이 절에서 성장했다. 계룡산 암자를 찾아가던 진관은 엉뚱하게도 김제의 금산사를 방문한다.

"그래서 인제 금산사에 가다보니까 처음 가는 길이니까 가는데 그 호수 위에 또 절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리 들어갔어요. 거가 금산사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는 그 미륵교파들이 있는 그 지역이라. 그래서 거가 금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받아줬으면 내가 그 쪽에 가게 되는 건데 모르니까. 그래서 금산사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금산사에 들어가서 인제 거가 인제 한 일주일 있었죠."



어릴 적 서당 훈장에게서 배운 국가관은 진관 스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진관 스님이 2002년 미군차량에 숨진 효순·미선양 사건 및 소파(SOFA) 협정 개정과 미국 측의 사과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흥복사 정오 스님이 써준 서찰을 들고 금산사를 찾았다. 계룡산을 가지 않고 모악산 금산사로 간 것이다. 미륵불을 모신 금산사에서 어찌어찌하여 일주일 있게 되었다. 그렇게 그는 미륵부처님과 인연을 맺는다.

"거기 (금산사) 가서 어~ 인제 가니까 하루 종일 일만 시켰는데 뭔 일을 시키냐. 물길르는 것만 시키더라고. 뭐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물만 했는데 그런 게 아마 그 실험이었던 거 같아 보니까…."

"혜덕 스님이 나를 인제 불르더니 그 금산사 대밭이 있어요. 대밭에 가 가지고 인제 몇 대 뚜드려 맞았어. 길들인다고 해 가지고 어? … 나는 〈맹자〉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냐 어떻게 그 대밭으로 끌고 가 가지고"

〈맹자〉를 읽었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어린 진관은 맞아서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 스님으로부터 얻어맞고는 또 〈맹자〉의 구절을 들이대며 "왜 때리느냐"고 반발했던 것이다. 불의에 맞서려는 진관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형성된 것이다. 행자 생활의 일면을 보여준다.

"정오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겨울에 인제 계룡산 갑사로 갔죠 인제. 갑사 가니까 어떤 스님이냐면 키가 큰 스님을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 스님이 허는 얘기가 지금 입산하러 왔습니다. 인제 완전히 저저 숙달이 됐으니까 다른데서 하도 당했으니까는 이젠 내가 여기서는 다시는 어떠한 그게 있어도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드디어 갑사에 들었다(1960). 그러나 어린 진관은 갑사에 들기 전 여러 사찰을 방문했지만 행자들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입문하지 못했다. 대전역이나 다방 같은 곳에서 잤다. 몇 주간의 방황 끝에 계룡산 갑사의 문을 두드렸다. 갑사의 너그러웠던 원주(총무) 스님이 용모(진관)의 입문을 허락했다. 정오 스님의 서찰이 통했던 것이다. 본격적인 행자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다. 큰방에는 이미 50여 선배 행자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원영상의 인물로 보는 일본불교
일체중생의 구제보살 닌쇼(忍性)

어머니 유언따라 출가한 구제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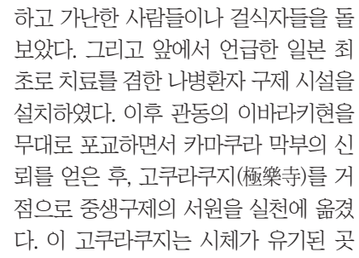
일생을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한 닌쇼 상인(1217~1303)이, 그가 1243년에 세운 일본 최고(最古)의 나환자 의료구제시설인 키타야마 쥬하치켄토(北山十八間戶)에서 활동할 때였다. 어느 날 손발이 비틀어져 걸을 수도 없는 중환자가 찾아왔다. 닌쇼는 이 환자를 등에 업고 밤낮으로 돌보며, 특히 밤에는 몸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이윽고 임종이 다가올 무렵 환자는 닌쇼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다시 태어나겠다. 그때는 내 얼굴에 반점이 있을 것이다"하고 죽었다. 그 후, 닌쇼의 제자 중에 얼굴에 반점을 가진 자가 나타나 닌쇼를 도왔다고 한다. 닌쇼는 15세에 어머니가 타계할 때 남긴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유언을 새기며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와서 본 나라(奈良)의 카쿠안지(額安寺)에 들어갔다. 닌쇼의 연보인 〈성공대덕보(性公大德譜)〉에 의하면 그는 어머니의 사후 추선을 위해 고대

일본 최초로 나병환자 구제 시설
어머니 영향으로 문수 보살 모셔

민중 구제의 보살 교키(行基)가 세운 치쿠린지(竹林寺)에서 문수보살을 신앙했다고 전한다. 닌쇼의 천민 구제활동의 사상은 이러한 문수신앙에 기반하고 있다.

1240년 24세 때에 진언율종의 조사 에이존(叡尊)이 주석한 사이다이지(西大寺)에서 정식으로 수계를 하고, 어머니의 30주기에 문수보살이 그려진 불화를 비인숙(非人宿), 즉 천민 구제를 위한 숙소에 안치하고 공양하고자 한 원을 실천에 옮겼다. 그리고 17개소의 나병환자숙소로부터 1000명을 모아 음식을 베풀고, 재계(齋戒)하기를 권하며 자선구제활동을 시작했다. 천민·걸식자·병자들이 바로 문수보살이며, 이들을 구하는 것은 문수보살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는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진언율종을 공부하면서 대승불교의 근본인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확고히 하였다. 당시에는 교키가 문수보살의 화신이라는 신앙이 유행했고, 이러한 전통을 이어 사회적 약자 구제를 목표로 한 문수회(文殊会)가 행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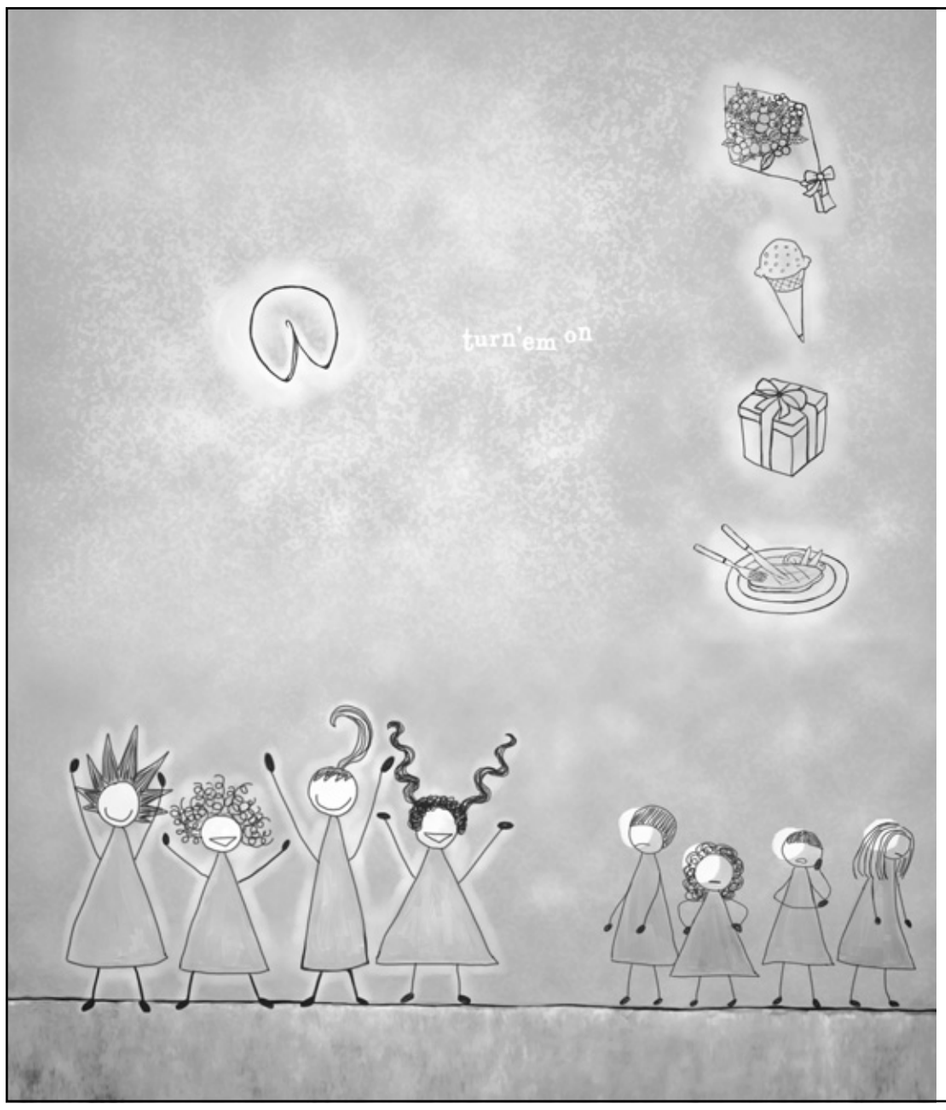
닌쇼가 살다간 13세기는 폭우, 강설, 한파 등에 의한 대기근으로부터 전국에 걸친 흥역, 역병의 만연 등으로 민중이 오랜 동안 고통 받고 있었다. 당시의 역사서에는 "병자·고아·시신을 노변에 버리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때의 사회상을 그린 '아귀초지(餓鬼草紙)'에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였다. 이러한 시대적 고통 속에서 관제화된 불교계는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스승과 함께 닌쇼는 불법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 계율을 지키고 실천하고자 하는 진언율종의 교세를 확장하는 한편, 민중의 고통과 함께하고자 하였다. 대사찰에 소속된 관승이 아니라 구도에 임하면서 민중 가운데에 들어가 사회활동을 행하는 둔세승으로서의 일생을 일관하며 명리를 초월했다.


닌쇼 상인 초상, 카나가와현의 쇼묘지(稱名寺) 소장

그는 스승의 뒤를 이어 사이다이지 한켠의 황폐해진 비전원(悲田院)을 수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걸식자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일본 최초로 치료를 겸한 나병환자 구제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후 관동의 이바라키현을 무대로 포교하면서 카마쿠라 막부의 신뢰를 얻은 후, 고쿠라쿠지(極樂寺)를 거점으로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에 옮겼다. 이 고쿠라쿠지는 시체가 유기된 곳이었으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지옥과도 같은 장소였다고 한다.

그가 처음 입문했던 카쿠안지는 고대의 쇼토쿠(聖德) 태자와 인연이 있는 절로 알려져 있으며, 닌쇼는 태자가 오사카의 시텐노지(四天王寺)를 건설할 때 함께 세운 사개원(四箇院)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중세 초기부터 이 시텐노지 서문 부근은 극락정토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인식되어 병자·빈자·걸식자·천민 등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 (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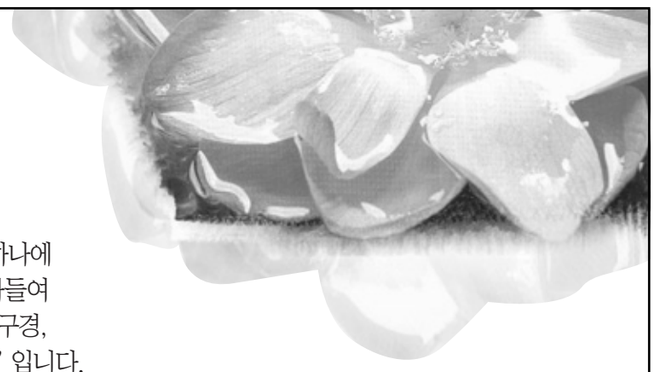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 · 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자비와 지혜의 은빛 바다 오늘도 눈부시게 펼쳐졌네!



상생의 도량
영천 은해사

금포정(禁捕町).

살생을 금지하는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은해사 가는 숲길에 금포정이라는 표식이 있습니다. 1714년 숙종 때에 은해사가 일주문 일대의 땅을 매입하고 소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숲에서는 일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공존하는 화엄세계를 그렇게 상징한 것이니, 스님들의 지혜가 놀라울 뿐입니다.

5리에 이르는 상생의 소나무 숲을 거쳐 은해사에 이르는 것은 해탈문을 열고 극락세계에 닿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공존의 정신은 오늘에도 이어져 몇 년 전 두 차례에 걸쳐 1080 그루의 금강송을 식재했다니 앞으로도 은해사 일주문을 지나가는 길은 상생의 화음이 어우러질 것입니다.

굳이 말을 해야 진리가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에 쓰고 바위에 새겨 전하지 않아도 진리는 전승됩니다. 숲 하나에 담긴 정성이 300년 세월을 이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3000년을 넘는 시간까지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빛바래지지 않는 진리이고 그침이 있을 수 없는 중생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상생의 숲길 옆은 개울입니다. 굽이굽이 팔공산 깊은 계곡을 흘러내리는 물길이 마을로 접어들며 그 기세를 다소곳하게 접어 들이는 모습이 경건합니다. 숲길과 물길은 그렇게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며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길 은빛 세계가 바다처럼 겹겹이 펼쳐져 있다."

절에 비치된 팜플릿은 신라의 진표 율사가 은해사를 이렇게 묘사한 시 구절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은빛 세계로 이르는 한 길' 은 무엇일까요? 일체중생의 복락이 흥겹게 진동하여 부처님의 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금포정의 정신은 이미 도량을 열었던 아득한 때로부터 이어져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은빛바다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출렁거리는 해탈의 바다입니다.

해탈의 바다, 은해사 사역은 숲길과 물길을 따라 오르다가 다리를 건넌 곳에 우뚝한 당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라 현덕왕 원년(809)에 혜철 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설이 있고 보면, 은해사의 사적은 팔공산 자락만큼이나 그윽하고 선찰의 향기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전의 역사를 방증할 자료들이 사라져 버렸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절반이 깨지고 없는 비석의 파편

은해사 부도밭은 숲길과 물길의 호응을 감상하며 오르다가 다리를 건너 절로 가기 전 왼쪽 숲에 있습니다. 굵은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뒤편은 석벽인데 기와를 얹은 돌담이 앞쪽과 좌우를 두르고 있어 영역을 확고하게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가운데 쯤 푸른 이끼가 서린 둥근 돌 하나가 서 있는데 '나무아미타불' 이라는 글씨가 뚜렷합니다. 옛 스승들의 법체인 부도와 비 그리고 소나무들이 한데 어우러진 은해사 부도밭도 금포정 숲길의 정신이 그대로 묻어나는 상생의 법당입니다.

뒷줄에는 1m 남짓의 송덕비들이 즐비하게 섰는데 이 또한 은해사가 세속과 함께 해 온 교분의 역사일 것입니다. 더러 총탄 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비도 있고 반은 깨져 나간 비도 있어 세월의 무상을 설법합니다. 팔각원당형과 석종형의 부도 4기가 중앙에 위치하고 그 오른쪽은 사적비가 서 있습니다. 왼쪽에 묵묵히 서 있는 비석 하나가 눈길을 끄는데 영파성규(影波聖奎; 1728~1812) 스님의 행적이 담겨졌습니다.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비석입니다.

비는 두부 같은 사각형의 화강암을 받침으로 하였고 몸돌은 검습니다. 갓은 두툼하고 처마끝을 유려한 곡선으로 들어 올려 다소 강하게 다가오는 무게감을 하늘로 흘어버립니다. 별 장식이 없이 점잖게 조각된 비는 스님의 것이라기보다는 유학자의 것으로 어울릴 듯합니다. 모름지기 스님의 비는 장엄하고 화려하거나 다소 투박해도 이런저런 장식과 조각으로 메시지를 담는 것이 제격이니까요.


공덕비와 부도 소나무 등이 한데 어우러진 은해사 부도밭

조선 르네상스 시기의 영파 스님
화엄학과 자비행으로 덕 베풀어

억불의 시대에 유가의 방식을 절집으로 불러들였다고 애석해 할 일은 아니지만, 스님의 행적을 담은 비가 지나치게 단조로운 것이 입맛을 씁쓸하게 합니다. 영파 스님의 부도는 원래 모시지 않았는지 세월이 갉아 먹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영파 스님의 생몰연대를 살펴보니, 그 스님이 출현했던 시대는 조선의 르네상스 때였습니다. 영조의 재위기간(1724~1776)과 정조의 시대(1776~1800 재위)를 살다 간 영파 스님은 화엄의 대가였습니다. 홍문관대제학과 예문관 대제학 등을 지낸 남공철(南公轍)이 지은 비문은 스님의 생애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스님의 생애라 할지라도 그 삶의 진솔함과 수행자로서의 거침없는 풍모가 행간에 알알이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 동방에 불법이 성대하였던 것은 신라와 고려 때로부터이니 이름나고 거대한 사찰들이 여러 도에 즐비하였다. 그런데 본조(조선)에 이르러 유학자들이 출현하여 척불론이 비로소 성대해지기 시작했지만, 스님들 중에 간간히 대단한 업적을 수립한 자가 있으면 사대부들도 그 공적을 말하고 드러내 칭송하였다. 서산대사 휴정과 같은 이가 바로 그 분이다."

남공철의 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선의 개국으로부터 중기에 이르는 동안 불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가운데 '대단한 업적을 수립한' 큰 스승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서산 대사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영파 스님이 서산 대사의 6대 적손이기 때문입니다. 서산에서 전해 내려오는 심인을 받은 영파 스님이니 본래는 선승이었던 것입니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은 스님들의 행적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영파 스님은 출가 이후 해봉(海峰), 연암(燕巖), 용파(龍坡), 영허(影虛) 등 당대의 고승들을 참방하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뜻한 바 있어 정성껏 관음기도를 하고 꿈에 〈화엄경〉을 받아 지니는 모습을 봅니다. 꿈과 생시도 둘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여서 어느 장로에게 〈화엄경〉 전질을 받아 읽으며 심오한 도리를 깨우쳤습니다. 그로부터 영파 스님이 머무는 은해사에는 배움에 목마른 수행자들이 앞 다투어 찾아들어 화엄의 은빛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스님은 품성이 온유하였고 지기가 맑고 밝았으며, 희노애락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재화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일찍이 깨끗한 땅에 머물면서 오래도록 객진을 떠나서 자애로운 항해에 보배로운 뗏목을 타고 두루 중생을 구제 하였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문에 이르면 진심으로 상심하였고 혹시라도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었으며 조금이라도 난색을 표시 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식객의 신발이 항상 가득했다."

'살생 금하는 숲' 조성해 생명존중 실천
첨단 시대에도 받들어야 할 고귀한 가르침

비문이 전하는 스님의 성품은 안으로 닦고 밖으로 빛을 발하는 수행자의 풍모 그대로입니다. 하나의 도량이 열리고 수행자들이 대를 이어 불조의 혜명을 잇는 것은 중생계를 향한 커다란 축복입니다. 도량에서 피어오른 지혜와 자비의 향화는 반드시 중생계로 퍼져나가 미혹한 살림살이에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영파 스님의 생애 역시 정신문화가 꽃피던 조선 중기의 문예부흥에 맞추어 화엄정토를 일구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런 법의 향기는 비문을 찬한 사대부의 마음을 먼저 적셔 버렸던 것인지, 비명(碑銘)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앞부분을 읽어 봅니다.

이 선백(禪伯)께서는 사문의 위대한 분이니
총령(蔥嶺)의 묵은 뿌리 화엄의 묘결이로다.
물속의 달 마음을 맑히고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안개 마음을 편케 하는구나.
장자의 나비가 나풀나풀
환상이 아니면 현실이러니
은밀히 비밀스러운 심인을 받고서
문득 법단에 올랐구나.

일주문 부근에 소나무 숲을 조성하고 '일체의 살생을 금하는 장소' 로 선포했던 은해사의 정신은 첨단을 구가하는 오늘날에야말로 더욱 성실하게 받들고 행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그 성성한 도량에서 선교를 융합해 화엄의 묘리를 전파한 영파 스님이 거듭거듭 출현할 때 세상은 정토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티끌도 진리 아님이 없고 한 목숨도 부질없다 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다시 금포정 숲길을 걸어 내려오는 마음은 가볍습니다. 마른 낙엽이 둥둥 떠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극락에서 들려오는 것이라 믿겠습니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3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4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1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제석(帝釋)과 함께 떠나는 신화(神話) 여행

마왕 파순, 그는 누구인가?

대개 신의 능력이 가장 돋보이는 경우는 평범한 인간이 욕망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신에게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인간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인간이 욕망하는 것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해탈과 깨달음이라면, 이는 신이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비록 인간이긴 하지만 인간이 가진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는 신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런 절묘한 구조는 인간으로 태어났어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신을 뛰어넘는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는 보여준다. 결국 마왕 파순과의 싸움은 처음부터 부처님 스스로 해내야 하는 과제였다.



삽화 김영수

마왕 파순이 살고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닌 천국

타화자재천왕인 마왕 파순은 욕계의 궁극에 사는 존재이다. 이런 욕계의 궁극에 있는 그는 인간이 욕망하는 온갖 쾌락의 감각들을 자유자재로 먹고 산다. 즉,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이야말로 타화자재천을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식량인 것이다.

흔히 우리가 온갖 환상을 품고 동경하는 '천국'이라는 하는 곳은 감각적인 쾌락이 넘쳐나는 욕계의 '하늘'을 뜻한다. 고통과 괴로움, 빈곤이 없고 아름다움과 즐거움, 쾌락이 넘치는 욕계는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천국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질투도 있으며 무엇보다 인간보다는 훨씬 길긴 하지만 수명도 제한되어 있다. 즐겁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것이다.

욕계의 하늘은 여섯 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먼저 사천왕이 각각 다스리는 사왕천이 그 입구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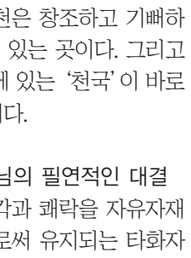
그 다음은 부처님을 흠모하는 제석천왕이 살고 있는 도리천이다. 도리천에 살고 있는 제석천왕은 사천왕을 거느린다. 즉, 제석천왕은 사천왕의 직속상관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두 하늘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중간에 있는 세 번째 '천국' 염마천은 축복 받은 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며 네 번째 '천국'인 도솔천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머물던 곳이다. 만족을 아는 신들이 모여 있는 곳이며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세상에 오기 전까지 머물고 있는 곳이다. 다섯 번째 '천국' 화락천은 창조하고 기뻐하는 신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천국'이 바로 타화자재천이다.

마왕과 부처님의 필연적인 대결

타인의 감각과 쾌락을 자유자재로 소유함으로써 유지되는 타화자재천의 왕이자 신인 마왕 파순이 부처님의 마지막 적이 되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것이 확실해지자 마왕 파순은 크게 괴로움을 느낀다.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타화자재천왕으로써는 이런 감각을 이겨낼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른 성인이 출현하는 것이 썩 반가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무릇 안티가 있어야 주인공이 더 돋보이는 법이 아니던가. 도리천의 주인은 제석천왕을 비롯하여 욕계의 모든 하늘들이 부처님을 보호했던 것과 달리 타화재천왕인 마왕 파순은 자식까지 동원해 부처님을 집요하게 방해한다.



조민기 작가 · 칼럼니스트

셔터를 누르니 어느새 새는 부처가 되었네

'나는 산새처럼 살고 싶다' 펴낸 도연 스님



나는 산새처럼 살고 싶다
글 · 그림 · 사진 도연 스님
중앙북스
1만 3800원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새가 되기를 꿈꾼다. 푸른 창공을 나는 새를 동경한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다. 한 스님은 새와 수행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적어 책을 펴냈다.

〈나는 산새처럼 살고 싶다〉를 펴낸 도연 스님은 "새들은 내게 소중한 도반이며 부처이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도연 스님을 두루미를 주로 찍는다고 해 '두루미 스님', 혹은 지장산 골짜기에 컨테이너 토굴에서 홀로 수행을 한다고 하여 '컨테이너 스님'이라고도 부른다.

스님은 카메라를 목탁 삼아 사는 자연주의자이다.

책은 도연 스님이 15년간 자연과 가장 가까운 철원DMZ(비무장지대) 지장산 골짜리 2평 남짓한 콘테이너에 머물며 산새들과 지낸 이야기를 담고 있다.

스님은 책장마다 곤줄박이, 박새, 딱새 등의 이야기를 통해 20그램이 채 되지 않는 작은 새들에게서도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삶의 소중한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한다. 둥지에 침입한 뱀과 사투를 벌이는 어미 새에게서는 사람보다 더 큰 모정을, 포식자의 침입을 알려주는 새에게서는 뜨거운 우정을, 애써 지은 둥지도 훌훌 버리고 떠나는 모습에서는 무소유의 미덕을, 먹이를 보채는 새끼 새들의 모습에서는 천진불(天眞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에게는 철새를 따라 천수만, 금강 하구, 순천만, 을숙도, 주남저수지, 우포늪 등에서 탐조가들과 함께 새를 촬영하는 것이 구도의 길과 같다.

도연 스님은 30여 년 전 모든 인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스스로 운수납자(雲水衲子)의 길을 택했다고 한다. 스님은 주저앉기 직전의 허름한 티코 자동차에 야영텐트 하나, 코펠 하나, 침낭 하나와 승복 한 벌을 싣고 세상 속으로의 만행을 하고 있다. 낮에는 탁발을 하고 밤에는 숲 속에 텐트를 친다. 온 천지가 스님의 도량이고 식물과 곤충, 야생동물은 스님의 도반이었다.



스님의 사진 경력은 14살부터 시작됐다. 도연 스님에게는 목탁보다 카메라가 익숙하다. 스님이 렌즈에 담은 새들은 이미 새가 아니다. 부처요, 보살이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새들은 청안안락한 풍경의 주인공이 되어 렌즈에 담겼다.

도연 스님은 다시 태어나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다. 새는 자유롭고, 철이 지나면 애써 지은 둥지도 훌훌 버리고 떠날 정도로 욕심이 없으며, 날기 위해 뼛속까지 비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란다.

도연 스님은 "12시간 동안이나 같은 자리를 지키는 수리부엉이를 보면 부엉이야말로 인욕정진(忍辱精進)의 표상이요,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하고 있다"며 "부엉이를 스승이자 부처로 심장부에 영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부처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우리 주변 새들의 모습에서도 늘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도연 스님이 15년 새들과 함께 하고 얻은 공부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26인의 수행자로부터 배우는 인생공부



인생을 낭비한 죄
박원자 지음
웅진뜰 펴냄
1만 3000원

몸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만 먹고 철저한 무소유를 원칙으로 삼는 스님들의 생활은 수행자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지붕 뚫린 토굴에서 비가 새자 우산을 써가며 책상 앞에서 밤을 새워 '무아(無我)' 두 글자를 썼다던 청화 스님, 일흔이 넘어서도 홀로 토굴에서 정진하며 한겨울에도 찬물을 머리에 부어가며 정진에 정진을 거듭한 대천 스님, 일평생 산문 밖을 나오지 않고 엄하게 계율을 지니고 철저하게 수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내 일생의 실패작[一生敗闕]'이라는 글을 남긴 한암 스님 등. 여러 고승대덕의 삶을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숙연해진다.

20여 년간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에서 은둔수행자까지 수많은 수행자들을 만나 인터뷰한 저자 박원자는 그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를 물었다.

혜국 · 성철 · 숭산 · 설정 · 성수 · 월암 스님 등 26인의 수행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잠시 일을 멈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인생의 시나리오는 가지고 태어나죠. 보통 사람은 각본대로 연출하고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불교는 시나리오를 새로 쓸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혹시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수행을 하려는 마음만은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이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뼈 속에 사무치도록 노력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저자가 인터뷰한 수행자들은 한국불교사에서 한 획을 그은 큰스님에서부터 스님들 사이에서도 회자될 만큼 독하게 수행한다는 스님이다.

치열하게 살아온 수행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리고 저자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준다.

저자 박원자는 인생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했던 스물세 살 때 불교와 처음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다.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많은 수행자들을 만나 취재하고 그분들의 삶을 그린 글을 월간 〈해인〉에 기고했다. '불교입문에서 성불까지'를 슬로건으로 한 인터넷 사이버 도량 금강카페(cafe.daum.net/vajra) 운영자로 활동하며 수행에 대한 글을 쓰고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6~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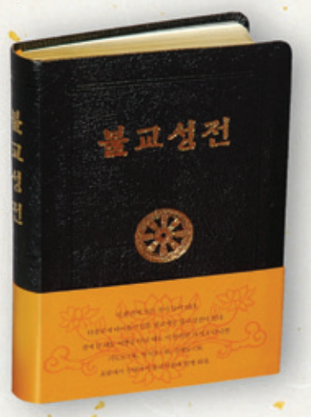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망설일 것 없네 당장 부처로 살게나	도법	불광출판사
3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	서광	불광출판사
4	죽어야 나를 보리라	대행	한마음출판사
5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안성두 외	운주사
6	엄마수업	법륜	휴
7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8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기후	이자리
9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10	소설 선	고은	김영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 · 음반총판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만 인류가 써도 써도
다함이 없는 보물창고!
불교성전

이 한권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절에 갈 때도 여행을 다닐 때도 이 한권만 가지고 다니면
기도도 OK, 독서도 OK, 수행도 OK.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교성전과 함께 하라.
타종교에 바이블이 있듯
불교에는 불교성전이 있다.
"진정 목숨 바쳐 돌아가
의지할 곳이다."
_여천 무비

황산스님 편저 / A5 / 1,103쪽 /25,000원
맑은소리맑은나라

산사에서 들려주는 기후스님의 이야기 보따리
네가 던진 돌은 네가 꺼내라

미래에 불행이 닥칠 때까지 지레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굳은 신념과 큰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한 지혜는 오직 자신을 살피는 깊은 선정력과 따듯한 사유에서만 나온다. 참 지혜는 언제나 촉촉한 것이다.
지금 이순간, 그대가 꺼내야 할 돌은 무엇인가?
기후스님 / A5 / 312쪽 / 13,000원 / 이자리

서적 · 음반 구매에 관한
모든 문의는 (주)운주사
(02) 3672-7181
www.unjusa.com



천불천탑 180×720㎝ (2011년 作)

내게 판각은 구도의 길

개인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성료한 조향숙 작가



누구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다.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11월 28일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To Find Lost Time)'를 주제로 홍익대 미술대학 박사학위 청구전을 열었던 조향숙 판화가도 마찬가지이다.

조향숙 작가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미풍처럼 일다가 돌풍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천리 밖을 오락가락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지난 시간에서의 기억들이 내 보물창고 속에 쌓여있다"고 말한다.

조 작가의 창고 속에는 부처도 살고 앵무새도 살고 있다. 새장 속에 갇힌 참새와 종이배가 있으며 자유를 찾아 말을 타고 달리는 여인도, 구름도 있다. 이러한 기억의 편린들을 조향숙 작가는 목판에 새겼다. 날듯 말듯 한 기억들을 컬러와 흑백의 대비로 표현했다. 그래서 조향숙 작가의 작품 한 쪽은 화려한 색채 이미지로, 다른 면은 흑백의 목판 산수화로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조 작가는 회화를 전공했다. 석탑 불상 산사의 풍경을 그려 온 그는 특히 관세음보살상을 그리며 새로운 기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그런 조향숙 작가가 새롭게 도전한 것이 이번에 전시했던 목판화 작업. 조 작가는 전시회에서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고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향수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목판작업은 어떤 색채나 형상을 중첩 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목판을 깎아 내면서 형상을 찾아 찍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행자가 하나씩 잡념을 소멸해 도(道)를 구하는 것 같아 저는 판각 작업에 더욱 몰두 하게 되죠."

조향숙 작가의 판화 주제는 종교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이다. 불교의 천불천탑과 불상, 또는 동양화의 관념 산수와 청록산수, 그리고 반라의 누드 여인과 질주하는 말, 반복적 꽃 형상과 앵무새 등 의외의 대상들이 만나 데페이즈망(어떤 물건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그 물건으로부터 실용적인 성격을 배제하여 물체끼리의 기이한 만남을 현출시키는 기법)으로 표현된다.

유재길 홍익대 교수는 조 작가의 작품에 대해 "그의 작품은 선사상의 철학적 주제와 인간의 욕망, 사물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 교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왜곡과 사실의 리얼리티 작업으로 이중적 의미가 공존한다. 천불천탑과 불상, 부처의 형상, 뱀과 꽃, 반라의 여인과 화려한 문양이 혼재된 시공간의 영역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조 작가는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 했다.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을 때의 추억이 깊게 자리 잡았는지 불교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더라구요. 이것저것 다양한 작품 시도를 하면서도 부처님은 항상 그렸어요. 이번 전시도 부처님의 이미지를 통해 제 자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의 전시작품 대부분은 이등분으로 분할돼 있다. 악센트처럼 등장하는 앵무새는 과거와 현재, 또는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두 개의 세계를 연결시키며 나아가 비의도적으로 지나간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 현실적인 진부함에 충격을 주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다.

조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고 자성을 찾아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판화형식에 도전하고 판화의 복수성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anmail.net



'To find Lost Time' (2011년 作)

아니 이런! 전시장에 코끼리가?

불교조형미술가 이정윤의 트렁크 展

구두를 신은 코끼리들이 사막을 연상시키는 공간 속에서 이동하고 있다.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지만 코끼리들은 계속 이동한다. 홀로 남은 코끼리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편안하지 않은 모습이며 지쳐서 울고 있다. 먹먹한 마음에 시선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면 선글라스를 쓴 코끼리가 낙하산에 의지해 하늘을 날고 있다. 사막을 벗어나 자유롭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코끼리는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다. 활공비행하는 코끼리는 힘겹게 이동하는 땅 위의 코끼리들과 대비되며 허탈한 웃음을 유발한다.

불교조형미술가 이정윤(31) 작가는 11월 20~30일 삼청동 공아트스페이스 지하 3층 특별전시실에 코끼리들을 주제로 '하이힐' 시리즈와 '코끼리' 시리즈 연작을 선보인다.

이정윤 작가는 코끼리들을 통해 현대사회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자아와 현실상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전시장에는 커다란 코끼리 무리들이 가득하다. 일상에서 탈출하려 하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심리를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는 코끼리를 통해 보여준다.

공기조형물은 현대 도시인들의 복잡다단한 삶과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코끼리는 가벼운 풍선이 되어 영화 속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오르고 무리에서 이탈한다. 하늘을 나는 코끼리는 주류의 어떤 코끼리보다 자유를 만끽한다. 자신 앞에서 이동하는 코끼리의 뒷모습만 보는 코끼리에게 반전은 있을 수 없다.

'모두 같은 길을 가야한다고 누가 말하는가? 인생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어디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부제인 '트렁크' 또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에서의 벗어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이정윤 작가는 "코끼리라는 동물은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로 알고 있다. 이들이 탈출을 하는 것은 맹수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의미지만 탈출을 통해 이들은 자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정윤 작가의 코끼리 전은 2011년 8월 부산 송도바다미술제를 통해 바닷가에 선보이며 화제에 올랐다. 당시 여행을 떠났던 코끼리들이 결국 실내 전시장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02)730-1144



On the edge 341×200×200㎝ (2011년 作)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다문화 아트북 선뵈

천태종 명락사, 50여 점 전시

다문화사찰 천태종 서울 명락사에서 '북 아트(Book Art)' 전문과 과정을 수료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교육과정 중 만든 자신들만의 책을 선보였다.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 ·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는 11월 18~24일 서울 인사동 신상갤러리에서 북 아트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은 황춘금 씨의 '거미책', '하여여', '아씨방 일곱동무' 등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작품과 이들을 지도한 김영미 씨가 대표로 있는 프로젝트 그룹 '아름다운 북 아트'의 작품 등 50여 점이다.

북 아트 자격증 과정은 명락사가 관악구 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북 아트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개설한 것이다. 총 7명의 이수자 중 2명이 어린이 북 아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개막식에서 "부처님 가르침 중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생각하며 오갈 데 없던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보듬기 시작한 게 '명락빌리지'의 시작이었다"며 "이들이 한국을 좀 더 빠르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북 아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차 전시전은 12월 1~7일 부산 해운대 갤러리 몽마르뜨르에서 열린다. (02)889-7272 **노덕현 기자**

한국석조각 모두 모여

전국의 유명한 석 조각 작가들의 작품전시회인 '제12회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회원전'이 11월 30일까지 안산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석조각협의회(회장 박주부)의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들이 제작한 국내외 석조각 작품 68점이 전시된다. (041)932-0075 **노덕현 기자**

불교적 모티브로 마음 표현

한국불교미술協, 12월 29일까지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창균)가 12월 29일까지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마음 닦기' 전을 개최한다.

20회를 맞는 이번 전시에는 문명대(한국미술사연구소 소장), 김창균(동국대학교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교수), 강순형(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이상배(불교조각가), 박경귀(선불화공방) 등 41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통불교미술과 현대불교미술을 아우르는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창균 회장은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감정 등의 마음을 불교적 모티브로 정화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구현해 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설립 40주년을 맞은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역량 있는 작가와 불교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돼 1980년대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02)2260-8924 **이나은 기자**

야생보이차와 침향의 명가
錦原堂 다茶보普향香
다보향 침향(선향)
"제향(諸香)의 왕" 침향 - 순수한 천연향이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흡수하여 정화, 항균작용, 해충근접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집중을 필요로 하는 공부방, 서재, 연구실, 사무실.
■ 집안의 거실과 침실, 주방.
■ 독서실, 요가원, 수련원, 수행과, 기도실.
■ 환자들을 위한 병,의원, 한의원, 치료원.
■ 심신의 안정과 氣의 원활한 순환이 필요할 때.
침향(선향) ▷50,000원
야생보이차
야생보이차는 해발 1,200m이상 고산지대에서 높이가 2,5m이상 되는 야생교목에 직접 사람이 올라가 일일이 정성스럽게 잎을 채취하여 만든 아주 귀한 차입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검사와 정식통관, 검역절차를 거쳐 제품화된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병차 330g ▷99,000원
산차 50g ▷39,000원
산차 50g ▷ 38,000원 100g ▷ 65,000원 200g ▷110,000원
◇ 특 징 ◇
■ 야생보이차는 젊은 여성 - 체중조절과 피부미용.
■ 나이든 중년 여성 -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차고 변비가 있을 때 속이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
■ 직장인 - 잦은 술자리 회식 등의 숙취 해소에 도움.
■ 학생 등 - 머리를 맑게 해 줍니다.
판매원 : 마하몰 02)732-1520 www.mahamall.co.kr
금원당 다보향 070-8758-8847 www.dabohyang.co.kr

낙엽 밟는 소리에 한 생각 그쳤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話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치되도록 경전인용과 일상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행론 강설
031)721-2148~9
무 아 선 원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창조하는
염불의 힘!
법공양시 특별 할인!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오룡골 백송(白松)의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
정목 지음 | 신국판 | 칼라 | 280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염불삼매 · 관불삼매를 성취한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일심정토 염불수행법
범어사 승가대학의 강사 소임을 역임한 정목 스님은 92년 전수염불 정진 중 염불삼매를 얻었으며, 96년 하안거 정진 중에 관불삼매를 체험했다. 한국정토학회 이사로서 염불수행과 원효사상 보급에 앞장서 온 스님은 2004년 경남 양산 오룡골에 정토원(055-375-5844)을 설립, 다음카페 '아미타파(cafe.daum.net/amitapa)'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염불 수행자들을 온-오프 라인을 통해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불조정맥 3개국어판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게(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편찬, 의역하였다.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하여 세계인들이 불법의 정수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독룡이 살았던 연못엔 부처님 그림자가 늘 비치고

⑳ 울진 불영사(佛影寺)

꼬불꼬불 고갯길이 힘겨워질 때 쯤 일주문이 나타났다. 들판의 벼를 베어내듯 날 선 바람이 숲에 걸린 마른 잎들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깊은 겨울에 오고 싶었던 절, 불영사. 꼬박 이틀 쯤 내린 흰 눈이 도량을 덮고, 그 그림자 비친 은빛 연못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다. 바라는 인연은 늘 쉽지 않다. 서쪽 산마루에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법회를 열고 있다. 바위 모양이 영락없다.

불영사는 651년(진덕여왕 5) 의상 스님이 창건했다. 후에 의상 스님은 다시 돌아와 9년 쯤 머물렀다. 원효 스님도 여러 해를 함께 살았다고 한다. 여러 차례 중수와 중건을 거쳤고, 임진왜란 때는 영산전만 남기고 도량이 모두 소실됐다. 1701년(숙종 27) 진성 스님이 중수했고, 1721년 천옥 스님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못에 차가운 물결이 인다. 아주 먼 옛날 이곳엔 독룡이 살았다. 절터임을 알아본 의상 스님은 사나운 독룡들을 조복시키고 이곳에 절을 지었다. 다섯 분의 부처님이 나타나 불사를 축하했다. 이때 연못에 부처님의 모습이 비쳤으니 절 이름이 불영사다. 절들의 창건 이야기들은 대부분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다. 하지만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보다 더 필요할 때도 있다. 마주 앉은 마음이 천 년 전의 이야기보다 더 먼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새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벌레 한 마리를 물었다. 우주 하나가 사라졌다. 불영사 연못엔 늘 부처님의 그림자가 있다. 서산마루에서 법회를 여는 부처님이 늘 연못에 비친다. 불영사 연못은 법당이다. 오늘 밤엔 달빛 아래서 법회가 열린다. 눈이 내리는 날엔 은빛 하늘 속에서 법회가 열릴 것이다. 그 날 다시 오고 싶다. 연못 속에서 믿을 수 없는 그 천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불영사 연못 앞에 서 볼 일이다. 사라지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 같기 때문이다.

연못 옆에 모신 부처님이 멀리 천축산을 바라본다. 앙상해진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바람이 오가고, 연못 위 빛바랜 연잎들이 눈을 감는다. 해가 기울고 서산마루에서 다시 부처님의 설법이 들려온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ƒ × 34㎝



육각초 7.0ƒ × 34



연화 大 9.5ƒ × 11㎝, 연화 中 9ƒ × 10㎝, 연화 小 7ƒ × 6.5㎝



밀납연화 小 7ƒ × 6.5㎝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백목향,목향





향수림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기반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정지천 교수의 건강칼럼

의지가 강하면 삿됨이 침범 못한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감기나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감염성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免疫) 기능이나 항병력(抗病力)이 강해야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정기(正氣)'가 강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을 '사기(邪氣)'라고 하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해당한다. 몸에 사기가 들어오면 맞서 싸우는 것이 '위기(衛氣)'이다. 위기가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겠는데, '정기(正氣)' 중의 하나다. 그러므로 사기가 침범해 들어오는 곳은 반드시 정기가 허약한 상태이다.

여러 원인에 의해 정기가 허약해지게 되면 밖으로부터 사기가 쉽게 침입할 수 있고 또한 몸속에서 습(濕), 담(痰), 열(熱), 어혈(瘀血) 등의 사기가 생겨나서 온갖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반면에 정기가 충실하면 어떤 사기라도 방어할 수 있거나 싸워서 이길 수 있으므로 '신종 플루'에도 걸리지 않는다.

면역 기능과 관계있는 장기는 폐(肺), 비(脾), 신(腎)이다. 폐의 기는 위기와 상통하고, 비장의 기는 영양을 공급하여 기(氣)와 혈(血)이 생성한다. 폐, 비, 신장의 기가 허약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신장의 기가 가장 중요하다.

정기를 강하게 하는 비결은 첫째, 강한 정기를 타고나면 된다. 신장의 정기는 우리 몸의 정기의 근본으로서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만약 부모의 신장 기운이 약하면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아 신장의 기가 허약한 체질이 되어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조로(早老)하기 쉽다.

둘째, 양생법(養生法)을 잘 지켜야 한다. 양생법이란 무병장수를 위한 생활건강법으로서 음식 운동 정신 성생활 수면 휴식 노동 환경 계절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다. 기본은 규칙적인 생활에 과로, 과음하지 않으며 꾸준히 운동하고 아울러 마음을 잘 다스려 정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정신력이 강해야 한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으로 유명한 조헌(趙憲; 1544~1592) 선생은 역병(疫病 : 염병, 돌림병, 요즘의 급성 전염병)이 극심하여 10명 중에 7~8명이 죽어나간다는 곳으로 귀양을 갔다. 동행했던 아우와 아들이 역병에 걸리고, 아우는 목숨마저 잃고 말았지만 자



신은 걸리지 않고 멀쩡했다. 이는 앞의 두 가지 외에도 임금 앞에 나아가 도끼를 들고 상소(上疏)를 올릴 정도로 왕성했던 '기(氣)'가 들어가는 것 같다. 주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강한 정기 앞에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침범하지 못한다고들 했다. 의지가 굳건하여 정기가 샘솟듯 솟아나므로 면역력이 엄청났던 것이다.

넷째, 정기를 보강하는 음식과 약을 먹는 것이다. 김치 된장 마늘 표고버섯을 비롯하여 인삼 황기 오미자 산수유 하수오 뽕나무 열매 더덕 등이다. 중국의 황제나 조선의 임금들이 자주 먹었던 떡도 비장의 기를 보충하여 면역기능을 높이는데 일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나라 황궁에는 '청궁팔선고(淸宮八珍糕)'가 있었다. 이는 인삼과 연밥을 비롯하여 약이면서 음식으로 먹는 마(山藥), 율무 등으로 이뤄졌다. 청궁팔선고는 기와 혈을 자양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여 습기를 없애준다. 만성적으로 허약한 환자가 오래 먹으면 질병에 대항하는 항병력이 증강되고 정기가 충족되고, 질병이 없는 사람이 장기 복용하면 건강이 유지되고 노화가 억제된다고 했다. 특히 건륭황제는 떡을 좋아해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일부 약재를 변경해 '건륭팔진고(乾隆八珍糕)'를 만들어 매일 4개 이상을 먹었다. 89세까지 살아서 중국의 역대 황제 가운데 가장 장수했다.

조선의 궁중에도 이와 비슷한 '구선왕도고(九仙王道糕)'가 있었는데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전한다. 실험연구에 의하면 면역기능을 증가시키고 비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동국대 분당한방병원

불교와 한의학 2.법화경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모든 약초들의 왕, 약왕보살

〈법화경〉 제23장의 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은 현생인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약왕보살'로 일컬어지는 보살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이다. 약왕보살은 일월정명덕(日月淨明德) 부처님 시대에 일체중생희견보살(一切衆生喜見菩薩)로서 수행했다. 일체중생희견이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좋아하여 만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보살의 현생과 전생의 명칭에서 이 보살의 본질과 특성을 알 수 있으니, 현생의 '약왕보살'은 모든 약초들의 왕이 된다는 보살의 본질을, 전생의 '일체중생희견보살'은 남녀노소 부귀빈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함으로써 모든 중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보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일체중생희견보살은 여러 수행법 가운데에서도 특히 고행(苦行)을 즐겨 익혔고, 일월정명덕 부처님의 법을 일심으로 수행해 마침내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를 얻었다. 현일체색신삼매는 자신의 육신을 더 이상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양한 화신(化身)을 통해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중생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된 경지를 말한다. 이는 약초를 캐어 와서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르거나 필요치 않은 부분을 도려내고 말리고 굽고 찌고 볶은 다음 다시 가루로 만들거나 물에 넣어 달임으로써 환자의 병을 치유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공해 마침내 약(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애초에 생명을 갖고 있던 약초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생명이 앗기고 육신이 헤쳐지는 고행이 아닐 수 없고, 중생을 이롭게 하리라는 서원과 생사를 초월한 삼매가 없고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보살은 이러한 삼매를 얻은 것을 매우 기뻐하여 흰 연꽃과 검은 전단향 등을 허공 가득히 내려오도록 해 일월정명덕 부처님께 공양했다. 꽃과 향으로 공양을 마친 후에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마침내 신통력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써 직접 부처님께 공양할 것을 결심했다. 그리하여 1200년 동안 여러 향과 향유를 먹고 마시며 몸에 바른 후 부처님 앞에서 신통력의 서원으로 스스로 발화했다. 그 밝은 광명이 80억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세계를 비췄으며, 1200년이 지나서야 다 소진됐다. 약초가 온갖 모습의 약으로 현현함으로써 이미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큰 역할을 했는데, 보살은 또 다시 자신의 몸을 불살라 무엇을 이루고자 한 것인가?

보살은 병증을 치유하는 일회성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잘 살라질 수 있는 기름에 가깝도록 오랜 시간 자신의 몸을 단련했다. 그런 후 중생의 몸속에서 스스로를 사름으로써 중생의 생리 체계 내의 불로서, 중생의 정신의 광명으로서 그 변화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 것이다. 불은 모든 사물의 변화를 추동하는데, 특히 사물을 분화 발달시킴으로써 마침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매개한다. 한의학에서는 인체 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불을 '돕는 불'이라는 뜻의 상화(相火)라고 일컬으며, 상화의 작용을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을 삼초(三焦)라고 한다. 삼초의 초(焦)도 '태운다'는 뜻이니, 인체가 받아들인 음식물과 공기를 상화의 불로써 적절하게 가공해 인체에 필요한 기(氣) 혈(血) 진액(津液) 정(精) 신(神) 등 보다 정련된 구성요소들로 바꾸는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

반면에 군화(君火)는 심장이 지닌 선천의 불로서 인체에 불의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되며, 특히 변화무쌍한 정신작용을 주관한다. 정신의 광명은 각자의 태어나면서부터의 소명을 수행하도록 하여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로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든지, 소년은 쉽게 늙는데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든지 하는 말들이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무한한 존재로 전환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약왕보살의 전생인 일체중생희견보살은 바로 중생의 몸과 정신에서 보다 더 나은 존재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불과 광명의 역할을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과 2011년 사미니였던 석진(명문)의 뒤이은 소신공양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소신공양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



류정아(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술연구교수)

정운 스님의 사색과 명상 〈11〉

영원한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다

어떤 사업가가 우연히 시골 마을을 지나던 중 어부를 만났다. 그 어부는 느긋하게 낚시대를 드리워 놓고 쉬고 있었는데, 사업가가 보기에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 같지 않았다. 사업가가 어부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 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오늘 필요한 고기는 다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이상하군요. 당신은 아직도 일할 수 있는데, 설령 필요한 만큼 잡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쉬지 말고 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부자가 되잖아요."

"힘들게 일해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 다음, 그 다음은 무얼 합니까?"

"그때는 느긋하게 쉬면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도 느긋하게 여생을 쉬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동물의 영역표시 불필요한 이기심은 내려 놓아야

사업가의 말대로, 그가 과연 부자가 된 다음 남은 생을 편안히 쉬면서 보낼 수 있을까? 사람들마다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업가는 죽을 때까지 돈 버는 일만 궁리하고 애착하다 이 세상을 떠날 것 같다.

일반인의 삶을 들여다보자. 젊은 학생들은 오로지 대입합격을 목표로 19세까지 학교 교실 안에서 지낸다. 대학에 들어가면 상아탑 같은 학문의 터전이 아니라 오로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학생들 과제물을 읽다보면 저학년인데도 대학생으로서 누리는 젊음은 없고, 스펙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다. 대학생 대부분이 자신만 스펙을 쌓지 못하면 뒤쳐진 것이라 생각하고 불안해한다.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그때부터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다. 팀장이 되려고 기를 쓰고, 팀장을 하면 과장을 원하고, 더 나아가 부장 자리를 원한다. 40대에 부장 자리에 앉으면 이때부터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 때문에 불안해 하고, 언제 명예퇴직 당할지 몰라 전전 긍긍 좌불안석이다.

도태되지 않기 위한 인간의 삶은 마치 동물들의 영역 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의 삶의 영역보다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려 하고, 자신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 삶의 무게가 버겁다고 불평하면서 내려놓지 않고 계속 짊어지고 있다. 서글픈 이야기지만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이다.

무한 경쟁시대에 놓인 현대인들의 삶은 마음 한 켠 쉴 곳이 없고, 늘 쫓기듯 살고 있다. 불완전한 삶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불확실한 갈망으로 유토피아를 원하지만 이상세계는 저 멀리 있다. 그러나 조용히 사색해보자. 현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고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다. 지금 쉬지 못하는데 몇 년 후에 유토피아 세계가 올 것인가.

인간은 욕심으로 스트레스를 쌓고, 그 스트레스로 수많은 질병을 몸에서 키운다. 의학적으로도 암은 유전보다는 후천적인데서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일반 사람보다는 프로 축구·야구선수들이 단명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남들보다 좋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병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불유교경〉에 이런 말이 전한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다고 신세 한탄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문제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심을 아래로 내려놓자. 인간으로서 진취적인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허둥대는 인간의 이기심,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쉼, 명상은 현대인들에게 끊임없는 갈망에 대한 멈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명상이라는 단어는 '치유한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음속에서 좋지 못한 생각이나 감정 등을 한곳으로 모아 집중시켜, (마음의) 안정과 (육신의) 치유를 위한 에너지로 바꾸어 나가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각해보는 것도 행복한 길로 접어드는 것이요, 수행 길이 될 수 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 계속 미루게 되면 죽을 때까지 못하게 된다. 마음 치유를 위한 쉼(명상)은 내일하고, 모레부터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현재부터 실천해보는 일이다.



정운 스님(조계종 교수아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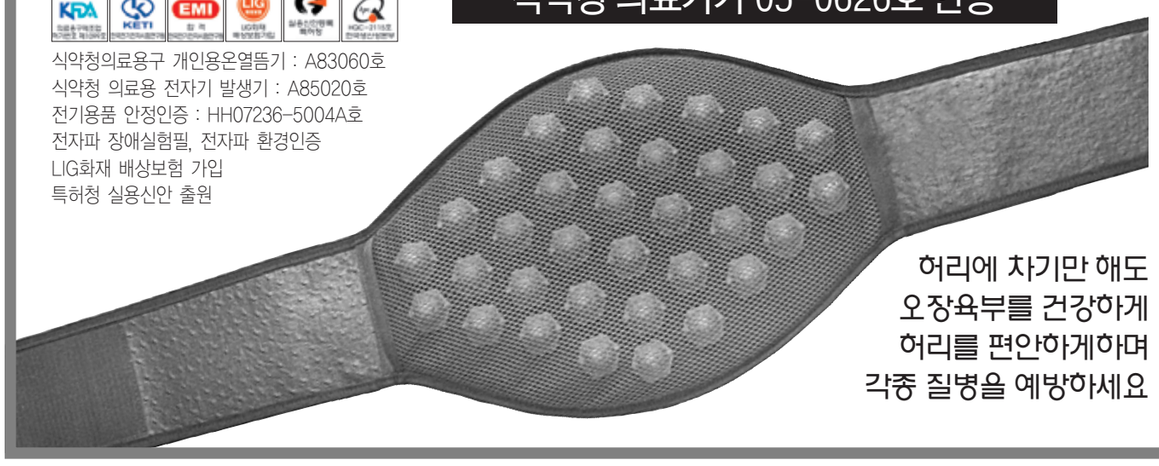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NEW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무료!!)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피로를 풀어주는 능인라벤더 향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15,000원 규격 : 약 14cm(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마한은 어디에 있었고 주체는 누구였을까 ?

일연은 마한을 고구려 땅으로 여겨

1. 마한의 위치와 주체

한국고대사에서 한(韓)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남아 있다. 고조선 이후 '한후'(韓候)로 명명된 기준(箕準)왕이 세운 한씨(韓氏)조선과 한(韓)은 분명히 다른 민족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국사학자들은 기준(箕準)이 세운 한씨조선과 한(韓)민족을 동일시하려는 이들이 있다. 일연의 〈삼국유사〉 찬술(1281) 직후 같은 충렬왕 때에 간행된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의하면 한반도와 만주지역에는 한(三韓)·부여·비류·신라·고구려·남옥저·북옥저·예·맥 등의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이승휴는 〈제왕운기〉의 '전조선기(前朝鮮記)'에서 이들 나라 모두를 고조선의 통치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왕운기〉의 '한사군급열국기(漢四郡及列國記)'에서는 이 나라들을 모두 단군(壇君, 〈삼국유사〉)의 후손으로 적고 있다.

이승휴의 주장은 〈시경〉(詩經) '한혁(韓奕)' 편과 동한시대의 왕부(王符)의 〈잠부론〉(潛夫論)에 나오는 '한후'(韓侯)와 '한(韓)의 성'(城)에 대한 기록에 의해 좀 더 분명해진다. 특히 왕부는 "옛날 (서)주의 선왕(宣王) 때에 또한 한후(韓侯)가 있었으

한(韓)의 위치 여전히 논란

일연, 고구려 영토 연관 주장

니 그 나라는 연(燕)나라에서 가까웠다"고 한 뒤 "그 뒤 서쪽에서도 또한 성(姓)을 한(韓)이라 하였는데 위만(衛滿)에게 공벌(攻伐)당하게 되어 해중으로 옮겨가 살았다"고 했다. 왕부는 서주 왕실과 동성인 '희성'(姬姓)으로서 한(韓)나라 제후였던 환숙(桓叔)의 후손(韓씨·言씨·嬰씨·禍餘씨·公族씨·張씨 등)이었던 한씨(韓氏)와 다른 또 하나의 한후(韓侯)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연(燕)나라와 가까웠다는 것이다. 환숙의 후손이었던 한(韓)은 지금의 섬서성(陝西省)에 있었던 서주의 제후국이었으며 그 군주 역시 한후(韓侯)였다. 때문에 〈시경〉 '한후' 편의 한후는 연(燕)나라와 가까이 있었던 기준(箕準)왕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연나라는 지금의 천진(天津)시와 접해있는 발해만(渤海灣)으로부터 동쪽에 자리한 갈석산(碣石山) 사이에 걸쳐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씨조선은 기자의 후손인 기준왕이 위만(衛滿)에 밀려 무리 수천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가)로 들어가 한(韓)의 땅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일컬었던 곳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한후(韓侯)의 나라는 중국의 동북쪽에 자리한 지금의 북경 가까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나라 군사들은 연나라 국경선 가까이 있는 한후의 나라 사이에 연장성(燕長城)을 쌓았고, 이 성을 〈시경〉 '한혁' 편에서는 '한의 성'(韓城)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준왕이 다스렸던 기자조선의 후신인 한씨조선은 고조선 서쪽 변경인 난하(灤河) 유역에 있었으며 지금의 요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왕부가 말하는 한후의 나라는 기자조선 이전부터 그 동쪽에 있었던 고조선이었다. 때문에 여기서 한후(韓侯)는 고조선의 최고 통치자인 단군(壇君)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韓, 三韓)은 바로 단군조선이 해체된 이후 그 후예들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였다.

한(韓)은 이후에 마한과 진한과 변한으로 나뉘어졌다. 삼한은 한반도 바깥 만주지역의 요서와 요동 지역에 있었다. 고조선이 해체된 뒤 그 후예들은 부여와 고구려 및 진국(辰國) 등으로 흩어져 살았다. 진국은 〈후한서〉 '동이열전' 〈한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의 요동(遼東)지역에 자리해 있었다. 〈위략〉에서 위만조선의 우거왕 때 "조선상(朝鮮相) 역계경(歷谿卿)이 우거(右渠)에게 간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동쪽의 진국(辰國)으로 갔다"고 적은 것처럼 서쪽 난하(灤河) 유역에 있었던 위만조선에서 볼 때 진국은 동쪽에 자리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진국 사람들은 한(韓)의 지배층이 되어 고조선으로부터 내려온 앞선 문명을 한인(韓人)들에게 계승시켰다. 최치원의 지적처럼 마한이 고구려라면 고조선의 해체 이후 그 유민들이 진국을 거쳐 한(韓)으로 이어졌음이 분명하다. 동시에 마한은 고구려의 무대였던 요동지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연(一然) 역시 마한을 "지금 사람들이 혹시 (익산 지역의) 금마산으로 인해 백제라고 한 것은 대개 잘못된 것이다. 고구려에 본래 마읍산(馬邑山)이 있었으므로 마한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그리고 북부여에서 갈려나와 졸본부여를 거쳐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은 당시에 마한을 아우르며 새롭게 도약을 시작했다.

2. 동이의 여러 나라

'동이'(東夷)란 명칭은 중국 고대의 화이론(華夷論)에 의거해서 부르는 명칭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夷)란 활을 잘 쏘는 주몽(朱蒙)이란 뜻 이외에도 '군자'(君子)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런데 이(夷)에는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을 통칭하는 사이(四夷), 〈후한서〉의 견이(畎夷)·어이(於夷)·방이(方夷)황이(黃夷)·백이(白夷)·적이(赤夷)·현이(玄夷)·풍이(風夷)·양이(陽夷)의 구이(九夷), '이아'(爾雅)「이순」(李巡)의 현토(玄菟)·낙랑(樂浪)·고려(高麗)·만식(滿飾)·부유(鳧臾)·색가(索家)·동도(東屠)·왜인(倭人)·천비(天鄙)의 구이(九夷)가 있다. 또 구한(九韓)과 예맥(濊貊) 뿐만 아니라 "〈주례〉(周禮)에서 직방씨(職方氏)가 사이와 구맥(九貊)을 관장했는데 구맥은 동이의 종족이니 구이를 일컫는 말이다"고 한 것처럼 구맥도 있다. 여기서 아홉 개의 한(韓)이나 아홉 개의 맥(貊)은 모두 고조선 해체 이후 흩어져 살았던 유민들과 그 거수국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 회남왕 유안(劉安)이 지은 〈회남자〉(淮南子, 21권)의 주석에는 동방의 이(夷)는 아홉 종이나 된다고 했다. 위나라 하안(何晏)이 지은 〈논어정의〉(論語精義)에는 구이를 현토, 낙랑, 고려, 만식, 부유(鳧臾, 夫餘), 소가(素家), 동도, 왜인, 천비(天鄙)라 했다. 또 신라의 고승이었던 안홍(安弘)이 찬술한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 海

구맥·구이, 고조선 유민 지칭

아홉 곳 위치 대체적 유사

東安弘記〉)에는 구한을 일본, 중화(中華), 오월(吳越), 탁라(毛羅, 耽羅), 응유(鷹遊), 말갈(靺鞨), 단국(丹國), 여진(女眞), 예맥이라 했다. 여러 기록들을 검토해 보면 시대에 따라 표기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홉 곳이 자리했던 그 지역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비정이 조금만 다를 뿐 대체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이들은 고조선이 해체된 이후 유민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가서 지배했던 나라들이거나 고조선의 거수국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동이의 여러 나라들은 고조선의 앞선 문명을 흡수하면서 살아왔다. 고조선의 지배자인 단군(壇君)을 한후(韓侯)라고 한 것은 중국이 만리장성 바깥의 만주 전역과 한반도를 '조선'이라고 일컬은 것과 상통한다. 이 지역에서는 통치자를 한(汗, Han) 혹은 칸(干, Khan, 可汗, Kahan)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한자로 적은 표기가 한(韓)이다. 단군은 고조선의 통치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단군'의 표기가 '단군'(壇君, 〈삼국유사〉)과 '단군'(檀君, 〈제왕운기〉) 두 가지임을 통해 이 명칭이 한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순수한 토착어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단군'은 비슷한 소리의 한자로 표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하늘을 받드는 천군(天君)이자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다. 해서 단군은 중국의 천자(天子)와 같이 종교적 의미를 지닌 칭호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고조선에서도 통치자를 '한'이라 불렀을 것이다. '단군'이 종교적 지도자다면, '한'이 정치적 지배자를 일컫는 칭호였다. 종교가 정치보다 우위에 있었던 고대사회였던 점을 감안하면 고조선에서는 '단군'이란 호칭이 '한'이라는 호칭보다 더 권위를 지녔을 것이다. 이 때문에 고조선 내에서는 '한'보다는 '단군'이라고 불렀을 것으로 이해된다. 고조선의 '단군'은 중국의 천자에 대응하는 호칭이었다. 반면 '한'(韓)은 왕 또는 황제에 대응하는 호칭이었다. 때문에 고조선 해체 이후 그 유민들에 의해 통치되거나 거수국에서 독립한 '한'(韓)은 '단군'조선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한민족의 동질감을 만들어 나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3. 삼한과 원삼국

고조선 해체 이후 그 거수국이었던 한(韓)은 고조선의 단군들에 의해 한동안 지배를 받았을 것이다. 한(韓)은 기자조선을 밀어낸 위만조선과 그를 밀어낸 한사군과 충돌하면서 점차 요서지역에서 요동지역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한(韓)은 부여족·고구려족·예족·맥족 등과 경쟁하면서 고조선 이래의 한민족의 정통성을 견지해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한은 마한과 진한과 변한의 삼한으로 갈려나갔다. 이후 삼한은 제 각기 독립적으로 국가를 경영해 나갔다. 그 중에서도 요서와 요동을 넘나들며 고조선의 정체성을 이어갔던 마한은 고구려족으로 이어지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갔다. 〈통전〉에는 "조선의 유민이 70여 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지방이 100리였다"고 했다. 또 일연은 "백제 온조왕의 말에는 동쪽에 낙랑이 있고, 북쪽에 말갈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아마 예전 한나라 때의 낙랑군 속현(屬縣)의 땅일 것이다"고 했다. 이 때의 낙랑은 난하(灤河) 이동의 요서지역에 설치되었던 낙랑이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일연은 평양 주위로 보고 있는 듯하다.

최치원은 "마한은 고구려고 진한은 신라"라고 했다. 그리고 "변한은 백제"라고 했다. 그런데 〈후한서〉에는 "변한은 남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고, 진한은 동쪽에 있었다"고 했다. 반면 송나라 구양수(歐陽脩)와 송기(宋祁) 등이 기술한 〈신당서〉와 후한 유구(劉昫) 등이 지은 〈구당서〉에는 "변한의 후손들이 낙랑땅에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연은 "〈당서〉에 변한의 후손들이 낙랑땅에 있었다고 함은 온조왕의 계통이 동명왕으로부터 나온 까닭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혹 어떤 사람이 낙랑 출신으로서 변한에 나라를 세우고, 마한



마한의 위치는 여전히 논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미술사학자 김원룡의 학설을 채택해 '원삼국실'을 마련하고 있다.

삼한,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주

분열 이후 삼한 독립적 국가 운영

등과 서로 대치한 일이 온조왕의 전에 있었던 것 같고, 도읍이 낙랑땅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마한은 한반도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서와 요동에 걸친 만주의 서쪽에 있었고, 그 동쪽에는 진한인 신라가, 그리고 그 남쪽에는 변한인 백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두루 알다시피 고조선의 해체 이후 부여와 고구려와 한(韓) 그리고 예와 맥 등은 진번·임둔·낙랑·현토의 한사군과 대립하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왔다. 이 정체성은 중국과 변별되는 지리적·문화적·정신적 배경 위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때문에 본연적이든 기질적이든 한민족의 문명은 중국 문명과는 그 기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한반도 대동강 유역에는 최리왕(崔理王)이 다스렸던 낙랑국(樂浪國)이 있었다. 이것은 종래 한사군의 낙랑군과 다른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랑국을 서한의 낙랑군과 혼동하여 많은 오해가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들의 조성연대가 한사군이 설치되었던 서한(西漢)시대가 아니라 동한(東漢)시대 이후로 밝혀졌다. 일본인들은 이 지역을 난하(灤河) 지역에 있었던 한사군의 낙랑군과 동일시하려고 했지만 발굴된 유적들은 그것과 다른 대동강 유역에 자리했던 '최리왕의 낙랑국' 유물이었다. 때문에 많은 오류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한사군의 낙랑군에 견강부회하여 자신들의 논의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고조선 이후에 그 유민들이 그 거수국이었던 한(韓)으로 흘러들었던 무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사서들이 비정하고 있는 위치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사서들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방위를 잡고 있느냐에 있다. 마한을 서쪽에 있다고 할 때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인지 궁금하다.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서쪽일까? 혹은 한국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서쪽일까? 아니면 고려의 선사였던 일연의 관점에서 볼 때 서쪽일까? 아직 합의하지 못한 여러 점들을 고려하여 미술사학자 김원룡은 고조선 해체 이후 신고백(新高百) 삼국의 건국 사이를 잠정적으로 '원삼국'(原三國)시대로 구분 비정했고 그의 학설을 채택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원삼국실'까지 마련돼 있다.

참고문헌

이홍직, 〈증보새국사 사전〉(백만사, 1937; 교학사, 1997)

이재호 역주, 〈삼국유사〉(솔, 1997)

윤내현, 〈고조선연구〉(일지사, 1994; 2004)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생생한 부처님 말씀을 읽자!

불교의 중요한 경전은
이 〈불교경전총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500질 한정판

불교경전총서 (전 22권) 완역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언어!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불자라면 〈불교경전총서〉 1질은 소장해야 합니다.



01. 화엄경 김지견 역/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9,500원
03. 묘법연화경 현해스님 역/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7,0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12,000원
06. 원각경·승만경 전해주·김호성 역/10,000원
07. 정토삼부경 한보광 역/9,500원
08. 범망경·지장경 일지 역/8,0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혜원 역/10,000원
10. 백유경 현각 역/8,000원
11. 부모은중경·우란분경·목련경·관음경 일지 역/7,0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8,500원
13. 아함경1 돈연 역/9,000원
14. 아함경2 돈연 역/9,000원
15. 법구경 석지현 역/9,0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10,000원
17. 밀린다왕문경1 동봉 역/12,000원
18. 밀린다왕문경2 이미령 역/12,000원
19. 본생경1 이미령 역/12,000원
20. 본생경2 이미령 역/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익·무관 역/7,000원
22. 해심밀경 묘주 역/10,000원

민족사 구입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E-mail.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전 22권 정가 214,000원 할인특가 185,000원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의식 의학

경북 상주시 외서면 이촌리 산 47번지 새절 의단원 054)535-987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부산무형문화재연수원(바라,작법무)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학 인 모 집
보유자 큰스님 직강
(범음범패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010-2563-5550 (속성반)
사찰행사 (천도재 산신대제 수륙대제)
영축사(사주영가찾는법 속성지도)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바라작법무연수원

범음범패 학인 모집

매주 화요일
• 오후 1시-3시(재의식) 무료지도
• 오후 3시-5시(기초과정) 무료지도
*사물, 바라, 나비무(별도지도)
대승불교염불원(경주 삼보사)
054)745-9822
010-4590-6366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전통의약비법전수(포교활동)

• 전수내용 : 악성관절염, 악성목허리 디스크, 악성골수염, 악성오십견, 갑상선 물혹, 편도종양 등으로 병원에서 완치가 어려운 분에게 해당 됩니다
•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유료)
• 무료치료 : 아픈스님께 무료보시합니다
010-6285-3703

달마상 황금용주도 만능부적

심안으로 그린 액운소멸 만사형통 달마상과 황금용주도 만능부적을 인연있는 분께 드립니다
시각장애 1급 소승을 시봉할 분 기다립니다
달마 010-9003-7783
혜주 011-9957-2660

역학기문둔갑 (명리)

상담 비법전수
- 영업하고자 하시는 분 (수강즉시 바로상담 책임지도)
- 역학 : 명리, 기문둔갑으로 영가지도. 병방론 지도
사주,신수,궁합,성명학
우울증,공포,빙의퇴마(직접상담)
묘불사 주지 직강
051)557-5075
010-2507-1042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마음이 갖가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이 된다
- 화엄경 -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수강생 모집

사주,궁합,택일, 성명학
사주학 초보에서 실전개업까지
최단기간 비법특강.
자격증 수여. 수강료 저렴.
수시접수
30년 전통 대한역학교육원
02)763-4566

신비의 약불기공 치유법

1. 전수회원 : 불자 남녀 누구나 가능
• 별도의 수련없이 주1회 4주완성
• 기에너지 발공 및 시술법
2. 체험회원 : 빙의,암,불면증,중풍,간경화, 악성피부염, 오십견,관절염 등 각종 난치성 질환 및 통증질환에 고통받는 분
원만한 증상 및 통증은 1회 체험만으로 즉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바람)
부산 금정구 남산동 55-31 한국약불기공연구원
010-4642-9672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영통철학 1개월 완성

비급전수로 1개월 만에
▷ 바로 상담가능
▷ 방문지도 가능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석사)
정광 합장
010-2586-7938

사찰처사 구합니다

운전 및 숙식가능하신분
(50대, 경기도 성남)
010-5264-8312

같이 더불어 사찰 운영하실 비구니

(30~40대) 스님 모십니다
공양주보살님도 모십니다
<경북 포항>
010-8510-0385

영적 기공치유

각종 난치성,상기증,우울증, 중풍, 파킨슨씨 불변증
의료기공 3주완성
기공사로부터 치유기공을 전수 받으면 누구나 치유사가 될수 있다
부산 안락동 태백정사
051)722-6426
011-9785-6426

상 담 안 내

여러분의 영적세계는 편안하십니까?
신통력으로 운명 예견
고민해결
전화상담 가능
대구은행 : 087-13-035968
010-2125-4684
(사주팔자)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청담, 경봉 큰스님 묵적 구입하실 분

010-9878-1282

자격증 취득안내

포교사,법사,종사,대종사, 대사
불교문화신문 참조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 법광
010-3368-6075

기도에 이런 일이

• 이 돌맹이(영통석)로 만든 단주나 구각봉을 손에 쥐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 전생의 업이 소멸되고 소원이 이루어 집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염불 참선 간경 설법에 능한 67세 운수납자

사암,선원,포교원
어떤 소임도 가합니다
010-8752-10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송파구)
010-6348-2572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불교 석가여래종
신한국불교조계종
불교 종단법인 총연합회
불교 법인단체 총연합회
우리불교 법인
대승불교 법인
011-412-8040 법광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대, 숙식제공
(제주 서귀포 구룡사)
064)762-63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안양, 보시금은 상담 후
상여금, 퇴직금, 개인방사 지급
031)471-5978

불교전통의식 무료수강

• 선착순 모집 :
1. 비구스님 5명,
2. 비구니스님 5명
3. 출가행자 3명 모집
모든 재의식 집전하여 드립니다
화엄선원 주지스님
055)323-3569

통증제거 기술교육

몸이 불편하신 스님들이나,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 스님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이 기술은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인데 배워서 방편으로 활용하신다면 사찰 운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개 강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5시
- 교육기간 : 2주
- 수 강 료 : 약간 (사찰에서 숙식을 하실 분은 숙식비 있음)
- 또한 일반 보살님, 법사님, 처사님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상담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본인을 초청하여 주신다면 어디든 찾아가서 실기 및 교육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원공 선사 019-305-9138 / 사무실 팔보사 051-466-0450. 070-8811-0450

빙의·귀신 퇴마법 전수

스님이 배우실분 특별우대 (100만원)
* 신병, 무병, 업병으로 인한 정신질환 우울증.
* 구병시식, 영가천도, 49재 영가장애 고통에 시달리는 분.
* 거듭실패로 되는 일이 없는 분, 불면증, 악몽, 이명, 가위눌림.
* 영가장애로 인한 고통 30년 빙의퇴치.
(www.jijangsw.com)
스님 퇴실분 (나이불문)
절에서 평생사실 분 / 장기요양
사찰등록 (토굴, 포교당, 작은암자도 환영, 분담금 없음)

30년 빙의치료 대가
(사)세계불교지정선원종 본찰 부처골 지장선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458-1 전화 054)383-8553 / 011-9585-4908

고(古)건물수리전문

신축건물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가 '사람불사', '인간불교'를 선언했습니다

■ 참좋은요양병원(영천)
■ 참좋은이서중·고등학교(청도)
남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 053)474-8228
남골당과 행자원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 (사찰순례,산사음악회) 등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 법보시 상담환영 〉
02)2236-7209, 010-8519-9279

포교원 인테리어 전문

간판. 썬팅
010-8678-4945

천도재 빙의퇴마

수시 접수 중
태중영가천도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선덕사
010-5685-2229
전화주시면 즉시상담

영남 범음 범패

49재,예수재, 천도재등
불공해 드립니다
011-9370-4043

빙의대화 퇴마

다양한 방법의 퇴마비법 전수
사주로 귀신 찾는 법
귀신병, 신병, 대화 및 치료법
전생을 통한 치료 및 빙의 찾는 법
인연되시는 몇분만
저렴한 보시금으로 모십니다
* 귀신병, 신병 치유도 해드립니다
010-5472-5928
031)666-7732 경담 합장

승복·전통복식 31년

www.kyksb.co.kr
김윤경승복·우리 옷
- 31년을 한결같이 전통복식 연구·보급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공장직영,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주요 품목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통복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고급 모직 장삼 195,000원 한정판매
-고급면(신제품) 적삼 150,000원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02-495-7779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903호
서 울 점 :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31 02-2265-2278
제 주 점 :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416-2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예금주 : 김윤경)

특강 영가 찾는 법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무료공개강좌 : 12월 1일(목) 14:00

- 조상(귀신)이 발동한 것을 아는 법 : 어느 조상에게 빌어야 하나? 대세운에서도 발동한 것을 찾는 법
- 기도를 하더라도 묶여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 가서 풀어야 된다.
- 본 법을 알면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수가 있다.
- 무속인 보다도 더 정확하게 뽑아낸다.
- 결혼하면 양가집 조상이 부딪히는 가정
-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속성반 : 대상 - 법당, 포교원, 철학관 운영자
1. 명리기초가 있는 분 - 1개월 완성
2. 명리기초가 없는 분 - 3개월 완성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 011-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우리은행)옆

정확도 효과성 제일

전국 교보·영풍·반디앤루니스·인터파크·알라딘·예스24에서 구입 가능

◆ 육임 학습서 ◆
· 효사육임강론 2011개정증보 제8판본 상·하 권 45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개정 제2판본 1권 5만원
· 효사육임요지 2011최신판 1권 이상3종 5만원

◆ 육임 활용서 ◆
· 도사에게 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제6판본 1권 좌정용 35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개정증보 3판본 순별6권 휴대용 3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좌정용 25만원
· 육임풍수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휴대용 25만원
· 오행수법제례의식집 2011개정 제5판본 1권 5만원
· 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제3판정련본 1권 5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1권 15만원 이상8종

◆ 육임 및 각 오행술 분개 CD프로그램 ◆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최종판 (종합) 500만원
· 효사육임산책 2011최신판 순별 전6권 수록 90만원
· 효사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월장별 전12권 수록 (대계전서) 7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2011정련 제5판본 1권 수록 20만원
· 효사일상생활감정법 2011정련 제5판본 1권수록 20만원
· 효사출산길일길시선택비법 2011정련 제3판본 1권수록 30만원
· 효사육임1년신수비결 2011개정증보 제2판본 순별6권 수록 30만원
· 매화역수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월영도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성명학 2011정련판 수록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2011정련판 수록 5만원
· 토정비결수록 5만원
· 꿈해몽 5만원
이상 13종

◆ 기 타 ◆
· 효사도정기 2011최신판 5만원
· 불가법요집 2011최신판 5만원

◆ 본사 직접판매 고가 육임활용서 및 활용 CD프로그램 목록 ◆
· 고귀명수 전통1권 / 전순별6권, B4 / A4, 미색모조 / 백색모조 중 선택 정가350만원
· 육임복변집 좌정용 전6권 정가250만원
· 육임산책 휴대용 전6권 정가250만원
· 효사활인천역집2011완결최종판 종합CD프로그램(무인증장착) 정가500만원 120만원
· 효사비결 CD 프로그램 육임일생/당면판단완성 정가650만원

[주문전화] 02)738-8680 / 070-7514-8680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301-778137 육임나라㈜
이미 최고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www.taotemple.net / 입금 후 다음날 수취함
육임컨텐츠개발전문 - 육임나라 [주]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20평
- 부지 : 62평
- 가액 : 17억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12억
- 바다가 보이는 경관 좋은곳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원효사상 깃든 천년고찰

- 총부지: 2,700평
- 전통법당 35평, 대종각
- 목조 요사채 및 산신각,주차장 500평
- 부산시내 아파트 대단지, 산세최고
- 총가액: 13억

창원 신도시

- 총부지 : 300평(가용 1,000평)
- 목재법당 25평, 요사채 2동
- 산신각, 수백년 역사의 당산
- 산세(백년노송 다수),바다전망 최고
- 총가액: 7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시 서면 서상리
- 대지 700평, 임야 150평
- 2층 기와법당, 29평 • 1층 요사채 25평
- 춘천 IC, 강촌IC에서 10~15분거리
- 명당 사찰
- 가액: 8억 2천만원 일시불

033)243-5003 / 010-9006-561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소재 (역에서 차편 약 20분)
- 대지: 도지 사용, 연 35만원
- 건물 : 1층독채 약 28평 개인등기 필
- 내용 : 법당, 방2,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교통 좋은 요지
- 법당 넓고 생활 편리함,현대식 시설
- 가액: 4천 5백만원(시설비포함)

010-7295-1259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산북면 사무소 10분거리
- 임야 : 8만 4천평
- 용도 : 大 사찰및 복지시설
- 차도와 붙어있음
- 평당 : 9천원

010-2563-1398

사찰(인법당)

- 위치: 부산 온천동 금정마을(11년차)
- 단층슬라브(62평,법당27평,방3 (전체보일러)
- 대웅전, 지장전, 산신, 칠성, 입구 약사석불, 5층석탑
- 공양간 27평(가건물) 별도, 입구방 5평(다락겸)
- 가액: 1억 6천만원(융자 6500별도)

011-842-612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 명석면 진주시내에서 10KM 거리
- 건물: 법당(목조, 토기와)20평 시멘트벽돌 슬래브 40평 38평 외 2동 (30평)
- 토지: 종교용지(850평)
- 임야: 4000여평 (수련원, 복지시설, 태양열 발전 납골당 등 적지
- 가액: 8억(현지답사 후 조절가능)

010-3822-456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 안양 호계동 경수산업도로 대로변 재래시장입구
- 평당 : 24평, 5층 건물 3층
- 구조: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 칠성, 용왕, 산신탱화, LED영가단(540), 인등(170), LED 연등 (300)
- 방2개, 주방, CCTV4대 설치
- 보증금 1300만원에 월 4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8369-3569

포교원안내

- 위치 : 남양주 호평동, 호평동역 3분거리
- 평수: 3층 54평
- 가액: 3천만원에 12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1-516-55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천광리
- 천수천안관세음, 신중탱화,
- 후불탱화, 소불
- 방3, 공양간, 탈의실 별도
- 시설비 1800만원
- 전세 1000만원, 월 50만원

051)721-8350
010-9243-835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오창에서 13분거리,진천에서 15분거리. 병천에서 15분거리(아우내장터)
- 부지 2000여평
- 법당: 목조 30평, 관음전 25평
- 요사채 2층 건물
- 1층 건물 3동 (방 많고 큰절)
- 깔끔하게 잘 지었음
- 가액: 12억(절충가능)
- 꼭 사실분만 전화주세요

011-412-2464

암자터안내

가평 북면에 암자를
찾고 계시는 스님께서는
연락주세요
1,500평 평당 25만원
양도하겠습니다.

010-4847-7436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 40평, 2층에 2층
- 옥상사용, 도시가스
- 법당 내부단청, 원목불단
- 후불탱화, 관음보살 석자 (은행목불) 108소불(동불)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6582-2990

포교원안내

- 위치: 곤지암IC(경기도 광주시)에서 10분거리
- 대지 472㎡
- 건물 (철골조)
- 1층 140㎡ (등기외 60㎡)
- 2층 56㎡ (등기 외 12㎡)
- 1.2층 복층구조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330-584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 10분거리에 5000세대 아파트단지
- 대지 340평, 건평 200평
- 시설완비
- 석간수(물)최고, 최고의 명당
- 비로자나불, 후불탱화
- 가액: 4억 3천만원 (대출 2억 됩니다)

017-787-666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에서 10분거리
- 평수 : 535평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 주차장 30대 주차가능
- 가액: 6억 5천만원

010-9889-3188

사찰(급)안내

- 위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 총면적 약 500평
- 법당, 산신, 용왕, 요사 각 1동씩
-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조절가능
- 스님 건강상 급 양동

011-874-1593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김해부원동
- 아파트 진입로 관공서 주택지역에 유동인구 많은 상가 건물
- 53평, 4층 건물 3층 전체
- 법당, 아미타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주방, 큰방3, 넓은 대기실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보증금 시설비 보시고 합의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323-00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동구 전망 좋음
- 대지 : 50평
- 사용평수 : 120평
- 법당, 요사채, 주차장 넓음
- 가액 : 2억 8천만원

010-4601-788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대지 90평
- 외부 :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085-1119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시 지정면
- 간현유원지부근
- 사찰 3천평
- 가액: 4억 5천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9767-411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문경 시내요지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 모든시설 A급
- 시설시 1천만원

010-5258-1147

사찰(암자)안내

- 풍수적, 지리적 환경 매우 양호
- 진입로 포장완료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등 , 기도환경 완벽
- 청정지역임 (지리산 천왕봉 바로보임)
- 양도가액: 2억 5천만원
- 위치 : 경남 함양

010-4569-2710

절 터 안 내

- 위치 : 구례 문수골
- 관리지역 400평
- 정남향
- 가액 4500만원

011-9393-4965

명 당 절 터

- 위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대지 537평,
- 임야 568평
- 가액: 1억 3천 2백만원
- 지하수 수질 최고

016-849-3858

전통사찰로써 목조단청
수행과 포교의 전법도량
도심과 산사 교통편리함
(공찰 소임 관계로 양도 의향)
가액: 11억 예산
(서울.안양 인접 의왕 위치)

010-3678-2567

포교원.선원 안내

- 위치: 대전 시내 요지
- 대전역 중구청 사이
- 건물 3층
- 법당1, 방2, 부엌 넓은 홀
- 실내화장실 2, 다락방1
- 깔끔, 약 50평
- 삼불, 집기 살림 可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1200만원(조절가)

010-2460-6906
016-606-565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기장. 시장부근
- 상가건물 3층중 2층
- 31평
- 삼존불, 각단탱화,시설완벽
- 전세 500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2천만원, 절충가능
-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2565-7200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내동초등학교 앞
- 1층 38평, 2층 38평
- 법당 내부 홍송으로 처리 A급 시설
- 옥상38평, 대지67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0-3569-3021
010-2659-583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 실평수 50평
- 가액: 6천만원
- 시설비 포함

016-614-8730

영천 토굴터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 2차선에서 100M 이내
-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곳
- 기와집 1동,황토집 1동,대지 500평
- 가액: 8천만원

011-505-650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전 중구 유천동
- 대지 65평 , 1,2층
- 법당 25평, 요사채 28평
- 산신각 별도, 삼존불
- 시설완비
- 집기 일체 양도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5266-3565

사 찰 안 내

물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 사찰
- 평수 1천평, 대지 70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60평
- 스님 기거하는 1,2층 60평
- 산신각 2평 반
- 가액: 5억 5천만원

010-9416-7743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시내 요지
- 평수 : 5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협의 후 결정
- 시설 최신식, 깨끗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 30년된 도심 산속의 작은기도도량 (국유지)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가액: 8천 5백만원(조절가능)

010-5015-8511

사 찰 안 내

- 위치: 청주시에서 20분거리 충북 청원군 낭성면
- 대지 709평
- 건평 115평 중 동수가 7동
- 산신당 터 있음
- 주차장 완비
- 가액: 6억 6천만원

010-6230-2277

사찰(급)안내

- 대구 팔공산 큰방위 절 임대
- 법당 30평 요사채 20평
- 법당2, 화장실2, 주차장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이천만원 월 육십만원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부동산 사절

011-322-000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 1층 요사채 30평
- 2층 요사채 24평
- 3층 법당 24평
-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
- 대지 82평
- 가액: 3억 1천 만원

010-2637-6144

포교원안내

- 위치 :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종합 터미널 10분거리
- 대지 50평
- 방3, 세놓을 수 있음
- 아미타 삼존불
- 법당, 거실 합 25평가량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500(절충가능)

011-381-1102

암 자 안 내

- 위치 : 황령산 문만골
- 아늑한 집
- 대지: 30평
- 방3개, 화장실1
- 토굴 암자 적합
- 가액: 3400만원

010-3768-738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 대지 : 50평
- 건물 : 1층 상가 2층 주택
- 가액 : 3억 5천만원

010-3569-3021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7억5천

- 위치 : 강원
- 부지 : 5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3억1천

※ 오랜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사찰양도양수전문, 고불, 석불, 골동품, 탱화,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연못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 가액: 1억 3천만원

011-9004-149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 소답시장
- 평수 : 52평
- 법당, 상담실, 공양간, 산신당
- 보증금 : 1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약간

010-8602-3990
010-8211-859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2층)
- 구조: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최고 시설

010-4668-7380

농 가 (급) 양 도

경북 영양 대지 124평
건물 18평
2동 남향 암자 가능
가액: 4500만원

010-8899-8899 (주인직)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상가 4,5층 엘리베이트 사용
- 5층 법당 55평, 삼존불, 마애옥원불(216개)
- 4층 요사채 67평, 방3, 후원 1
- 보증금 1천만원 월 1백만원
- 시설비 3천 5백만원 최고시설 (6천만원듬)
- 합 4천 5백만원에 급양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586-4648

사 찰 안 내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
- 계곡 있고 대웅전 27평,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토굴
- 아주 완벽한 사찰 옆으로 등산로 끝까지
- 도로 멋지게 놔있음
- 현공풍수학적으로 왕향왕산임(최고좌향)
- 가액 : 7억 9천(절충가능)

010-9335-8487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4층건물 중 2층 약 40평
- 방 3개, 주방, 화장실
- 아미타,관세음대세지,지장,소불250불
- 산신, 용왕, 신장, 칠성탱화, 인등 108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모든시설 A급 시설비 1천5백만원

010-7550-9797

포교원안내

- 대구 남구 봉덕1동 봉덕시장 내
- 2층, 3층 각70평씩. 합 140평
  2층 : 공양실,휴게실, 찜질방, 강의실, 화장실
  3층 : 법당, 삼존동불, 종무실, 주지방1,부전방1,보살방1
- 시설최상, 단청되어 있음, 소불168불
- 보증금 1천5백만원,월100만원 합5,000만원

010-2878-3380

비록 백 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 법구경 –

이곳은 꿈도 현실도 아니란다. 바로 내 기억 속이지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삽화 · 김홍인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5)

무니는 오래 전 유리 영감의 오두막에서 나눴던 대화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무니는 뭔가가 떠오른 듯 노인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의 피부는 희고 윤기가 흘렀으며 눈동자는 검고 깊었다. 반듯하게 이어지던 콧날은 끝에서 살짝 뭉툭해졌고, 입술은 흰 수염에 거의 가려지긴 했지만 맑고 붉은 빛깔이었다. 어느 한 부분도 모난 데가 없이 부드러운 생김새였다. 분명 유리 영감의 이야기 속에 등장했던 그 지혜로운 자의 외모와 흡사했다. 무니가 보내는 그 시선의 의미를 알아챘는지,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이제야 그 젊은이 생각이 나는구나."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젊은이들은 어디든, 어떤 시기든 꼭 한 명씩 나타나거든. 여기를 잘 정리해두지 않으면 헷갈리기 십상이지."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노인이 말했다. 무니는 자신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역시 그 지혜로운 자라는 사람이 영감 당신이었군! 하지만 뭔가 이상해…."

무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유리 영감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책은 확실히 아주 오래된 것이었어. 유리 영감도 그렇게 말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지? 말이 안 되잖아."

"하하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리는구나. 아샹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노인은 자신의 옆에 얌전히 서 있던 말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러자 말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보였다.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당신 정체를 밝히면 될 거 아니야? 혹시 정령이야?"

무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따지듯 물었다. 노인이 다시 소리 내어 웃기 시작했다.

"너는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가 궁금한가보구나."

"당연하지. 너무 이상하니까. 그리고 여기를 좀 봐."

무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유리 영감의 오두막에서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장면들이잖아. 그 금빛 인간은 분명 사트바 카르만이라는 존재일 테고 말이야. 게다가 옛날이야기 속 주인공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

무니는 갑자기 자신의 뺨을 꼬집으며 말했다.

"그래. 아마 이건 꿈일 지도 몰라!"

그런데 이상했다. 전혀 아프지가 않았다. 무니는 반대쪽 뺨도 꼬집어보았다. 마찬가지였다. "왜 안 아프지?" 이번엔 한 쪽 발을 들어 반대 발을 힘껏 밟았다. 역시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무니는 다시 노인의 손을 꼭 붙잡았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부드러운 감촉만은 여전했다. 무니는 머리를 움켜쥐며 괴로움의 신음소리를 냈다.

"내 몸에 무슨 이상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면 진짜 이곳은 꿈속인 걸까?"

"글쎄다. 지금 이것이 꿈이라면 힘껏 깨어나면 되지 않겠니? 네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려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꿈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야 깨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지금 너는 네 자신이 꿈속에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 그 점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냐?"

무니는 머리가 무거워졌다. 차크라발라를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다.

"꼬마야. 그렇게 집어 뜯다간, 남아나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을 거 같으니 관두거라."

무니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또 꼬마라고 부르는데도 발끈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노인의 입가엔 여전히 온화한 미소만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이곳은 말이다. 꿈도 현실도 아니란다. 바로 내 기억 속이지."

"기억 속?"

마치 넋이 나간 듯한 말투로 무니가 되물었다.

"그래. 이제까지 네가 본 모든 장면들은 모조리 여기에 저장 되어있던 것들이란다."

노인은 또 다시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래도 이쯤에서 내 이름들 중 하나쯤은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구나. 네게 그것이 필요하다면 말이야. 나는 나가세나라고 한단다. 어떤 책에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한다더구나. 아샹티처럼 다른 이름들도 많지만, 내게는 가장 익숙하고 편한 이름이지."

"나가세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지금 눈앞에 있는 노인의 기억이라니, 믿기 힘든 말이었다. '그런데다 자기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소년의 표정을 읽은 노인이 말했다.

"당연하지. 당신이 나라면 그런 말들을 믿을 수 있겠어? 처음엔 이곳이 어딘지, 다음엔 영감 당신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지금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걸. 내가 어떻게 해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머릿속만 더 복잡하게 만들었잖아. 이제는 뭐?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이라고? 그럼 좋아."

무니는 한껏 찌푸리고 있던 표정을 펴더니 턱을 치켜들었다.

"유리 영감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그 멍청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보여줘 봐. 그럼 믿을게. 지금 이곳도 당신의 기억 속이라고 했으니, 기억 속에서의 이동도 물론 가능하겠지?"

"글쎄다. 그게 가능할까."

무니의 그 말에 내내 미소를 잃지 않던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뭐야. 그렇다면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다 무효야. 무효라고! 어서 진짜 정체를 밝히시지!"

무니는 눈을 크게 뜨고 노인을 노려보며 말했다. 노인의 입가에 슬그머니 미소가 다시 피어오르는 게 보였다.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는 그 미소를 본 무니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 때 노인이 그런 소년의 손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래. 그럼 어디 한 번 가보자꾸나."

하지만 무니는 그 말을 끝까지 채 들을 수 없었다. 눈앞에 다시 찾아온 눈부신 빛에 또 정신을 잃었기 때문이다. 희미하게 남카, 아니 아샹티가 내는 풀피리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다 사라졌다.

한없이 이어질 것 같던 눈부신 빛의 소용돌이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이번에도 소용돌이의 저편에서 문이 탁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무니가 의식을 차린 것도 그 소리 때문이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무니는 주위를 둘러봤다. 노인과 아샹티가 보이지 않았다. 무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순간 현기증이 일어났지만, 이마를 짚고서 다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먼저 확인한 건 하늘빛이었다. 다행히 보라색 하늘이 아니었다. 다른 것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울창한 나무숲과 초록의 풀, 노란색의 들꽃들, 그가 원래 살았던 세계와 비슷한 모습이었다. 무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돌아온 건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노인의 힘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 했다.

"그게 다 꿈이었다면 정말 실감 나는 꿈이었어. 나중에 난다에게도 이야기해줘야지."

"이제 일어났구나."

무니는 낯익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인과 아샹티였다. 안도하던 무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맙소사. 아직도야?"

무니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런 소년의 모습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던 노인이 말했다.

"괜찮으냐? 아무리 기억이라고는 해도 시간을 넘나드는 건 워낙에 힘든 일이니 몸이 많이 지칠게야."

"힘들어서가 아니야. 난 모두 꿈인 줄로만 알고 안심하고 있었다고."

무니는 쳐졌던 어깨를 조금 끌어올렸다.

"여긴 어디야? 영감이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곳을 떠나오긴 한 것 같은데."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와 문답을 주고받았던 그 어리석은 젊은이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달라고 말이야."

무니는 깜짝 놀랐다.

"그럼 여기가 바로 그때 그 장소란 말이야?"

"그래. 자, 저기를 한번 보렴."

무니는 노인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멀리 어떤 형체가 보였다. 사람처럼 보이긴 했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너무 하얗고, 앙상해서 도저히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몹시 늙어 보이기도 했다.

"저건 누구지?"

"네가 궁금해 했던 바로 그 젊은이란다. 저게 바로 그의 노년 모습이지."

무니는 "저 사람이?"라고 되물으며 놀란 표정으로 그 사람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그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무니 쪽을 쳐다보았다.

사 찰 양 도

■ 대전에 소재한 사찰로 토지 약 1800평, 신축 4층 건물로 높이는 일반 건물의 2배정도, 연건평 560평, 10여개의 홀로 구성됨. 주차시설 80대 이상 가능, 주변에 맹지 많음.

■ 대로변에 위치, 톨게이트에서 5분거리, 전철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세종시 15분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음.

■ 입구는 사도이고 주변이 숲으로 독립된 공간이며 청정지역임.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들이 있음.

■ 포교당, 불교대학, 명상센터, 교육 · 연수원, 갤러리, 장례법당, 납골당 등으로 적지임.

■ 계룡산 아래 위치해 소나무 숲으로 주변 경관이 좋고, 등산로와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음.

■ 양도 의향이 있으니 **011-455-108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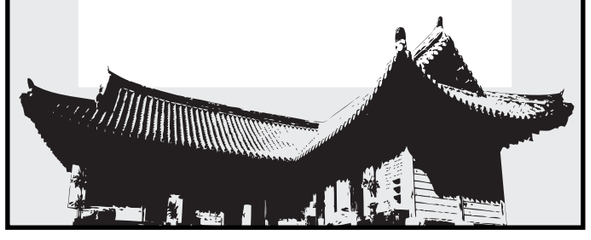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학'

쌍학흉배와 이중섭의 그림 "부부"


쌍학흉배


이중섭의 '부부'

백학(白鶴)은 한국의 전설 속에서 봉황과 함께 이름 높은 새인데, 천년을 장수한다는 십장생의 상징 중의 하나이다. 두루미라고 불리기도 하며, 선학(仙鶴)·선금(仙禽)·노금(露禽)·태금(胎禽)·단정학(丹頂鶴) 등으로도 불린다.

학은 흑색(黑) 황색(黃) 백색(白) 청색(靑)의 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검은 학은 600살이 되면, 물만 마시고 산다는 전설이 있는데, 청아함을 나타내는 새로서 군자를 함께 의미하는 백학을 따라갈 수 있는 새는 거의 없다.

일제시대에 남아있던 사진에서, 충청도 산골의 어느 민가에 높은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우아하게 서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이제는 학의 수가 급격히 줄어서 1968년 당시 종(種) 자체를 천연기념물 제202호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몸길이가 무려 140센티에 달하고, 긴 다리로 서있는 것을 몇 년 전에 일산호수공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학을 보았는데, 머리는 붉은 피부가 드러나 있다.

불로초(不老草)는 영지(靈芝)버섯처럼 생겼는데, 고대 중국의 전설에서는 곤륜산(崑崙山)아래에서 흐르는 붉은 유수(流水)와 옥(玉)으로 된 괴석 사이에서 자라는 불로초를 신초(神草)라 부르며 덕이 있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영지초가 자라난다고 한다.

쌍학과 불로초는 사실 관복의 가슴과 등에 덧대는 수놓인 천인 쌍학흉배(雙鶴胸背)에 나오는 디자인인데, 본래 당상관(堂上官)이 착용하던 것이다. 옅은 청색의 비단바탕에 위쪽에는 구름을,

> 백학은 봉황과 함께 전설 속의 새
> 십장생의 하나로 두루미로도 불려

가운데는 날개를 활짝 편 쌍학이 불로초를 입에 물고 마주보는 모양을, 아래쪽 중심부에는 칠보무늬를, 좌우에는 물결무늬를 수놓는다.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의 품계로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당(堂)위에 올라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하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이 있는 관리를 당상관이라 부르는 데, 서자나 중인으로 당상관에 오른 사람은 동의보감 편찬을 주도한 어의(御醫) 허준(許浚)이나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 독립운동가이며, 한국 최고의 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의 산파역을 하신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의 부친인 역매 오경석(亦梅 吳慶錫) 정도이다.

대향(大鄕) 이중섭(李仲燮: 1916~1956)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화가이다. 그의 작품 〈부부〉(1953)는 대다수의 평론가가 청색 날개의 수탉과 홍색 날개의 암탉이 감격적인 재회(再會)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사실 이중섭은 서화 골동을 매우 좋아해서,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 영향을 받아 천도복숭아를 그렸다고 한다. 이 '부부'라는 작품을 보면, 흉배의 쌍학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붉고 푸른 배경은 붉고 푸른 흉배의 구름과 일치하고, 새의 긴 다리는 학의 긴 다리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새의 머리에 붉은 벼슬은 사실, 불로초나 단정학의 붉은 피부와 일치한다. 대향의 이 그림은 우리가 아는 켄터키 치킨이 아니라 사실 백학인 것이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달빛

까맣던 세상에 달빛이 드리운다.
보고팠던 그대의 모습이
그대의 미소가

달빛아래 서있다.
꽃들이 콧노래를 흥얼대며
너와 나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무용수연 선사의 '옛 솥[古鼎]'

몸을 놓아 불구덩이에 앉았네

鼎乎那劫鼎 (정호나겁정)
體用甚分明 (체용심분명)
仰口承天氣 (앙구승천기)
放身坐火坑 (방신좌화갱)
煮出無生飯 (자출무생반)
烹成不濕羹 (팽성불습갱)
滿腸禪悅味 (만장선열미)
日爲衲僧傾 (일위납승경)

솥이여 어느 겁의 솥인가
체용이 매우 분명하구나.
입을 벌려 천기를 받아들이고
몸을 놓아 불구덩이에 앉았네.
생것 없는 밥을 쑤어내고
날것 없는 국 끓여내네
배에 선열미가 가득하여
날마다 스님들 위해 기울이네.

무경자수(無竟子秀; 1664~1737) 스님이 솥을 의인화하여 불법을 그려낸 작품이다.

나겁(那劫)의 솥이란 몇 생이나 생사에 헤매고 있는지 모를 나를 견주었고, 체용이 분명하다 함은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곳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전제했다.

천기를 받아들이면서 불구덩이에 앉아 있다는 묘사는 저 문수보살이 말한 "마치 청정한 땅에서는 연꽃이 나지 않고 진흙탕에서만 연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이 번뇌 속에 있는 중생이라야 불법을 일으킬 수 있으며 번뇌가 곧 여래의 종자"라는 의미의 다름 아니다. 불타오르는 번뇌의 구덩이에 들어가야 보리를 이룰 수 있음을 이른 것이며 번뇌와 보리가 따로따로가 아닌 한 몸에 있음을 보인 것이다.

'무생(無生)', '불습(不濕)'은 생이 없는, 혹은 습기 없는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완전히 끓여진 밥과 국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나라고 하는 각각의 개체가 삶아지고 끓여져서 모두 뭉개져 버려 한맛의 밥과 국으로 거듭남을 비유한 것이다. 그 둘이 하나가 된 맛이 바로 '선열미(禪悅味)'이다. 솥은 번뇌의 불꽃에서 피워낸 깨달음의 맛을 나 자신만이 누리지 않는다. 솥이라고 하는 한 물건이, 나라고하는 한 물건이 존재하는 이유를 스님은 재치있게 다 보여줬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 · 조계종 교수아사리)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Dau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864호 현대불교
2011년 11월 30일(음 11월 6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마음의 장난 아닙니까!

여러분과 더불어 한자리 하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진리가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교가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걸로 알고들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불(佛)이요, 일체 만물만생이 살아오면서 진화되고 형성되고 또 자비를 알고 물리가 터지고 지혜를 얻고 하는 것이 교(敎)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무한하게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뇌 하나가 그렇게 끊임없이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쳇말로 하자면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거죠. 그 자동적인 컴퓨터는 이 정수봉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름해서 정수봉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머리 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쓰게 되는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한 지구 안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버스라면 그 버스 한 대 안에 앉아서 네 좌석이니 내 좌석이니 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한 철 살다 갈 인생들이 왜 그렇게들 버스 하나 안에서 격하게 네 거 내 거 가르면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철 사는 자체가 바로 자기가 자기 차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차원이 주어지고, 또 미래의 차원이 주어지고 삶과 권리와 모습이 주어집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버스 안에 식구가 들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온갖 생명들이 다 들어 있으면서도,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싸운단 얘기죠. 때리고 싸워야만 싸움입니까? 욕심과 관습 때문에, 의리부동하고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않아서 부덕한 탓으로 인해서 오는 그 역경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 가려면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마음을 개선해서 참다운 진실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 정신계를 무시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를 리드해 나가는 정신계를 우습게 생각한다면 자기 몸뚱이 싹이 어떻게 푸르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뚱이를 싹으로 비유하면 자기 불성의 주인공은 바로 뿌리입니다. 그런데 요만한 이파리 하나도 뿌리에 다 달려 있거늘 그렇게 자기를 리드하고 자기를 이끌어 주고 자기를 지켜 주고 자기를 작용케 해 주는 근본 자기 보배를 무시하고 껍데기 자기만 자기라고 하니 진정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실천이 나오겠습니까? 의리가 나오겠습니까, 도의가 나오겠습니까? 충성이 나오겠습니까, 효도가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이건 그저 자기 껍데기만 아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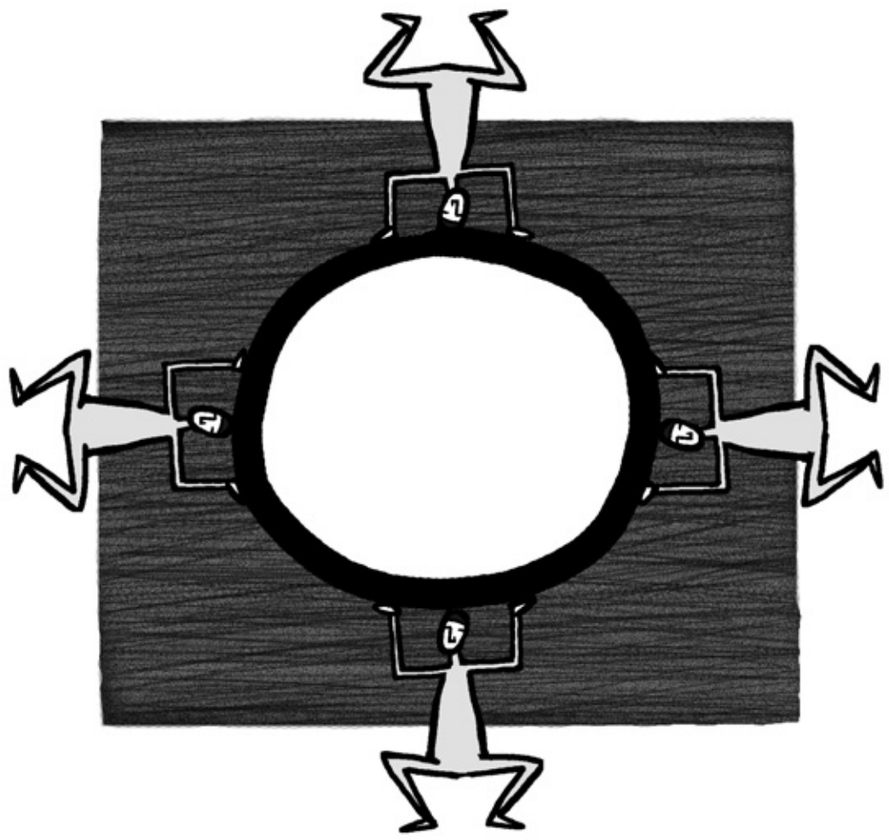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그 음파가 퍼졌다 반사되어서 자기한테로 다시 들리는 메아리를 말입니다. 공을 벽에 치면 자기한테로 다시 튀어오는 원리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듣지 못하게 욕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상대방은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뜻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는 대로 상대도 벌써 알고 있다는 거를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소리도 그렇게 속으로만 나오고 나중에 터지면 크게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우리 애들에게도 인생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수레같이 굴러간다고 가르쳐 줘야, 길을 튕겨 줘야 될 텐데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거 교육계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싸움도 없어지고 부모에게 망나니짓도 안 하고, 강도도 없어지고 도둑도 없어지고 사기꾼도 없어진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아무것도 겁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근본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진화시켜 왔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일대사의 인연을 맺은 그 뜻을 뼈 한 무더기를 놓고 가르치셨습니다. 생략해서 말하겠습니다. 거기다 절을 하시니 "어찌 사생자부이신 부처님께서 하찮은 거기다 절을 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얘, 그 말 마라.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다." 하고 대답하신 뜻이 뭐냐. 우리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치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면서 진화되면서 형성된 장본인이 모두 여기 지금 앉아들 계십니다. 나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억겁을 거치면서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 왔습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꺼내 놓기 위해서 그냥 아픔을 무릅쓰고 찢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매미는 천 일을 땅속에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고는 자기 번데기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또 기다리다가 자기 몸을 찢고 나오는데, 그래 놓고도 얼마나 있다가 갑니까? 그런 것들만 생각해 볼 게 아니라 여인네들이 어린애 낳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돼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는데, 조상이 자식한테 태어나기도 하고 자식이 죽어서 또 부모한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껍데기를 찢고 나옵니다. 어떠한 생명체들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산길을 걷다가 보니까 소나무 하나가 이렇게 배들배들 하면서 뿌리를 땅에 못 박아서 그냥 건당 걸려 있습디다. 그래서 '너 혼자서는 뿌리를 땅에다 딛지 못하니?'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선 흙을 좀 갖다 뿌리를 묻어 줬어요. 나중에 몇 달 만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뿌리가 땅속으로 아주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하다못해 옥수수나무도 보세요. 이거 생략해서 몇 마디 하는 겁니다. 그 해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기후가 아주 험하다 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그냥 사방으로 뿌리를 아주 깊이 잡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게끔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데, 고등 동물인데…, 부처 될 수 있는 가망이 99%라고 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부처는 이미 돼 있는데 자기가 몰라서 그렇죠. 안팎이 다 알아야 하는데 안에서는, 불성은 본래 있는 거고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본래 있는 거고, 또 자기가 그냥 여여하게 살고 있게끔 돼 있는 거고 전부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내고 들이고 내고 들이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따라서 여여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말이지마는 또 가장 어려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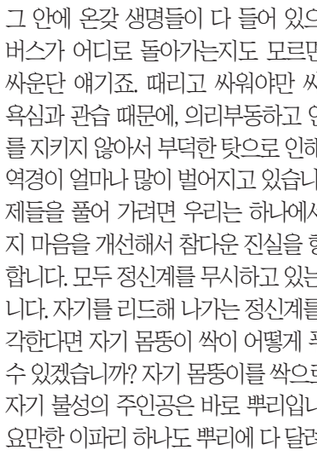
우리가 수억겁을 거치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올 동안 그 치욕스러운 아픔을 얼마나 견뎌 왔을까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거보다도 지금 IMF 때문에 뭐가 어떻다고요? 과거에도 이런 IMF 같은 경제 혼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만 이렇게 온 게 아니죠. 역사를 본다면 일제시대 때는 나라도 뺏기고 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뭐라도 연명하려고 토마토 한 소쿠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가다 들켜

☞ 30면으로 계속

반야심경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신선한 발상, 새로운 접근, 알기 쉬운 해설!
문자 해석을 넘어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현실적인 해설!

학술연찬회
주제: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11월 19일(토) 10:00~18:00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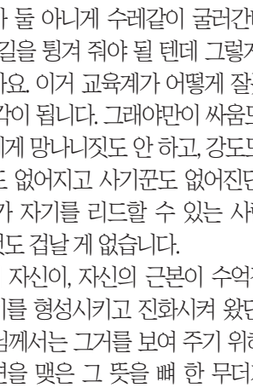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집착을 버려라

물질과 과학의 노예가 되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현대인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해주는 책.

히로 사치야 저, 강인 옮김 | 국판변형 | 270쪽 | 값 10,000원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초기불교와 인도·티벳 불교, 선불교, 서양철학과
현대의학 등 각 분야에서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성찰한 책.

정준영·안성두·황금연·박찬국·우희종 저 | 348쪽 | 18,000원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루리인가
정준영 외 396쪽 | 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 400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 424쪽 | 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416쪽 | 2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주문 (02) 3672-7181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닥치는 대로 모든 걸 수용해서 주인공에 놓으세요

☞ 29면에서 계속

서 그냥 발길로 차여서 내던져지고…, 그럴 때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밥을 굶습니까, 옷을 헐벗습니까? 좀더 생각이 깊다면 우리가 침착하게 부처님 말씀처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한마디 해 주셨죠.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아무리 폭풍이 치더라도 배에 탄 사람은 선장을 믿고 선장한테 의지하고 어떤 거에든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가는 데까지 가는데, 배에 앉아 가지곤 온통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주해신!' 하고 찾으니까, '굽어살펴 주소서.' 하고 그냥 뛰고 야단법석을 하니까 배는 뒤집히게 돼 있죠. 오직 자기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더불어 선장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 하나로 믿고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그냥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이러고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는 데까지 능히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격이죠. 침착하게 정신계의 과거 자기를 믿고,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자기를 진화시킨 장본인이니까 진짜로 믿고 '너만이 모든 국난을 다 평정하게 할 수 있어.' 하곤 그냥 거기다 맡겨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빨리 우리 마음이 안정되고, 빨리 국난이 극복되고 빨리 돈을 갚게 됩니다. 가정의 일도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모든 걸 수용해서 거기다가 맡겨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또 잘됐으면 '감사해.' 하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만 한다면 빨리 해결되는 거죠. 학교 내에도 굶는 애들도 많고 지금 자식한테 버림받고 있는 노인들도 많거니와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기 위해서 우정 이름을 감추고 가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내가 알아보니까요. 그것을 볼 때에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다 내버리고 그러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겁니다.

지금 기독교나 가톨릭교도 그렇습니다. 주처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고 상대가 있는 거지 자기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부터 알아라. 바로 네가 있는 게 주처다.' 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주님을 어디서 찾아요? 저기서 찾아요, 고상을 걸어 놓고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모두? 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 형상도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 생명도 내 생명이다. 그저 삼 배를 올리든 칠 배를 올리든 구 배를 올리든 둘 아닌 까닭에 항상 마음으로 둥글려서 올리면, 바빠서 일 배를 해도 구 배가 되고 구 배가 삼백 배도 되고 백팔 배도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 배가 백팔 배도 된다 이겁니다. 삼천 배도 되구요.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미국을 가는데도 빛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마음이 빛보다 더 빠르겠느냐?' 이러겠지만 빛보다 더 빠른 거예요. 빛은 착오가 있지만 이 마음은 착오가 없어요. 물속이고 어디고 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계를, 나를 이끌어 가는 나 자신을 모른 척하고 만날 바깥에다가 빌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는 빼놓고 항상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제 자기가 자기를 알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너의 몸뚱이가 오신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을 벗어나야 바깥에서 통을 굴릴 수가 있는 거지, 네가 네 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네 통을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느냐." 그러셨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마음이 벌써 자기를 리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남도 다스리고, 자기를 리드하면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이겁니다.

참, 요만한 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꽃이 핀 것도 보고 돌 있는 것도 보고 물 흐르는 것도 보고, 모든 걸 보고 배웁니다. 그것도 전부 살아 있어요. (법상을 두드리시며)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배웠으니 내 스승이요, 또 그것들은 날 보고 배웠으니 또 내가 스승이요. 그러니 피장파장이죠. 이게 평등공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꽃이 핀 것도 보고 돌 있는 것도 보고 물 흐르는 것도 보고,
모든 걸 보고 배웁니다.
그냥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승 아닌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배웠으니 내 스승이요,
또 그것들은 날 보고 배웠으니 또 내가 스승이요.
그러니 피장파장이죠.
이게 평등공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좋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마음 도리를 실천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실천에 역점을 두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비스럽게 행할 수 있다면 만민이 다 아마 "당신은 정말 정말 진짜 사람이야." 할 거예요. 죽어도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을 때, 한 철 살다가 회향할 때에 그냥 깨진 바가지처럼 구르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회향입니까, 어디? 인생 산 겁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불교는 있었다는 얘깁니다. 이게 진리인 것이지 머리 깎은 사람이나 불교를 믿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세미나가 벌어졌어요. 일본 불교고 뭐 기독교 가톨릭교 모두 모여서 말입니다. 우리 스님네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기에 "이 모습을 우습게 보는 것은 당신네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불이라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해 주면서, 또 중이란 어느 종교 하나에 국한됨이 없이, 진리를 숭상하는 대인이자 바로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야기해 줬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스님네들이 왜 그렇게 싸웁니까?" 그러기에 "그건 도반들이 투쟁하면서 발전하느라고 그래. 부딪침이 없으면 도를 이룰 수가 있나?" 이랬죠. 사실 생각하기에 달린 겁니다. 생각하기에 달린 건데 생각을 넓게 못하면 아예 그냥 빗나가죠. 남을 헐뜯게 되고 망가지게 만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못났더라도, 배우지 못했더라도 좋아요. 내 마음이 넓고 착하고 진실되면 그저 어디에서든 알게 돼 있고 어디에선가 다 보는 데가 있어요.

이슬람교 세력이 인도에 침입하면서 전자에 불법을 공부하던 대학도 태우고 경전도 다 태웠다고 그러죠. 그런데 인도가 지금 뭐가 잘됩니까? 병신이 너무나 많고, 그 잘못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화해서 나와서 결국은 부처님 법당에 가서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모두가, 사람이 자기 한 대로 사는 겁니다.

정수봉이라는 게 자동적인 컴퓨터입니다. 우리 전부에게 있습니다.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갖추어진 자동적인 컴퓨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입력이 됐단 말입니다. 입력이 돼서 입력이 된 대로 현실에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맡겨 놓으면 바로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고 새로 입력이 돼 들어간다 이 소립니다. 얼른 쉽게 불가에서 하는 말로 하자면 '소멸된다' 이 소리죠.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우리의 머리도 좀 더 시대에 따라서 깨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은 옛날 방편으로는 애들 기르기 어렵죠? 그러니까 현대의 방편으로써 좀 씨가 먹히게 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죠. 하다못해 식탁 위에라도 '과거 너를 믿어라. 진짜 너의 주인공을 믿어라.' 하고 써놓고 의욕이 없으면 거기다 '너만이 의욕 있게 할 수 있어.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아프면 '너만이 낫게 할 수 있어.' 하고,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면 '너만이 집안이 화목하게 할 수 있어.' 하고 관하라고 하세요. 모두 거기에요. 거기가 원동력이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사람의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해서 과학이 아닙니까? 불이 꺼지고 켜지는 것은 보면서,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안 보인다고 그게 없는 겁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부모 자식이라는 가설이 된 거예요. 본래 가설이 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스위치를 딱 올리면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하고 그렇게 해 주면 그쪽에도 불이 들어와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회개를 하고선 "어머니, 내가 이날까지 참 잘못했어요." 그러곤 가출했다가 들어와서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리 신도님들 중에는 그런 자식들도 많고 그런 남편들도 많고 그런 부인들도 많아요. 금방 헤어지겠다고 하다가도 그냥….

그게 마음의 작용이니까요. 우리 사는 게 마음의 장난 아닙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다. 과거의 나, 불성이라는 거는 체가 없고 움죽거리지도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준다. 아주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을 배출해서 바퀴가 이탈되지 않게 굴러가면서 여러 용도대로 씀씀이를 쓰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꽉 잡고 믿고 모든 것을 이탈되지 않게 한생각을 잘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허공에 그림 그리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한생각이라는 것은 내면세계의 자기 근본하고 통하게 하는 거죠. 이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잔뜩 들어 있단 말입니다. 잔뜩 들어 있는 생명들의 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한생각을 잘하면 의식과 더불어 같이 공용(共用)이 됩니다. 즉 불가에선 용무(用無)라고 그러죠. 용무의 행이라고 그러지마는 우리는 공용이라고도 합니다. 공용의 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공심이 되는 거죠. 공심이 되면 공용으로 온갖 마음 의식을 다 내서 바깥에까지, 즉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다 처리를 하고 다시 원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성과학이기도 하고 심성천체물리학이기도 하고 심성의학이기도 합니다. 심성 문화도 되고 일체, 어떤 거든 아니 되는 게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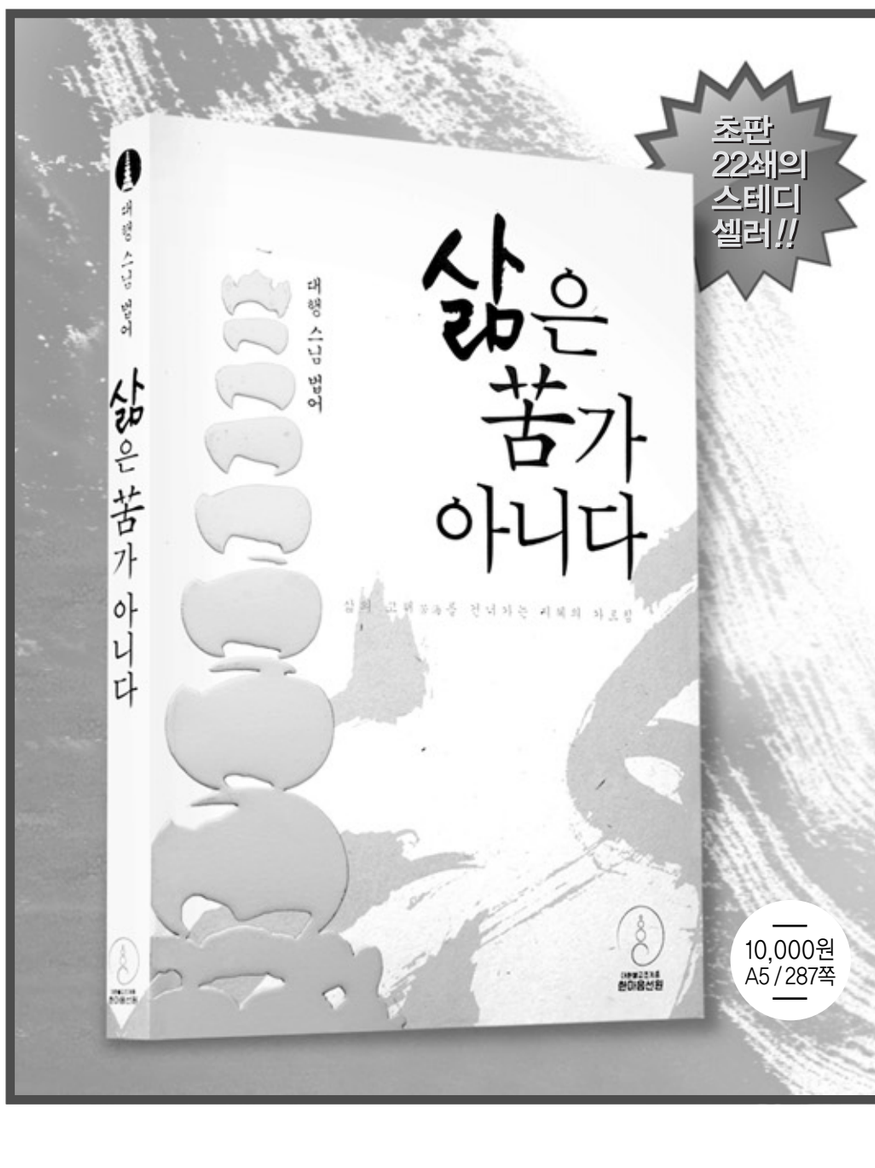
그래서 하다못해 요런 돌 하나 굴러가는 걸 봐도 내 스승이거늘 머리 깎은 스님을 업신여겨서 되겠습니까. 머리를 깎는 거는 일체 무명초를 깎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말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깎아 버리는데 끊임없이 다시 나와요. 나오면 또 깎아 버리고 나오면 또 깎아 버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노력하고 그만큼 진실하게 실천하는 데서 모든 게 오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만한 벌레도 자기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 살을 찢는다고 그랬잖습니까? 몇 겹을 찢어요. 그런 걸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는 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미물의 짐승이나 또는 미생물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물에서 사는 거든 질척한 데서 사는 거든 허공에서 사는 거든 우리 인간들이든 다들 보면 다 그만한 고통이 따르고 그만한 괴로움이 따르고 그런 아픔이 따라요. 육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하는 세상을 보면 우리 인간도 지금 정신계에서 정신을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않나'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잡아먹고 그러진 않아도 정신계에서 역시 정신을 잡아먹고 정신을 잡아먹히고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리드해 나가는 자기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믿어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데서 다가오는 거는 칼을 들고 와도 대치를 못할 거니까요. 몽둥이를 들고 와도 대치 못해요. 병균이 닥쳐와도 대치를 못하고 영계성이 닥쳐와도 대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꼭 믿고 주인공을 잡고 있으면 들에서는 오방신장 또는 호법신장이요…, 뭐 모두가 그 한생각에서 다 화해서 나오는 거죠. 부처님 마음속에서 보살들을 다 낳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8년 12월 13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 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불교복지법인들, '도가니법' 개정에 동참을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문화적 호소가 갖는 파급력에 놀란 정치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전과자 임직원 채용제한, 성폭력 반복시 시설 폐쇄 등 수용자 인권보호 조항을 비롯하여 공익 이사제, 이사 및 시설장의 정년제 도입, 후원금 관리공개 의무화 등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이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까지 잰걸음을 하고 나선 이유는 이번 인화학교 사건에 복지법인들의 낮은 인권의식과 보호 제도 미흡이 직접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배경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적지 않은 복지시설법인들의 족벌경영과 폐쇄적 운영풍토, 불투명한 회계관행과 부정, 미흡한 처벌 규정 등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당장 인화학교를 운영하던 복지법인 '우석' 만해도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설립자의 친인척들로 채워진 법인 이사회는 이를 방조했고, 에바다학교, 성람재단, 석암재단 등은 시설장이 처벌을 받은 뒤에도 아들이나 친인척이 시설을 물려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상당수 복지법인이 안고 있는 폐쇄적 운영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한다고 하니, 일부 종교법인들과 학자들의 반대의 견이 솔솔 풍겨 나오고 있다. 국회의 개정 추진을 앞두고 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한 11월 15일의 토론회에서도 반대의견들이 주종을 이뤘다. 대체로 인권보호라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안 시행시 정부 규제가 과도하여 법인 설립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명분인데, 이건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개입받기 싫으니 지금처럼 두라'는 것이다.

물론 종교사회복지협의회가 아직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지는 않았고, 협의기구 수준이어서 단일한 입장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복지법인의 절반이상을 점유하는 종교복지법인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반대 정서를 표출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종교법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노무현 정부때만 해도 성람재단, 석암재단, 성실요양원, 은혜사랑의집 등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비리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종교복지법인의 상당수를 점하는 보수 개신교계와 한나라당이 반대해 결국 법개정을 못하고 만 전례가 있다. 그 결과 복지법인에서 국고를 횡령하고도 환수를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 법인설립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억지스럽다.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익법인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개입조차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설립자의 권한 침해라는 것도 해방이후 적산불하와 원조물자 배분 과정에서 온갖 지원과 특혜로 세워진 것이 국내 대부분의 복지시설인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 공익성이 있기에 국가적으로 지원한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마치 순수하게 자신들이 축적한 사유재산처럼 여기는 인식도 고약하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불교복지법인들은 어정쩡하게 반대 여론에 몸을 걸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하여 분명하게 찬성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부처님이야말로 승단을 운영하면서 투명성과 대중공의(민주주의)를 가장 중시했던 분이시다.

투명성과 대중공의의 보장이야말로 2600년 동안 불교가 면면히 이어져온 원동력이자 자랑스런 불교전통의 하나이다. 이러한 소중한 불교전통이 다른 일도 아닌 중생구제를 한다는 복지사업에서 발현되지 않는다면 대체 불교의 사회적 존재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불교복지법인들이 정치화된 일부 종교기득권 세력에 부화뇌동하는 것을 중단하고 시대 흐름에 흔쾌히 동참하길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종립대 불교대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유종우
동국대 불교대학생회장

조계종립 동국대는 불교계를 대표해 불교사상을 담은 사회 동량을 키워내는 산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의 발전 이면에는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국인들의 한데 뭉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국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불교대학, 그 중 불교대 학생회장으로서 느끼는 동국대와 불교대 학생과의 괴리감은 심각합니다.

현재 불교대학 자치공간이 위치한 곳은 법학관과 교수회관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해관이라 불리던 건물은 로스쿨 준비와 함께 법학관으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만해관 강의실 맞은편에 있던 자치공간은 같은 층 교수회관으로 옮겨졌으며 강의실은 법학관 강의실이 됐습니다. 불교대 학생들은 세입자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단과대학들이 저마다 고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대는 고유의 공간은커녕 자치공간을 계속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불교대 선후배들의 추억과 젊은 청년불자들의 보금자리였던 불교대학 기숙사 '기원학사'도 역시 떠돌이 신세입니다. 현재 기원학사 건물은 신축으로 인해 학사 사생들이 이주해야 할 형편입니다. 신축, 이전으로 인한 사생 이주는 수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안에서는 곧 동국대 기숙사가 완공되면 '기원학사'라는 불교대학의 전통 있는 기숙사가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불교대 안의 소통과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1학기 학생회장으로서 신경을 크게 쓴 부분 중 하나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직원 식당을 빌리고 음식들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여 '불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행사가 있기 전 미리 불교대학 교수님을 한 분 한 분 찾아 초대장을 전달하고 참석을 약속받았습니다. 행사 당일이었습니다. 재가자 재학생들만 재가자 정원의 반을 넘는 7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은 두 분만이 행사 전에 오셔서 일정 때문에 불참을 말씀해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술 행사 등으로 바쁘신 것은 이해하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에서 잠시나마 뵐 수 없다는 것은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사 외에도 불교대학 다른 행사에서 정교수님들을 뵙는 일은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과대의 경우 교수님들이 각 단과대의 밤 행사에 필참하고 일부 경비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교대학생으로서 보람도 느낍니다. 동국대학교 개교 100주년이었던 2006년부터는 '동불연꽃제'라는 이름으로 불교대 학생회 주관의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불교문화를 학생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취지하에 9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본교 팔정도에서 만다라 색칠하기, 사찰음식, 단주·연등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등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전년보다 늘려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방학 중인 7월 말부터 세심하게 준비한 이번 동불연꽃제는 1500여명의 동국대 학생들이 참여해 불교문화를 체험한 성공적인 축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불연꽃제에 참가한 학생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후기에는 진행 기간을 늘리고 프로그램 개수도 늘려서 더 많은 학생들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지원금 300만원이란 재정적 한계가 있었지만 스님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모인데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지원이 보다 커진다면 본교 학우들에게 불교문화를 새롭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축제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이런 과정에서 미래를 봅니다. 불교대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보다 힘들다는 말을 선배들의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종립대학의 자존심, 불교도로서의 마음가짐을 지켜가겠습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자리는 좋은 것은 무시하게 되고 아쉬운 것이 여운으로 남는 자리인가 봅니다.

社說

조계종, 귀부터 바로 열어라

조계종의 일방적인 종무행정이 문제이다. 포교원이 진행 중인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으로 시작된 갈등은 잠잠해 질 줄 모르고 있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총무원은 불교계 한 언론사의 비판 보도에 폭언 등 비상식적인 대응까지 보였다. 포교원 산하 단체의 내부 문제를 공론화한 한 자원봉사자를 중징계한 것 또한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엔 좋은 '깜'이다.

단체 지원금을 빌미로 조계종 명호 사용을 의무화하는 신도단체 재등록 사업은 신행단체의 조계종 줄세우기에 다름 아니다. 종무행정을 비판한 교계 언론에 무조건적인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폭언한 것은 언론 탄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재가자가 내부 고발식 문제제기를 했다고 해서 삼보 비방 운운하며 활동정지 처분을 내린 것 또한 거대권력이 개인에게 휘두른 횡포로 이해되기 십상이다.

조계종 총무원 제33대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해왔다. 총무원장 스님의 탁월한 정치력은 '계파 나눠먹기'라는 지적 속에서도 개성이 강한 교구본사와 계파 등 사분오열됐던 종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다. 대정부 관계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실책은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이래서는 안된다.

많은 불자들은 알고 있다.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의 바탕에는 무엇보다 하심(下心)이 있어야 함을. 참회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다. 조계종은 당장 닫힌 귀부터 열어라. 들으면 들을수록 열리는 것이 말문이다.

템플스테이 홍보 제대로 다시 해야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사찰과 불교문화가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외국인 2000여 명이 꼽은 서울의 명소와 완소(완전 소중한) 체험 20가지를 줄 세워봐도 한국불교와 관련된 것은 하나 없었다.

실로 충격적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한국 전통문화에서 불교를 뺄 수 없고, 템플스테이는 대표적인 관광사업이라고 말해 왔다. 불교의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간화선 등을 들고 해외로 뛰쳐나가긴 했어도 정작 내 집 안방을 드나드는 손님맞이는 소홀했다. 템플스테이를 한다며 사찰마다 요금표는 붙였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에 점하나 찍지 못하고, 그리움 하나 남겨두지 못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여러 해석·해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만 해도 하루에도 수백 명의 외국인이 다녀가지만, 그들은 정작 조계사가 아닌 '인사동에서 전통물건 쇼핑하고 전통차 마시기'(8위)를 꼽았다. 천년고찰 봉은사도 마찬가지. 봉은사가 있는 삼성동을 찾는 외국인들은 '코엑스 전시와 아쿠아리움 둘러보기'(21위)를 선택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 주무기관은 제대로 진단하고 똑바로 개선해야 한다. 적어도 "정부 지원금이 줄었기 때문"이라거나 "서울에 사찰이 적어서"라는 남탓·환경탓 만큼은 하지 말자. 서울시의 설문조사 이번 결과 발표가 한국전통문화 정수를 세계에 알리는 템플스테이를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도우미]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산사와 주련



산사와 주련은 부처님 말씀이나 대선사님들의 게송으로 주옥처럼 빛나는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접근과 이해가 어려워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산사와 주련』 달력은 이런 현대인들이 주련을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또한 당대 서예가들의 명필글씨를 그대로 옮김으로써 주련의 의미와 감동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 질 : 스노우화이트지 제 본 : 트윈스프링

가 액 : 6절 30.5㎝ 1,700원 (100부 이상 사찰명 인쇄)
12절 25.5㎝ 1,500원 (100부 이상 사찰명 인쇄)

주문 후 배송까지 7일이 소요됩니다.

주문전화 02)2004-8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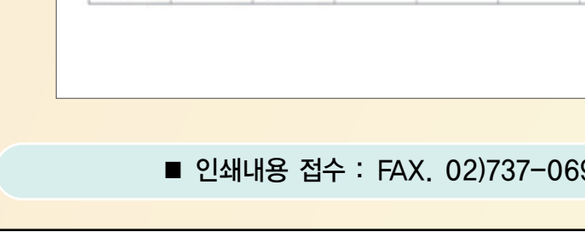


■ 인쇄내용 접수 : FAX. 02)737-0696 / e-mail. jabi82@naver.com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좋은 콜레스테롤 HDL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내리고!

혈관건강을 지키는
폴리코사놀10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식약청 개별인정 기타기능I등급



연구제목 : 폴리코사놀이 건강한 정상 인원의 혈중 지질과 지단백질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 Current Therapeutic Research 1992 Vol 51. No.4: 868-575
연구자 : F Hernandez, J Illnait, R Mas etc | 섭취기간 : 4주
연구대상 : 정상 인원 (총 콜레스테롤 240mg/dl 미만) | 섭취량 : 20mg

※본 인체시험 자료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은 깨끗할 때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소비자 교육용 자료로 제품의 기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HDL/LDL 소비자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청]

폴리코사놀의 기능성

- 인체내의 특정효소(HMG-CoA)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줍니다.
-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수치를 올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내림으로써 혈액 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REDUCES CHOLESTEROL 개별인정 제2006-4호 기타기능 I등급

폴리코사놀은 다릅니다!

한국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형 기타 기능 I등급을 받아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991년부터 10여년에 걸친 인체시험을 통해 안전성 및 기능성이 증명되었습니다.
국제 학술저널(SCIE급 포함)에 100여편의 인체시험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쿠바 동부의 사탕수수 잎 줄기 표면의 왁스 성분에서 8가지의 고분자량 일차 지방족 알코올을 발견하여 순도 90%이상 추출한 성분으로 100% 천연원료입니다.

KHSA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사전심의제

폴리코사놀 섭취대상

- 총 콜레스테롤(TC), LDL 콜레스테롤이 권장수치보다 높으신 분
- HDL 콜레스테롤이 권장수치보다 낮으신 분
- 혈관 내 LDL(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고자 하시는 분
- 혈관 내 HDL(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자 하시는 분
폐경기 이후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졌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진 여성분

폴리코사놀은 확실합니다!

- 국제지적소유권기구(WIPO) 발명상 수상(1996)
- 대만 후생성 Medical Care Award 금상 수상 (2004)
- SCIE급 미국 의학 학술지 우수임상논문 수상
- 쿠바 국립과학연구소(CNIC)에 의해 개발
- 30여개국에 콜레스테롤 관련 특허 등록
- 유통기한 5년(60개월) 설정으로 제품의 안전성

레인보우 폴리코사놀 특별할인행사

아래 유명백화점에서 레인보우 행사기간 동안에 특별할인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기간 : 2011. 11. 28(월) ~ 2011. 12. 4(일)
행사매장 : 현대백화점 부산점 지하2층 건강코너 레인보우

행사기간 : 2011. 12. 9(금) ~ 2011. 12. 15(목)
행사매장 : 현대백화점 대구점 지하1층 건강코너 레인보우

(주) 우리레인보우 전국매장 안내
신세계백화점 : 본점/강남점/인천점/죽전점/광주점/마산점/센텀시티점/스타수퍼
롯데백화점 : 본점/안양점 현대백화점 : 부산점/울산동구점 신라면세점
AK플라자 : 구로본점/분당점/평택점 갤러리아백화점 : 명품관 아시아나항공 : 기내면세점

신세계백화점 HYUNDAI LOTTE 롯데백화점 AK PLAZA Galleria THE SHILLA DUTY FREE 아시아나항공

문의전화 : 080.033.2200 AUSTRALIAN MADE. Rainbow
www.rainbownature.com